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Danuri Helpline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031-257-1841

제192호 2021년 03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군부 쿠데타 이후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미얀마를 지원하기 위해 부천에서 힘을 모았다.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부천모임(이하 부천모임, 대표 손인환)은 지난 2월 28일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서 미얀마 군사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김마웅 재한미얀마공동체 회장 등 미얀마 이주민과 부천시민 등이 참석했다. 미얀마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관련기사 27면> 송하성 기자

코로나 백신, 다문화가족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외국인주민 무료 접종

정부는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어떻게 될까? 이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그 대상을 '장기 체류자이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총 7,900만명 분의 백신을 구매 계약 완료하였으며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도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총 4분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1분기(130만명)

▲요양병원, 요양시설입원, 입소자, 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 구급대 등 1차 대응요원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 입소자, 종사자

■2분기(900만명)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1분기 접종대상 외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종사자

■3분기(3325만명)

▲성인 만성 질환자 ▲성인 18~64세(외국인 포함)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개발시설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4분기

▲2차 접종자 ▲미접종자

외국인의 접종 순서도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관광객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는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해에 오지 못한 계절 근로자를 올해도 데려올 계획이 없다"며 "다만 계절 근로자가 온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

제에 따른 2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까지 머무는 장기체류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접종 대상자에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국민의 배우자이고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본국에서 백신을 맞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14일동안 격리해야 한다.

<중국어 29면, 러시아어 29면, 일본어 24면, 태국어 32면> 강혜나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6, 18, 20, 29, 36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17, 21, 25, 26, 43, 47 일본어(Japanese) 日本語 19, 22, 34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10, 32, 35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1, 16, 23, 29, 31, 39, 45 타갈로그어(Tagalog) 13 영어 English 6 인도네시아 Indonesian language 14 파키스탄어 Pakistan 46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15 생활정보 Information 20, 37, 39, 41 금융 Finance 35 도서관 Library 3, 4, 24 육아 Infant Care 2, 48 복지 Welfare 31 교육 Education 13, 45 기고 Column 26 문화 Culture 25, 43 인권 Human Rights 2, 6, 46 코로나 Covid19 23 요리 Cook 10 비자체류 Visa 11, 12, 17, 18, 21, 44 보건 Health 1, 5, 22, 29, 32, 47 한국어 Korean 7 이주배경청소년 10, 14, 16, 34, 36 미얀마 민주화 12, 27 취업 Job 7, 8, 9, 24, 48 역사 History 18, 36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돌입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시설 현장 조사, 이재명 지사 정책 의지 따라 실시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 차원에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포천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

외한 1,852개소이다. 읍면동 직원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만든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에 의거해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개소(56%)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개소(60%)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실의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11%)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뿐만 아니라 448개소(24%)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였으며 2월 25일(목)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도는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관련부서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는 외국인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어느 정치인보다 도내 외국인 주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향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박창순 위원장)는 지난 24일(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대안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주

도적으로 추진한 장태환(더민주, 의왕2) 의원과 김성수(더민주, 안양1) 의원, 송치용(정의당, 비례) 의원,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관계 공무원, 경기도 및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안양대학교)는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이용률 제고 ▲수요자 요구 기반 사업개발 및 운영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 개발 및 운영 등을 제안했다.

장태환(더민주, 의왕2)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로 더 심각해진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김미리 도의원, 급식비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더민주, 남양주1)은 25일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급식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센터 이용아동 수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하였고,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미반영’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등 경기도의 별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센터 급식비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한국의 교육과정 낯선 다문화가족의 궁금증 해소하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정보 사업'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아이의 입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혼이주여성은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는 지난 2월 17일 '학령기 자녀 입학 및 입시정보 사업'을 진행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줌을 활용해 진행된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예비 초등 자녀를 위한 입학 절차 및 입시정보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정보를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엄마의 자녀교육과 지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예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 21명이 참여한 17일 교육에서는 현직 일산초등학교 교사인 조진희 씨가 강사로 나서 전문적인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환경 정보를 전달했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간 질의응답을 통

해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주어졌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엄마는 “한국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것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아이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입학선물이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됐다. 고양 일산동구에 위치한 더봄의원(이사신영식)은 최근 500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후원했다.(사진 가운데) 송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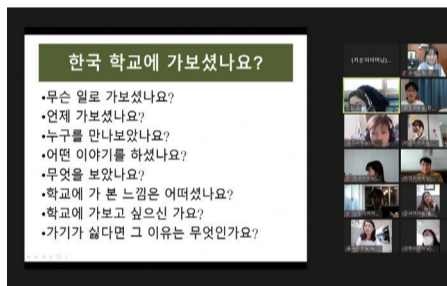
혼자서 읽지 마세요, 좋은 책은 같이 봐요

고양시(시장 이재준) 아람누리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사회적 독서를 활성화하고 독서 가치의 공유 및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강연 프로그램 '독서모임의 모든 것'을 운영한다.

이 강연은 오는 3월 4일(목)부터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총 4회에 걸쳐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강의는 '독서모임 꾸리는 법'의 저자이자 '하나의책', '호박출판사'의 대표인 원하나 작가가 맡는다. 원하나 작가는 6년 이상 독서모임의 운영자로 활동하며 300여 명의 회원들과 200회가 넘는 책모임을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 '독서 모임의 모든 것' 프로그램에서는 독서모임 구성과 준비, 운영 실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강사와 수강자 간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고양시도서관센터(www.goyanglib.or.kr)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월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기간	장소	대상	내용	담당자
다문화 자녀 '다있다' 멘토링	4/30 까지	각 가정	다문화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21명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학습 및 심리-정서 지원, 부모상담 등	장경순
폭력피해 예방교육	3/4(목) 11:00-15:00	온라인	결혼이민자 74명	폭력예방 기본교육 및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	박기숙
다문화가족 "글로벌 가족 정착기"	3/25(목) 13:00~14:00	센터 강의실III	다문화 가족 10명	상호문화 이해와 가족간 소통방법, 가정폭력 예방 등	박기숙
자조모임 "씨밀레"	3/30(화) 10:00	온라인	결혼이민자 34명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자조모임 3월 동아리 활동 및 교육 논의	장인영
자조모임 "에이핑크"	3/12(금) 14:00	온라인	결혼이민자 7명	에이핑크 오리엔테이션 임원선출 외	팜투후엔
자조모임 "다문화 봉사단"	3/25(목) 10:30	온라인	결혼이민자 25명	다문화봉사단 오리엔테이션 임원선출 외	사훈주
자조모임 "혼남들의 토크"	3/27(목) 14:00	온라인	결혼이민자 배우자 15명	혼남들의 토크 오리엔테이션 임원선출 외	박기숙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꿈나무 역사 놀이터'	3/13(토) 10:00~12:00	온라인	다문화 자녀 15명	개강식 외 역사놀이 (팝업북 만들기)	박기숙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3/26(금) 11:00~12:00	센터장실	서포터즈 8명	2차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간담회	송지남
	3/31(수) 11:00~12:00		운영위원 4명	2차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위원회	
방문교육지도사	3/31(화) 13:00	센터 강의실III	방문교육 지도사 15명	3월 간담회를 통한 사례회의, 업무안내 등	박기숙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3/15 부터	각 학교 교실 외	유관 기관 및 학교 등	다문화인식개선 및 상호문화 이해교육 및 문화체험 외	장인영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3/25(목) 14:00	센터 강의실III	이민자 5명 및 배우자, 멘토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교육	조은미
언어발달지원사업	상시	별관 외	24개월 ~ 만12세 이하 다문화 자녀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 평가하여 수준별 언어 교육 지원	오은주 정소영
통·번역지원사업	상시	센터	다문화가족 외	서비스 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다양한 분야의 통·번역 지원	사훈주, 팜투후엔
상담사업	상시	센터 본관 및 별관	다문화 가족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유미진 외

문의 : 031-938-9801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로나19 위기대응
우리 센터는 매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사랑 난타클럽'에서 함께 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난타란 기본적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를 두드려 리듬과 비트를 만들어 내는 한국형 퍼포먼스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음악과 함께 온몸으로 나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난타는 유산소 운동, 상·하체 근육 강화, 지방분해 효과에 최고의 활동입니다.

난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1. 02. 19~ 모집시 까지
- 모집 인원 : 12명
- 운영일시 : 매주 수요일
- 신청 방법 : 전화신청
- 문의전화 : 팜투후엔 (031-908-980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다양성 다양한 시책 근거 마련

김달수 의원, 민주당 경기도의회 우수상 수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는 세계화, 다문화에 접어 든 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설치와 운영, 문화소통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송하성 기자

온라인 책놀이 '책이랑 놀아볼래~?'

고양시 화정어린이도서관, 독서활동 욕구 충족



고양시(시장 이재준) 화정어린이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독서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책놀이 프로그램 ‘책이랑 놀아볼래~?’를 실시한다.

이번 ‘책이랑 놀아볼래~?’ 프로그램은 남궁옥 책놀이가 강사의 강의로, 오는 3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90분씩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

▲3월 5일 ‘내가 화나면 말야야- 내 감정 표현하기’ ▲3월 12일 ‘내 이야기를 들려줘- 내 이야기 전달하기’ ▲3월 19일 ‘나는야 척척 해결박사- 해결방법 함께 모색하기’ ▲3월 26일 ‘너의 마음을 들려줘- 상대방의 마음

을 이해해보기’ 등의 주제로 온라인 실시간 강의(Zoom) 방식으로 열린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 회차 강의마다 다른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으며 책과 관련한 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논리력, 판단력, 창의력 등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이은진 덕양구도서관장은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과 비대면 소통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어린이들이 책과 관련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함으로써 그림책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책이랑 놀아볼래~?’ 프로그램 신청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도서관센터 홈페이지(www.goyanglib.or.kr)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화정어린이도서관(☎031-8075-9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등 도민텃밭 경작자 모집

경기도, 고양 원당·화성 동탄 등 4곳서 모집



경기도가 도민텃밭을 경작할 경작자를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에서는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수요에 발맞춰 도내 유휴 공공부지 등을 ‘도민텃밭’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텃밭’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 정서함양, 지역주민 소통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대 등과 협력해 화성 동탄, 용인 흥덕, 김포 한강지구, 고양 원당 농협대 부지 등 4곳에 농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도민텃밭으로 조성해 분

양할 계획이다.

모집규모는 개인 955세대, 단체 58개소로 총 1,013구획 내외다.

도민텃밭 경작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등록지)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개인이나 단체이며, 경기도 공유서비스(https://share.gg.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6층)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도민텃밭 참가 신청자 중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가정(미성년 자녀 3인 이상), 장애인 가정, 농장소재지 인접지역 주민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경작자 선정결과는 3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도민텃밭 내 공동경작 텃밭인 드림텃밭을 조성할 예정이며 텃밭 참여경작자의 잉여 농산물을 먹거리 취약계층에 무상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우리 아이 교육비 고민 해결

2021년도 우리아이 모두 든든한 교육급여·교육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집중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 (화) ~ 3월 19일 (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지원 내용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복지포(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계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기구 확장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교육부 | 보건복지부

홍보 소식: 외국인 유학생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보험료 1년간 50~70% 할인'

외국인 유학생 3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보험료 1년간 50~70% 할인'



Bắt đầu từ ngày 1/3/2021 tới đây, tất cả du học sinh người nước ngoài đều phải tham gia mua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Hôm nay chúng tôi sẽ cung cấp cho các bạn toàn bộ những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chế độ mua bảo hiểm mới này trong bài viết ngày hôm nay.

I. Đối tượng tham gia

- Là du học sinh người nước ngoài, những du học sinh là kiều bào đang sinh sống và học tập tại Hàn quốc.

Phân loại tư cách lưu trú	Thời điểm áp dụng	Ghi chú
* Du học sinh(D-2) * Học sinh tiểu học,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D-4-3)	* Nhập cảnh lần đầu tiên → Ngày đăng ký ngoại quốc * Tái nhập cảnh → Ngày tái nhập cảnh	
* Đào tạo tổng hợp(D-4)	* Tham gia từ sau 6 tháng kể từ ngày nhập cảnh	
* Du học sinh là kiều bào đang du học trong nước	* Được tham gia mua bảo hiểm kể từ ngày nhập học sau khi nhập cảnh (Chỉ chấp nhận đăng ký mua bảo hiểm khi xuất trình giấy xác nhận đang học tại trường)	

II. Nộp phí bảo hiểm

- Phí bảo hiểm mà du học sinh phải nộp trong năm 2021: 43,490won/người/tháng (Người tham gia mua bảo hiểm bắt đầu từ 1/3/2021)

- Phí bảo hiểm tháng 4 là 39,540won + 3,950won tương đương với 1 lần trong số 10 lần trả góp phí bảo hiểm tháng 3.

+ Ngoại trừ trường hợp nộp nhiều hơn mức phí bảo hiểm trung bình của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tại địa phương.

+ Chỉ giảm trong trường hợp thu nhập tính theo hộ gia đình ở mức dưới 3,600,000won và tổng tài sản dưới 135 triệu won.

- Giảm phí bảo hiểm: Nhằm mục đích làm giảm gánh nặng về tiền phí bảo hiểm cho đối tượng là du học sinh, tỷ lệ giảm phí tăng lên từ 50~70% theo thời gian về sau. Cụ thể:

* Hiện hành: Giảm 50% * 3/2021~2/2022: Giảm 70%

- Nhằm giảm gánh nặng về kinh tế dành cho du học sinh, phí bảo hiểm của tháng 3 năm 2021 sẽ được chi ra và nộp thành 10 lần. Phí bảo hiểm thực tế : 43,490won = Phí bảo hiểm hàng tháng(39,540won) + 3,950won(1 lần nộp trả góp)

- Nộp phí bảo hiểm

+ Thời gian nộp: Nộp trước phí bảo hiểm của tháng

kế tiếp, hạn nộp là ngày 25 hàng tháng. Ví dụ: Phí bảo hiểm tháng 4 năm 2021: hạn nộp là đến hết 25/3/2021 (Công ty bảo hiểm sẽ gửi thông báo cho từng cá nhân vào ngày 10 hàng tháng)

+ Cách thức nộp tiền phí bảo hiểm: Chuyển khoản tự động, thông qua trang chủ của công ty bảo hiểm, chi nhánh cơ quan bảo hiểm hay ngân hàng.

III. Những ưu đãi khi tham gia mua bảo hiểm-Có hiệu lực từ ngày tham gia mua bảo hiểm

- Hưởng toàn bộ phúc lợi bảo hiểm giống như công dân Hàn quốc. Có thể được hưởng nhiều ưu đãi, phí khám chữa bệnh liên quan đến mang thai, sinh đẻ, khám sức khỏe, phí khám chữa bệnh tại nha khoa, các phòng khám đông y.

* Ngoại trừ các nội dung không áp dụng bảo hiểm y tế như điều trị bệnh không gây trở ngại cho cuộc sống sinh hoạt thường ngày hoặc công việc, ví dụ như phẫu thuật với mục đích thẩm mỹ.

- Việc khám sức khỏe tổng hợp được thực hiện dựa trên số cuối của năm sinh, mỗi 2 năm số lần khám là từ khoảng 1 lần trở lên. Năm 2021 là năm khám sức khỏe dành cho những người sinh năm lẻ.

IV. Những bất lợi khi du học sinh không tham gia mua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 Hạn chế nhận những ưu đãi của bảo hiểm. Du học sinh sẽ không được nhận những chế độ ưu đãi của bảo hiểm tại các cơ sở y tế, bệnh viện hay những phòng khám kể từ ngày 1 của tháng kế tiếp tháng phải nộp phí bảo hiểm, chế độ ưu đãi sẽ được cung cấp trở lại cho du học sinh khi du học sinh thực hiện đầy đủ việc thanh toán tiền bảo hiểm của tháng đó.

- Những hạn chế về visa. Du học sinh sẽ gặp nhiều những bất lợi khi đi gia hạn visa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 Một số những trường hợp ngoại lệ như trường hợp nộp phí bảo hiểm thiếu dưới 500,000won, chậm nộp các khoản phải đóng khác với số tiền dưới 100,000won thì du học sinh sẽ không gặp rắc rối trong việc gia hạn visa.

- Xử lý việc nộp chậm tiền phí bảo hiểm. Công ty bảo hiểm sẽ có thông báo cụ thể về kì hạn nộp tiền. Nếu đến kì hạn mà du học sinh vẫn chưa nộp phí bảo hiểm thì Công ty bảo hiểm có thể tiến hành những thủ tục cưỡng chế như tịch thu bất động sản, xe oto đứng tên du học sinh hoặc tiền gửi ngân hàng, vv

V. Những điểm khác biệt của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và bảo hiểm tư nhân

- Người đăng ký tham gia mua bảo hiểm sẽ được nhận những ưu đãi của bảo hiểm ngay từ khi hoàn thành việc đăng ký mua bảo hiểm.

- Không giới hạn số lần và số tiền đảm bảo, nhưng bản thân người mua bảo hiểm khi đi khám chữa bệnh sẽ phải tự chi trả một phần chi phí khám chữa bệnh.

- Hỗ trợ chi phí khám chữa bệnh, khám thai và sinh đẻ. Cung cấp sẽ sử dụng Voucher Card để có thể sử dụng khi mua những vật tư điều trị, thuốc được bác sỹ kê đơn và khi khám thai, sinh đẻ.

VI. Những thủ tục cần thiết khi đăng ký tham gia mua bảo hiểm

- Công ty bảo hiểm sẽ tự động gửi thông báo và xử lý việc đăng ký mua bảo hiểm dành cho du học sinh, do đó du học sinh không phải tự đi đăng ký mua bảo hiểm.

- Công ty bảo hiểm sẽ gửi bản hướng dẫn tham gia cũng như thẻ bảo hiểm y tế đến địa chỉ lưu trú của từng du học sinh tại Hàn quốc.

- Tuy nhiên, khi du học sinh là một trong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nêu dưới đây, du học sinh bắt buộc phải đến chi nhánh bảo hiểm gần nhất để làm thủ tục khai báo. (Đối với các khu vực như Seoul, Gyeonggi, Incheon, du học sinh khai báo với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nơi lưu trú)

① Trường hợp nộp phí bảo hiểm cùng với gia đình (Vợ/chồng và con cái)

② Trường hợp là kiều bào nước ngoài, sở hữu visa F-4 đang du học tại Hàn quốc

③ Trường hợp có những nội dung thay đổi liên quan đến thông tin cá nhân của du học sinh như địa chỉ nơi lưu trú, số hộ chiếu, tư cách lưu trú tại Hàn quốc, vv

Một chú ý quan trọng ở đây đó chính là theo điều 109 luật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chỉ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thẻ lưu trú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mới có thể tham gia mua bảo hiểm, mặc dù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nhập cảnh nhưng sẽ không được mua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cho đến khi đăng ký thẻ lưu trú người nước ngoài.

2021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1. 가입 대상자 : 유학생, 외국인 및 재외국민

2. 가입시기

국내 체류 유학생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은 3월부터 당연가입됩니다.

*체류자격 -일반 유학(D2), 초중고생(D-4-3): 최초 입국시->외국인등록일/외국인등록 후 재입국->재입국일

-초중고생(D-4-3)외 일반연수(D-4): 입국일부터 6개월 후 가입 가능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유학생: 입국 후 학교 입학일로 가입(재학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3. 보험료 부과

-2021년도 유학생 보험료는 43,490원(3월1일자로 취득자) / 4월 보험료는 39,540원 3개월 보험료의 10회 분할 중 1회분 3,950원

<중략.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Multilingual Guide about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er Victims of Crime

The Prosecutors' Office is working on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personal protec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during criminal proceedings.

Support for Damage Recovery

- Economic support**
If your family member dies or you are injured because of a crime and you are concerned about medical cost, living expenses, funeral expenses or school expenses, you may apply for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Prosecutors' Office.
- Psychological healing support**
A professional counselor will consult with you to help you overcome the aftermath of crime.
- Housing support**
If you find it difficult to continue to live in your current house due to crime damages, you can get help to rent a house at a cheaper rate and start a new life.

Support for Personal Protection

- Smartwatch (Location Tracker)**
If you are afraid of retaliation, apply for a smartwatch at the Prosecutors' Office. In case of an emergency, you can press the 'SOS' button on the smartwatch so that 112 reports will be automatically received and police officers will be dispatched immediately.
- Provision of shelter and relocation cost for Victims**
If you feel unsafe at your present house due to crime injury, you may stay at a housing facility provided by the Prosecutors' Office free of charg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f you move into a new location by yourself, your moving expenses will be paid.
- Personal protective measures (accompanying to the court)**
If you have any fear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t the Prosecutors' Office or while going to the court, a Prosecutors' staff will accompany you safely.

Protection of victims during criminal proceedings

- Court-appointed attorney for victims**
If a victim of sexual violence and child abuse crimes does not have a lawyer, the prosecutor will assign a lawyer for the victim.

'A Comprehensive Guide to Legal Rights of and Support for Foreigner Crime Victims' (in 16 languages)

This guide has been translated into 16 languages and distributed to local Korean Prosecutors' Offices, embassies of different countries, Support Center for Crime Victim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Foreigner Support Centers.

- Court statement assistant**
If a victim of sexual assault or child abuse has communication difficulties, an assistant can help with court statement.
- Accompanying of interpreters and trusted people**
There is no need to worry if the victim is not good at speaking Korean when giving statement to an investigative agency or to the court. An interpreter, family members, friends, lawyers, etc. can stay with the victim for psychological stability of the victim and for a smooth communication.
- Statement of opinion of crime victims**
Victims of crime have the right to state their opinion against the offender in a criminal trial.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er victims of crime

- Exemption from reporting oblig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If you are a victim of crime, you should report to the police or the Prosecutors' Office even if your period of sojourn has ended.
In case of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rape, robbery or fraud, the investigating agency will not notify the immigration office of the victim's details.
- Permission to extend the period of stay**
There is no need to worry if you are left with a short period of stay.
If an investigation, trial, or a process of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is in progress for crimes such as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or child abuse, the victim may apply for an extension of stay until the process ends.
Once your extended period of stay is over, you can obtain an additional permission to extend it if more time is needed for damage recovery.
- 'Third Party Interpretation System' Service**
If you need help for criminal damages, call the Prosecutors' Victim Support Service (☎1577-2584)
The Prosecutors' Victim Support Service provides a "Third Party Interpretation System" service for foreigner crime victims.
※ Service Hours (on weekdays 9am ~ 6pm)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다국어 안내

검찰청은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 제도, 신변 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 경제적 지원 제도**
범죄피해로 인해 가족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어 치료비와 생계비·장례비·학비가 걱정된다면 검찰청에 경제적 지원을 신청해 주세요.
- 심리치유지원 제도**
범죄피해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 주거지원 제도**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주택을 저렴하게 빌려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신변보호를 위한 지원

- 스마트워치(위치확인장치)**
보복이 두렵다면 검찰청에 스마트워치를 신청하세요. 워치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가 자동 접수되어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합니다.
-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전비 지원**
범죄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기 불안하다면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무료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며, 새로운 곳으로 직접 이사한 경우 이사비용을 드립니다.
- 신변보호조치(법정동행)**
검찰청에서 조사받거나 법정에 갈 때 무섭다면, 검찰 직원이 안전하게 동행해 드립니다.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外国籍犯罪受害者 保护·支援制度多国语指南

检察院针对外国籍的犯罪受害者提供经济支援、人身保护, 在刑事程序上正在为保护受害者做出努力。

支援被害恢复

- 经济支援制度**
因遭受犯罪侵害而家人死亡或本人受伤, 加重治疗费、生计费、葬礼费、学费等经济负担时, 可以向检察院申请经济支援。
- 心理治愈支援制度**
专业咨询师为您提供咨询, 帮助您克服因受到犯罪侵害所产生的后遗症。
- 支援住处制度**
因犯罪受害难以在原有的居住地生活时, 帮助您以低廉的价格租房, 重建家园。

支援受害者人身保护

- 智能手表 (识别定位的装置)**
如果担心会受到报复, 请向检察院申请智能手表。发生紧急情况时, 按下智能手表的 'SOS' 按钮, 112报警自动受理, 警察会迅速出动。
- 支援受害者保护设施及搬迁费**
如果因犯罪受害在家生活感觉不安时, 可以在检察院所提供的住宅设施内免费安全地度过一段时间。如果直接搬到新的地方时, 会支付搬迁费用。
- 人身保护措施 (法庭同行)**
如果在检察机关接受调查或访问法院时感到不安, 检察机关职员会提供伴随服务。

刑事程序上的受害者保护

- 受害者国选律师制度**
遭受性暴力者与儿童虐待犯罪受害者若没有律师, 检察官可以为受害者指派国选律师。

'关于遭受犯罪侵害外国人的权利及支援制度指南' (16种语言)

本指南书译成十六种语言, 已分发到全国各地检察院, 各国大使馆, 犯罪受害者支援中心、多元文化家庭支援中心以及外国人支援中心等, 敬请参考。

- 陈述助手**
遭受性暴力者与儿童虐待犯罪受害者若在沟通上存在困难, 陈述助手可以为受害者提供帮助。
- 译员与可信赖的人同席制度**
在侦查机关或法庭进行陈述时, 不用因为韩语不流利感到担心。为了保障受害者心理稳定和顺畅的沟通, 可以与翻译人员、家人、朋友、律师等一起进行陈述。
- 犯罪受害者的意见陈述制度**
在对加害者的刑事审判中, 犯罪受害者有权陈述意见。

针对外国籍受害者的保护·支援制度

- 个人信息通报义务的免除制度**
即使没有滞留资格, 如果您遭受了犯罪侵害, 请向警察局或检察院报案。
如果遭受杀人、伤害、强奸、抢劫、诈骗等犯罪侵害, 侦查机关不会向出入境管理所等处通报犯罪受害者的个人信息。
- 滞留期限延长许可制度**
即使滞留期所剩不多, 也不要担心。
在性暴力·家庭暴力·儿童虐待受害案件的侦查·审判或权利救济过程中, 受害者可以申请滞留期限的延长, 直至该程序结束为止。
即使滞留延长长期满, 若被认为因恢复等理由由受害者需要额外时间, 受害者可以获得滞留期限的延长许可。
- '三方翻译系统'服务**
若因犯罪受害需要帮助, 请拨打检察院的受害者支援电话 (☎1577-2584)。
检察院受害者支援室为外国籍受害者提供 '三方翻译系统' 服务, 并提供实时咨询。
※ 服务时间 (平日 09:00~18:00)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16개 언어)

16개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서를 제작하여 전국 검찰청 외 각 국 대사관, 범죄피해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술조력인**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도와줄 수 있어요.
- 통역인 및 심판관이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한국어가 서툴더라도 걱정 마세요.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 가족, 친구, 변호사 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어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 신상정보 통보의무 면제 제도**
체류자격이 없어도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신고를 하세요.
살인, 상해, 강간, 강도, 사기 등의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출입국관리소 등에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통보 하지 않아요.
-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제도**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사건의 수사·재판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피해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자 통역 시스템' 서비스**
범죄피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 피해자 지원콜 (☎1577-2584)으로 전화 주세요.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3자 통역 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요.
※ 이용시간(평일 09:00~18:00)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 동아리 모집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도 지원 가능



2021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취창업 여성 동아리 모집

- 모집 대상: 취업, 창업, 창업준비생태를 목적으로 구성된 7명 이상의 여성 동아리(과거에 운영된 동아리 제외) ※ 상세 모집공고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모집 분야: 관사형, 기술숙련형, (공정)창업형
- 지원 내용: 취·창업지원, 전문가 멘토링 및 역량강화 교육비, 실습재료비, 활동조달 지원 컨설팅, 활동처 연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동아리 홍보물 제작, 학습공간제공
- 사업설명회: 2021년 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 코로나19 상황에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 접수
- 접수 기간: 2021년 2월 22일(월) ~ 3월 5일(금) 오후 6시
- 문의: 031-912-8555(내선), 다문화사업 담당자

www.kycenter.or.kr 031.912.8555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유혜림)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2021년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성 취·창업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양시가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은 직업교육훈련 이수 후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습동아리를 선정해 실전경험은 물론 전문성 배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67개의 동아리가 그동안 고

양시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디딤돌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강사형 동아리’에게 비대면 온라인 강의경험을 위한 온라인강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 지역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등의 기관에 온라인 강사를 배출한 것을 비롯해, ‘창업형 동아리’에서 창업한 3개 스타트업은 창업 멘토링과 전문가컨설팅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사업환경을 탄탄히 유지하고 있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에서는 ▲강사형 ▲창업형 ▲기술숙련형 등 3개 분야를 모집한다. 고양시에 거주 중인 여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1년간 심화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실습재료비, 학습공간, 실전 경험의 장, 동아리 홍보 등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3월 5일(금) 오후 6시까지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www.ky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 받아 이메일로 지원하면 된다. 문의 031-912-8555 이지은 기자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102. 티끌 모아 태산

대화-시장에서



안진숙

은숙 : 메이 씨, 요즘 아기 키우느라고 힘들지?
 메이 : 조이랑 남편이 도와 줘서 힘들지 않아요.
 민정 : 동생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참 좋겠어.
 은숙 : 조이가 한국에 온 지 1년 넘었지?
 민정 :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 줄까?
 메이 : 어머, 아직 학생이잖아요. 공부에 욕심이 많아서 모르겠어요. 하하.
 은숙 : 하긴 요즘은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니까 좀 늦게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메이 : 오늘 뭐 사실 거예요? 저는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민정 : 나는 오늘 시금치랑 콩나물 좀 사서 나물 무침을 만들려고 해.
 메이 : 그건 동네 슈퍼에도 팔고 있던데 여기까지 사러 오셨어요?
 민정 : 마트보다 여기가 싸고 물건이 더 좋아.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하니깐
 은숙 : 민정 씨는 진짜 알뜰한 것 같아. 장을 볼 때도 미리 계획해서 딱 필요한 것만 사.
 메이 : 맞아요. 집에 가 보면 정말 살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민정 : 엄마한테 배워서 그래. 우리 엄마가 늘 절약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나도 습관이 되어서 그래.
 메이 : 저도 올해부터는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해서 돈을 좀 모을 계획이에요.
 은숙 : 요즘 재테크나 살림 노하우들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까 따라 하면 돼.
 민정 : 메이 씨에게 앞으로 내가 좋은 정보 가르쳐 줄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아끼고 모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메이 : 그럼 오늘부터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세요. 저도 올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숙 : 그럼 오늘은 알뜰 쇼핑부터 시작하고 내일은 중고 제품 판매도 알려 줄게.

해설

오늘 대화에 나온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표현은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크게 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 작은 것부터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이 있다면 나중에 큰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습관과 실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조금씩 쌓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된다는 말
 ■ 그 친구는 늘 작은 것 하나도 아끼더니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결국 큰 집을 사게 되었어.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성실히 하고, 좋은 정보나 노하우도 많이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되세요.

한국문화 -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특수목적 상품권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해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에 판매된다. 1인당 한달에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다문화도서 **www.bookhg.com** 국내최대 매장확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서적을 만나보세요!

- 도서납품(외국도서, 국내도서)
- 교과서납품(전 세계국가, 국내)
- 다문화전자책 납품 국내유일
- 비도서(DVD, CD, 잡지) 납품(전세계)
- MARC DATA 구축, 장비, 태깅, 배가작업

경기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2동 403호
 전화 : 032-325-4755 팩스 : 032-325-4772
 E-mail : hope6401@hanmail.net Website : www.bookhg.com



**윤화섭 시장 안산 방문
아르헨티나 대사 접견**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2월 22일 시장 집무실에서 자국 선수 격려를 위해 시를 방문한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를 만나 환담했다. 안산 그리너스FC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명문 보카주니어스 유스 팀 출신의 공격수 산티아고 선수를 1년 계약으로 영입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신장 192cm의 공격수인 산티아고 선수는 큰 키에도 우수한 드리블과 스피드, 순발력 등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바스쿠 대사는 산티아고 선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하며 안산 그리너스FC의 선전을 기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산티아고 선수 영입을 시작으로 축구 강국 아르헨티나와 축구 교류 등을 추진해 안산 그리너스FC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지난 2월 2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중심으로 한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외 저명인사 및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30여 명이 안산국제거리극 축제를 중심으로 시 문화예술 발전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현주 안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의 제17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소개에 이어 김치호 한양대학교 교수의 ‘해외문화축제 및 언택트행사 사례 중심으로’, 정병모 경주대학교 교수의 ‘안산시 김홍도 관련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발표가 진행되며 안산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강화 및 향후 미래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모색했다.

또한 이번 포럼에는 디나라 케멜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 및 레반홍 베트남대사관 1등서기관, 코랄레스 바르보사 아르헨티나대사관 2등서기관 등이 참석해 각국의 대표축제를 소개하고 안산국

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 17회를 맞게 되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거둔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이번 포럼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05년부터 매년 5월 안산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 삼아 도시민의 일상과 삶터 이야기를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등 다양한 공연으로 풀어나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주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에 소방시설 무상보급

안산소방서, 화재 취약 다문화가정 선정

안산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지난 2월8일부터 2월16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은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협의 후 화재 취약 다문화가정을 선정해 세대별로 직접 방문해 소화기 전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교육도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로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예방.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초 소방시설이다.

김승남 안산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택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소방서는 올해도 화재취약계층 1,000여 가구(안산소방서 800가구, 안산시 25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주여성 취업, "함께 찾아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새일찾기’와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WiCi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 결여,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자존감을 향상하게 시키고 합리적 직업 선택과 이력서, 면접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스킬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수료자에게 지속적인 개별상담으로 구인정보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 연계, 새일여성인턴 우선지원, 경력컨설팅,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전개한다.

취업 자신감을 향상하는 기본과정 5일간(20h) 7회, 취업 준비를 강화하는 심화과정 3일간(12h) 11회, 결혼이민여성만을 위한 WiCi 4일간(15h) 4회 등 총 22회를 운영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여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료자에게는 이력서 사진과 수료증이 지급된다.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에게는 구직활동 2회 인정이 된다.

한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문의(031-439-2060)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노동자, 한글 노동법 교육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교육 및 체험 진행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화섭)는 한국다문화협의회 강의실에서 지난 2월 21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글·노동법 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관계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어 기초에 대한 첫 수업과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보호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교육 일정은 5월까지 '1기 한국어 기초반', 6~8월 '2기 한국어 심화반', 9~11월 '3기 외국인 한국어 자격증반'으로 진행되며, 5·8월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특강도 1회씩 실시된다.

교육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3~5시이며, 하반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활동도 계획돼

있다.

한국어교육은 한국다문화협의회 최연하 강사가 맡으며, 안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김노원 노무사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특강을 진행한다. 다양한 사례와 접목해 이해하기 쉬운 인권보호 교육과 함께 노무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다문화협의회(031-475-2405)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 박상목 사무장은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글교육과 노동법교육 및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한국문화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으로 미래 준비

안산다가, 3월부터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을 맞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취업교육은 한국어능력 중급수준의 취업희망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1인 미디어 양성과정, 제빵 자격과정, 컴퓨터 취득과정, 바리스타 취득과정, 한국어능력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인 미디어 양성과정'은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센터 컴퓨터실서 운영된다. 유튜브의 이해 및 촬영 편집 교육이다. '제빵 자격과정'은 3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9회 진행된다. 매주 수·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센터 요리교실에서 제빵기능사 필기 및 실기 과정이 운영된다.

'컴퓨터 취득과정'은 3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24회 진행되며 매주 수·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센터 컴퓨터실과 온라인으로 병행되며 ITQ한글자격증

취득과정이다. '바리스타 취득과정'은 3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24회 진행된다. 센터 다가온 조리실서 진행되며 바리스타 2급 과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3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30회 운영된다. 매주 월·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되며 실전모의고사 및 시험대비반이다. 모든 교육은 각 과정당 결혼이민자 10명씩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031-599-1703) 및 방문접수한다.

한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다문화가정 멘토멘티 학습지도'에 참여할 다문화가정 자녀도 모집한다. 온라인교육으로 초·5.6학년, 중·고등학생 15명 대상이며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연세대학교 대학생 멘토가 국어, 수학, 영어 등 학습지도를 해주며 주 1회 온라인학습으로 진행된다. 3월 5일까지 선착순 접수(031-599-1703)한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대상 : 한국어능력 중급수준의 취업 희망 결혼이민자
신청 : 전화, 방문접수
문의 : 031-599-1703



[1인미디어 양성과정]

일시 2021.3.8~6.30
매주 월 10:00~14:00
대상 결혼이민자 10명
장소 센터 컴퓨터실
내용 유튜브의 이해 및 촬영 편집교육



[제빵 자격과정]

일시 2021.3.12~6.30 총 29회
매주 수,금 9:00~13:00
대상 결혼이민자 10명
장소 센터 요리교실
내용 제빵기능사 필기 및 실기과정
접수비 및 재료비 1인 50,000원

[바리스타 취득과정]

일시 2021.3.8~6.2 총 24회
매주 월,수 10:00~13:00
대상 결혼이민자 10명
장소 4층 다가온 조리실
내용 바리스타2급과정(민간)
접수비 및 재료비 1인 100,000원



[컴퓨터 취득과정]

일시 2021.3.10~6.4 총 24회
매주 수,금 9:30~12:30
대상 결혼이민자 10명
장소 센터 컴퓨터실, 온라인병행
내용 ITQ한글자격증 취득과정
접수비 1인 30,000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시 2021.3.22~7.7 총 30회
매주 월,수 13:00~16:00
대상 결혼이민자 15명
장소 온라인교육(웹엑스)
내용 실전모의고사, 시험대비
제77회 2021.7.7 시험대비반

2021

다문화가정 멘토멘티 학습지도

일시 : 2021.3.15~11.30(1차 3~5월 주1회 12회)
추후연장가능
장소 : 온라인교육
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초5~6학년,중고등학생)15명
내용 : 연세대학교 대학생 멘토 국어,수학,영어 등 학습지도
주1회 온라인학습(요일,시간은 멘토와 멘티협의)
접수 : 2021년 3월5일까지(선착순)
문의 : 031-599-1703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Тофу-тансу / 두부탕수



이야지난 아이다

Главным героем сегодняшней статьи стал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родукт,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тофу “두부”.

Тофу - это измельчённые, отварные и спрессованные соевые отростки. Сам по себе тофу абсолютно безвкусный, но есть очень много интересных идей для е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Сегодня я поделюсь с Вами одним из этих рецептов,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тофу тансу “두부탕수”.

Думаю что, после серий статей про тофу этот продукт станет частым гостем в вашем холодильнике.

Ингредиенты:

- тофу - 500гр
- мука сладкого риса - 1 стакан
- репчатый лук - 1/2
- чёрный гриб - 5 шт
- стручковый перец - 2 шт
- имбирь - 3 гр
- чеснок - 1 зуб
- ананас - 1/4
- Соус тансу:
- соевый соус - 2 ст.ложки
- уксус - 3 ст.ложки
- сахар - 2 ст.ложки
- вода - 1/3 стакана
- кукурузный сироп - 3 ст.ложки
- вода - 2 ст.ложки
- картофельный крахмал - 1 ст.ложка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

Нарезать тофу крупными кубиками, посолить и поперчить.

Тофу обмакнуть в муку клейкого риса и обжарить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масла

Средними кусочками нарезать лук, перец, имбирь, чеснок, грибы и ананас.

В ёмкость добавить немного масла и выложить имбирь, чеснок и лук. Помешивая жарить 1 минуту.

Добавить соус и варить до закипания.

После закипания добавляем грибы, перец и ананас. Варить 2 минуты.

Спустя 2 минуты добавить крахмал с водой и помешивая варить 30 секунд.

Полейте готовым соусом тофу и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오늘은 두부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두부는 건강에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별히 맛을 느낄 수 없고 일부 외국인들에게는 비선호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두부를 좀 더 맛있게 먹어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레시피입니다.

한국식 중국요리, 일명 중국집에서 탕수육이라는 음식을 다들 한 번씩 드셔 보셨죠?

탕수육의 고기가 수행하는 역할을 두부로 바꿔 보면 새롭고 또 맛있는 두부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부의 고소한 맛을 많이 느낄 수 없어서 그동안 두부를 피하곤 했는데, 이제 두부탕수요리로 한 번 멋지고 맛있고, 먹는 재미도 있는 식사를 만들어 볼까요?



เด็กที่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พวกเขาเป็นใคร?

중도입국자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หลายคนที่เคยได้ยินเกี่ยวกับการแต่งงา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านฮวา คางจอง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มันไม่คุ้นเคยกับคำว่าเยาวชนระดับกลางหรือไม่? ผู้ย้ายถิ่นฐานที่แต่งงานใหม่กับคู่สมรสชาวเกาหลี และ นำบุตรจากการแต่งงานครั้งแรกมายังเกาหลี และ บุตรที่แต่งงาน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ที่เติบโตใน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ของพ่อแม่ และ กลับเข้าเกาหลีเมื่ออายุเข้าเรียนในหลายกรณีกล่าวถึงเยาวชนที่มีรายได้ปานกลาง เช่นเมื่อผู้แปรพักตร์ชาวเกาหลีเหนือหญิง หรือ ชายที่นำเด็กที่เกิดในประเทศที่3 ระหว่างคู่สมรส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ขณะนี้อายุของเยาวชนที่เข้าสู่เกาหลีลดลงพวกเขาจึงถูกเรียกว่าเด็กที่มีรายได้ปานกลางมากกว่าเยาวชนที่มีรายได้ปานกลาง

เด็กที่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อย่างชัดเจนจากเด็กที่มา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ซึ่งเป็นที่รู้จักกันทั่วไปโดยทั่วไปแล้วเด็กที่มา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ที่เกิดในเกาหลีจะคิดว่าพวกเขาเป็นชาวเกาหลี เพื่อนเหล่านี้เกิดที่เกาหลีพูด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ะมี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เกาหลี

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ในกรณีของเด็กที่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พวกเขามักจะมีสัญชาติของประเทศที่เกิดไม่ใช่คนเกาหลีจากนั้นจะ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ผ่านการทดสอบการโอนสัญชาติ ดังนั้น 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ประเทศที่ฉันเกิดและเติบโตจึงค่อนข้างใหญ่กว่าเกาหลี ดังนั้นภาษา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ชีวิตของเกาหลีจึงน่าอึดอั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เด็กส่วนใหญ่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ด้วยความตั้งใจที่จะไปตั้งรกรากในเกาห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พวกเขามักรู้สึกถูกละเลยปฏิบัติ และ แยกแยกเนื่องจากบุคลิกที่แปลกใหม่และ ภาษาเกาหลีที่น่าอึดอัด

ถึงแม้ว่าพวกเขามีตัวตนเหมือนเกาหลี แต่พวกเขาจะถือว่าเ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เพราะการออกเสียงและ สำเนียงในภาษาไม่ดีของพวกเขา ยิ่งไปกว่านั้นพวกเขายังพบกับ การเลือกปฏิบัติในช่วงอายุก่อนที่จะมีการสร้างตัวตนและพวกเขารู้สึกสับสนและกังวลเกี่ยวกับตัวตนของพวกเขา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รู้สึกแปลกแยกที่พวกเขาไม่ได้อยู่ที่ใดฉันทำเช่นเดียวกัน

ก่อนมาเกาหลีฉันมีบุคลิกที่กระตือรือร้นไม่มีมิตรภาพที่ดีและมีความสนใจในการเรียน แต่หลังจากเข้าโรงเรียนเกาหลีฉันก็มีอารมณ์ไม่มั่นคง ความมั่นใจของฉันต่ำ และ ฉันพูดภาษาเกาหลีไม่ได้ ดังนั้น ฉันจึงไม่สามารถพูดถึงการทำผิด หรือ ถูกแกล้งได้ ฉันกลัวที่จะพูดต่อหน้าคนอื่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การขาดการเรียนรู้ที่เกิดจากการไม่สามารถปรับตัวให้เข้ากับชีวิตในโรงเรียนได้สะสม และ ส่งผลกระทบต่อแม้กระทั่งในส่วนของอารมณ์

ดังนั้น ในฐานะผู้ที่ประสบการณเติบโตขึ้นหลังจากเข้ามาในเกาหลีฉันคิดว่าคว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พิจารณาทางสังคม และ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ด้านสวัสดิการเพื่อให้เด็ก ๆ ที่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สามารถปรับตัว และ ใช้ชีวิตในเกาหลีได้เป็นอย่างดี จนถึงตอนนี้ฉันต้องดิ้นรนอย่างมากเพราะเรื่องภาษาในขณะ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ในฐานะเด็กที่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ดังนั้น ฉันหวังว่าโรงเรียนเตรียมอุดมศึกษาที่เด็ก ๆ สามารถเรีย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จัดตั้งขึ้นในทุกภูมิภาคและควรจ้างครูสองภาษาให้มากขึ้น

สังคมเกาหลีไม่ควรละทิ้งอดีตและอคติต่อเด็กที่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ะถือว่าพวกเขาเป็นเป้าหมายที่นำเสนอเพื่อช่วยเหลือพวกเขา แต่ควรใช้เป็น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พัฒนาไปสู่สังคมที่มีวุฒิภาวะมากขึ้นผ่านเด็กเหล่านี้ ยังไม่มีความชัดเจนว่าพวกเขาจะมีบทบาทอย่างไรในเกาหลีในอนาคตและจะช่วยเหลืออย่างไร มันจะเป็นทรัพยากรทางสังคมที่ช่วยได้มากสำหรับ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ราหากเราช่วยเด็ก ๆ ที่เข้ามาในวันออกกลางเพื่อสร้างอัตลักษณ์ของชาวเกาหลีและรักษาเอกลักษณ์ของประเทศที่พวกเขาเกิดและเติบโต

<한글 기사 14면>

이야리 기자

Информация 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ременную сезонную работ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Корее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취업 가능



Из-за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короной 19 резко сократилось число прибывающих в страну как туристов так и рабочих. Это напрямую отразилось на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А именно ощущается острая нехватка рабочих рук во время сезонных работ.

Поэт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иняло меры для желающих продлить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по визе иностранцев, желающих работать на сезонных работах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а также в отрасли рыболовств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я на временную сезонную работу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Корее”.

Из-за ситу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короной 19, затруднен въезд и выезд из страны. Иностранцы, работающие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рыболовстве, испытывают трудности при въезде в страну, а иностранцы, находящиеся в стране, даже если у них истекает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согласно статусу визы, из-за нехватки авиабилетов, не могут выехать на родину.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ступает в силу система разрешений на временную сезонную работу.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й иностранцам с визовым статусом: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H-2), а также проживающие вместе члены семьи;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занятость (E-9); визит для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F-1); сопровождение (F-3) позволяется работать в фермерских и рыбацких отраслях во время сезонных работ.

Кроме того, иностранцы с визовым статусом H-2, E-9 могут поменять статус на G-1, ч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более стабиль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стране, заявителям на статус G-1 в будущем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преимущества.

Если в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пожалуйста, ознакомьтесь со следующей информацией, чтобы подать заявку.

Период и метод подачи заявки:

(1)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3 февр. 21г. (Вт) ~ 28 февр. 22г. (пн)

-При наборе все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назначенном мест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приём заявок будет приостановлен.

(2) Метод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а, подайте заявку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1)Иностранцы со статусом F-3, F-1, H-2: Подайте заявку о желании на сезонную работу по фак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или заказным письмом в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Приложение 2)

2)Иностранцы со статусом E-9: Подайте заявку о желании на сезонную работу онлайн (www.eps.go.kr), посетите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по всей стране или подайте заявку по факсу или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в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находящиеся под юрисдикцией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риложение 3)

-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занятость (E-9) иностранцев направляют в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мест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3) Мест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оверка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заявителей → Организаци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фермы и рыболовство (заключение контрактов на иностранную рабочую силу с фермерами и рыбаками) →

после заключения трудового договора, обратитесь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 иностранный офис.

*Заявление в компетентные иммиграционный / иностранный офис можно подать за 30 дней до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начала сезонной работы.

1)Иностранцы со статусом F-3, F-1
-Заявление о разрешении заниматься друг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роме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2)Как иностранец, имеющий право на выездную работу (H-2) или 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гостях (F-1-11)

①Тем, кто продлевает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е заявл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на G-1 и разрешение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отличную от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②Для тех, кто находится в период отсрочки?

-Одновременное заявл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на G-1 и разрешение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отличную от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3)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E-9) как иностранец, получивший отсрочку на отъезд?

-Одновременное заявление об изменении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на G-1 и разрешение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отличную от статуса проживания.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과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든 탓에 한국의 외국인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과 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농어촌에 크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법무부)는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자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과 어업에서 계절(임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 취업 허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업 분야에서 근무할 해외 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을 허가하는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이번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외국인주민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절차:

(1)신청기간: 2021. 3. 2.(화)~2022. 2. 28.(월)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2)신청방법: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1)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외국인 :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에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

2)비전문취업(E-9) 외국인 : 온라인(www.eps.go.kr),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이메일로 신청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알선

(3)지자체 신청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 농가 및 어가에 구직 알선(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대리 신청

-계절근로 시작 예정 30일 전부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청 가능

1)동반(F-3) 및 방문동거(F-1)자격 외국인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2)방문취업(H-2), 방문동거(F-1-11)자격 외국인으로서

①‘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중인 자
-체류자격 변경(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②‘출국기한 유예’ 중인 자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3)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으로서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미얀마 민주화운동 국제연대 강화 토론회

고영인 의원, 이원욱 박영순 의원과 공동 주최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과 이원욱 의원, 박영순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시 찾아온 ‘미얀마의 위기’: 대한민국,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과 연대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영인 의원은 다문화위원장으로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원욱, 박영순 의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와 함께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박사명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미얀마의 현 상황을 구조적 배경으로 설명한 성공회대 정치학과 박은홍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얀마 국내 전문가인 사이버한국외대 장준영 교수, 버마NLD 한국지부 안나잉툰 회장, 미얀마 묘혜인 유학생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일반시민들은 고영인TV(유튜브)를 통해 참석할 수 있었다.

고영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도 박정화전

두환이라는 두 번의 쿠데타를 경험했지만,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존재한다. 우리의 경험을 살려 미얀마를 향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조적 배경으로 미얀마의 현 상황을 설명한 대표 발제자 박은홍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경험은 중요하다. 미얀마는 자유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유에 대한 경험은 결국, 미얀마를 민주주의로 이끌 것이다.”라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응원했다.

토론은 미얀마 쿠데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가 끝난 후, 토론회에 참석했던 성공회대 학생모임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를 주축으로 국내 거주 중인 미얀마인, 미얀마 전문가들이 모여 미얀마 군부 세력을 규탄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의 기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차상위·한부모가정까지 지원 확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올해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2단계로 상향되어 기존 1단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까지 포함됐다.

지원 대상 학생은 만 29세 이하이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필수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자녀) 1인 이상이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함께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50%(학기당 100만원 한도)이며, 안산시청 홈페이지(www.ansan.go.kr)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ansanfys.or.kr)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대학생 등록금 반값지원 등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산시민 모두가 빛나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근로자 수급 부족 해결” 외국인 고용법개정안 대표발의

김남국 국회의원, 반월시화공단과 대부동 등 외국인근로자 인력 부족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월 19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9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약 5만 1천여 개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조업과 농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3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입국이 중단되어 지난해 도입 인원은 총

6,688명으로 2019년 대비 44,67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 감소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7월 29일 발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86.9%의 기업이 입국 지연으로 인해 연내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농축어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9400명을 배정하기로 계획했지만, 실제 입국한 인력은 1,384명으로 14%에 수준에 불과해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일시적 대책으로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 체류 방문동거(F-1) 외국인과 취업 기간이 끝난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에게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으로 223명

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농축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공단과 대부동 농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승원, 민형배, 윤건영, 이규민, 이용우, 장경태, 최강욱,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영의 기자

모국 정체성 더 큰 중도입국청소년, 차별과 소외감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유지성

경기다문화뉴스는 이번호부터 중도입국 청소년 유지성 씨의 글을 연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온 유지성 씨는 올해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유 씨의 글은 한국에 온 많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을 위해 일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이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정책을 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집 자주.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이란 말은 생소하지 않을까.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이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탈북여성 또는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등 중도입국청소년을 일

컸는 경우는 많다. 지금은 한국에 입국하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중도입국청소년보다 중도입국자녀로 불리는 추세이다.

중도입국자녀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국내 출생 다문화가정 자녀는 본인이 한국인이라 생각한다.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를 쓰며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도입국자녀의 경우엔 한국 국적이 아닌 출생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귀화시험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인이 나고 자랐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더 커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생활이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렇지만 중도입국자녀들은 한국에 정착할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국적인 외모와 어색한 한국어 때문에 차별과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도 어눌한 발음 때문에 외국인으로 취급받는다. 더군다나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의 나이에 차별을 경험하고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소외감으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과 불안을 느낀다. 필자도 그랬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활발한 성격에 교우관계도 좋고 학업에도 흥미가 있었는데 한국 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한국어를 못하니까 실수하거나 놀림을 당할까 봐 말수도 적어졌다.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특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학습 결손이 쌓여서 정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에 중도입국해 성장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와 복지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중도입국자녀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언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예비학교가 모든 지역에 설립되기를 바라고 이중언어교사의 채용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이들을 도와야 할 불쌍한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해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고 자란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운다면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사회적 자원이 될 것이다. <중국어 36면, 베트남어 26면, 러시아어 16면, 인도네시아어 하단, 태국어 10면, 일본어 34면>

<다음호에 계속>

Pentingnya mendukung pemuda-pemudi imigran(중도입국자녀) agar dapat beradaptasi di Korea

Berita Multikultural Gyeonggi(경기다문화뉴스) akan mulai menerbitkan laporan Yoo Ji-sung Putri dari edisi ini. Ia adalah anak dari pernikahan internasional Korea-Indonesia yang lahir dan dibesarkan di Indonesia dan memutuskan migrasi ke Korea pada umur 13thn. Yoo Ji-sung Putri yang datang ke Korea saat kelas 6 SD, tahun ini baru lulus dari SMA(외국어고등학교) dan masuk ke Universitas Yonsei. Saya berharap laporan Yoo Ji-sung Putri akan sangat membantu banyak kaum pemuda-pemudi migran(중도입국자녀) menjalani kehidupan di Korea dengan sukses. Selain itu laporan ini dapat membantu organisasi masyarakat sipil dan kelompok publik yang bekerja untuk penduduk asing mempromosikan kebijakan yang berkaitan dengan pemuda-pemudi imigran(중도입국자녀) secara berkesinambungan. Komentar editorial.

Banyak yang pernah mendengar tentang pernikahan internasional(국제결혼) dan keluarga multikultural(다문화가정). Namun, apakah tidak asing dengan kata 중도입국청소년 adalah pemuda-pemudi yang dilahirkan di negara selain Korea yang ingin menetap di Korea dan mengganti kewarganegaraannya untuk menjadi orang Korea. Ada juga contoh lain 중도입국청소년. Contoh yang pertama, perkawinan imigran yang menikah kedua kalinya dan membawa anak dari

pernikahan sebelumnya ke Korea. Kedua, anak dari pernikahan internasional yang dibesarkan di negara asal orangtua mereka dan masuk kembali ke Korea pada usia sekolah. Ketiga, wanita atau laki-laki Korea Utara yang minta suaka ke Korea(Selatan) dengan anak yang dikaruniai dengan pasangan negara ketiga selain Kor-sel dan Kor-ut. Keempat, TKA membawa anaknya dari negara asalnya setelah melewati jangka waktu tertentu. Contoh-contoh semua yang disebut diatas dinamakan 중도입국자녀 atau 중도입국청소년. Sekarang seiring dengan usia anak imigran yang masuk semakin muda, lebih sering disebut 중도입국자녀(anak imigran) daripada 중도입국청소년(remaja imigran).

중도입국자녀 memiliki perbedaan yang jelas dengan 다문화가정자녀(anak dari keluarga multikultural) yang umumnya dikenal. Secara umum, anak-anak dari keluarga multicultural yang lahir menggunakan bahasa Korea. Oleh karena itu mereka mempunyai identitas negara kalahirannya yaitu Korea.

Berbeda dengan 중도입국자녀 yang memiliki kewarganegaraan nagara kalahirannya, bukan Korea, dan kemudian mendapati kewarganegaraan Korea melalui tes naturalisasi. Oleh karena itu identitas negara tempat 중도입국자녀 dilahirkan dan dibesarkan relative lebih besar dari identitasnya sebagai orang

Korea. Sehingga bahasa, budaya, dan kehidupannya di Korea menjadi canggung dan tidak nyaman.

Namun sebagian besar 중도입국자녀 memiliki niat menetap di Korea. Meski demikian, mereka seringkali merasa di kucilkan dan doterpencilkan oleh karena penampilannya yang berbeda dari orang Korea pada umumnya dan bahasa Koreannya yang kurang fasih.

Meski memiliki identitas layaknya orang Korea, mereka diperlakukan sebagai orang asing karena logat atau lafal Koreannya yang kurang fasih. Selain itu, mereka sering mengalami diskriminasi pada usia remaja, dimana usia yang belum stabil, dan mereka merasa bingung dan cemas akan identitasnya karena adanya rasa keterasingan dan tidak diterima di kaum manapun. Saya juga pernah mengalami hal yang sama.

Sebelum datang ke Korea, saya memiliki kepribadian yang ceria, persahabat yang baik, dan minat untuk belajar tekun. Tetapi setelah memasuki sekolah di Korea, saya insecure dan rendah diri. Saya menjadi tidak percaya diri, karena tidak bias berbahasa Korea, dan saya jadi takut berbicara di depan banyak orang. Keengganan belajar yang disebabkan oleh ketidakmampuan menyesuaikan diri dengan kehidupan sekolah menumpuk dan mempengaruhi emosional saya. <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 아닌 노동권 인권보장 해야!

원미정 경기도의원,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지난 2월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닌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원 의원은 “외

국인노동자들의 현실은 지난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영하 20도의 한파에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캄보디아 외국인노동자의 사망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휴일도 없는 장시간 노동, 구타,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에 일부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처우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한 외국인노동자들은 미등록상태의 불법 체류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곳은 없어,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에서 구제 상담 및 통역 등 대리인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부당하게 불법 체류자가 된 미등록 외국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정

책과 고용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산업인력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관련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재난문자는 한국어로만 되어있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내용 파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특히 “주소나 거소의 관리가 어려운 미등록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코로나19 별도 검사소를 설치하여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영의 기자

어려운 외국인주민 쌀 10kg 20포 전달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주)광진종합물류로부터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랑의 쌀 10kg짜리 20포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단원구에 위치한 (주)광진종합물류는 해상, 항공, 보세운송, 보관, 통관 등 국제물류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종합물류 회사로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을 이웃 사랑의 날로 정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기탁받은 쌀은 관내 외국인 쉼터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선정해 배분될 예정이다.

김장원 대표이사는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http://www.ansanwomen.or.kr/ 고용노동부 지원

일하고 싶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준비 프로그램

WiCi 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

참여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F-5,F-6,귀화자)

교육일정(상반기) 1회만 참여 가능

기수	1기	2기
일정	3/15(월) ~ 3/18(목)	6/16(수) ~ 6/21(월)

※ 상기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 9:30~13:30(총15시간) **교육장소**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내 강의실

교육내용

기수	일정
1일차(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및 우리의 약속 취업사유 및 성공사례 취업과 나의 미래 모습
2일차(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흥미와 성격 탐색 취업준비 파악 및 일 연결 워크넷 활용하기 직업세계 이해하기
3일차(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과 나 나의 직업역량 확인하기 합리적으로 취업목표 결정하기 노동법
4일차(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기술 노하우 면접기술 노하우 직장생활 노하우 경력설계 노하우 <p>→ 중 택 1</p>

신청방법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내방 작성)
 (결혼비자F6-외국인등록증, F5/귀화자-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혜택 교육비, 교재비 전액 무료, 수료 후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이력서사진 8장 무료 촬영, 수료선물, 취업자선물 지급, 임시보육시설운영(24개월 이상) 실업급여수급자 2회 구직활동 인정 등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안산시청 건너편 KDB산업은행 3층)
 TEL 031-439-2060 FAX 031-439-2061 E-mail ansan2060@hanmail.net

http://www.ansanwomen.or.kr/ 고용노동부 지원

일하고 싶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준비 프로그램

WiCi Women Immigrant's Career Identity

WiCi是以提供一系列与就业有关的信息来帮助结婚移民女性在韩国社会成功就业的教育课程.

- 教育对象: 希望就业的所有结婚移民女性(F-5, F-6, 国籍取得者)
- 教育场所: 安山女性人力开发中心(安山市政府对面)
- 参加人员: 优先顺序15人
- 教育优惠事项: 教育费, 教材费全免费
结业后提供工作介绍及就业支援等服务, 免费照履历表照片
为结业者提供结业礼物, 就业者提供就业礼物
- 教育期间: 3/15~3/18, 6/16~6/21(只参加一次即可)
- 教育时间: 9:30~13:30
- 咨询电话: (031)439-2060 / 070-4924-9003

WiCi là chương trình giáo dục hỗ trợ để giúp cho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có thể tìm việc thành công trong xã hội Hàn Quốc với sự cung cấp những thông tin đa dạng liên quan đến việc làm.

- Đối tượng: tất cả Phụ Nữ Kết Hôn Di Trú có mong muốn tìm việc làm(visa F-5, F-6, người đã nhập tịch Hàn)
- Nơi giáo dục: Trung Tâm Phát Triển Nguồn Nhân Lực Phụ Nữ Thành Phố An-San(đối diện Ủy Ban Nhân Dân Thành Phố)
- Số người tham gia: 15 người theo thứ tự
- Ưu đãi: miễn phí toàn bộ phí giáo dục, phí mua tài liệu
Sau khi kết thúc khóa học sẽ được hỗ trợ chụp ảnh hồ sơ, hỗ trợ tìm việc một cách tích cực.
Sẽ có quà tặng, có phòng chơi cho trẻ (từ 24 tháng tuổi trở lên) dành cho người hoàn thành khóa học.
- Thời gian giáo dục: 3/15~3/18, 6/16~6/21 (mỗi năm được tham gia một lần)
- Giờ học: 9:30~13:30
- Tư vấn: (031)439-2060 / 070-4924-9003

WiCi is the educational program which supports foreign married immigrant women to train for work and succeed in finding jobs.

- Program target: All foreign married immigrant women who want to have careers in Korea.(visa type : F-5, F-6, person to get citizenship)
- Place : Ansan women resources development center.
- Benefit : Free for educational program & job training, including employment referrals & providing a nursery school(over 24 months), employment information, a resume photo and some gifts.
- Period : 3/15~3/18, 6/16~6/21(participation once a year)
- Time : 9.30-13.30
- Q&A : (031)439-2060 / 070-4924-9003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안산시청 건너편 KDB산업은행 3층)
 TEL 031-439-2060 FAX 031-439-2061 E-mail ansan2060@hanmail.net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는 지난 2월 9일부터 외국인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국가별 문화행사 지원사업 '설날맞이 한과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매년 국가별 공동체 회원들의 명절 행사 및 자조모임을 지원해왔으나, 코로나19로 여럿이 모여 함께하는 행사 및 모임이 자제되는 만큼 가족들과 떨어져 타국 생활을 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설맞이 한과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

외국인 주민들은 배부받은 전통한과 키트를 통해 한

과를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이를 센터 및 공동체 SNS에 게시해 11개국의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며 색다른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눔의 정을 느끼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발굴해 소통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 함께 정월대보름 행사 목감동지역사회보장협의, 건강꾸러미

목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덕인)는 지난 2월 24일 목감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정월대보름맞이 건강부럼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발굴자원 및 연계를 통해 그늘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민들과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남동(주)대생산업(대표이사 이관호)과 참소에 음식점에서 시흥시 1%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한 과일, 건강부럼(땅콩, 호두)과 수인중앙교회에서 후원한 라면 50박스를 5만원 상당의 꾸러미로 구성해 목감동 관내 50가정에 전달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회, 통장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다문화가정, 저소득노인 등 촘촘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아동도 추가 지원했다 건강부럼 꾸러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과 복지관계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해 만들었다. 이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꾸러미를 제작하면서 전통시장 물품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도 꾀했다. 박덕인 목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Ребенок, который родился и вырос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а затем приехал в данную страну, кто они? 중도입국자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Многие люди слышали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браках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ьях. Однако не ново ли обозначение « подростки,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и выросли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а затем приехали в данную страну».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которые повторно вступают в брак с корейским супругом(гой) и привозят детей от предыдущих браков в Корею;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которые растут в родных странах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и потом в 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въезжают в Корею; приехавшие дети 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родители, которых прожили определённы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в стране; рождённые в третьей стране дети из семьи один из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выходцем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т.д. Многие такие случаи относятся к понятию "подростки,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и выросли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а затем приехали в данную стран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зрастной показа

тель подростков, въезжающих в Корею,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ниже, и их больше называют детьми, чем подростками, заезжающие в страну. (Далее в статье- "дети, въезжающие в страну")

Дети, въезжающие в страну, однозначно отличаются от детей из обычных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целом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рождённые в Кореи, считают себя корейцами. Эти дети родились в Кореи, говорят по-корейски и имеют корейск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в случае с въезжающими в страну детьми, многие из них имеют гражданство страны в которой родились, а не корейское, а затем после сдачи экзамена получают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браз жизни в стране, в которой они родились и выросли относительно ближе им чем образ жизни в Кореи, поэтому язык, культура и жизнь в Кореи для них не п

ривычны и неудобны. Однако большинство детей, въезжающие в Корею имеют намерение в дальнейшем остаться и жить в Кореи. Тем не менее, они часто чувствуют себя дискриминированными и отчужденными из-за своей внешности и неуклюже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аже если у них корейск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с ними обращаются как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из-за плохого произношения. Более того, они сталкиваются с дискриминацией в возрасте до того как сформируются как личность, и из-за чувства отчуждения, а так же чувства того, что они не относятся к обществу, испытывают смуту и беспокойство. И автор тоже.

До приезда в Корею я была активной, у меня были хорошие отношения с друзьями и был интерес к учёбе, но посл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я стал эмоционально неустойчива. Я стала не уверенной в себе, из-за незнания я

зыка, я боялась что ошибусь или что меня будут дразнить, поэтому я стала менее разговорчива. Я боялась выступать перед другими. В частности, ухудшилась успеваемость в школе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я не смогла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школьной среде. И всё это накапливаясь повлияло даже на моё душевное состояние.

Поэтому, как человек с опытом прибытия в Корею уже взрослым, я считаю, что следует оказывать общественное внимание и социа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чтобы дети, въезжающие в страну, могли приспособи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жизни и 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в этой среде хорошо.

Автор до сих пор, живя в Кореи как прибывшая в страну уже взрослой, испытывает трудности из-за языка. Поэтому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школы, где дети... (한글 기사 14면) <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도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장울가 기자

Những thay đổi trong chế độ vi phạm luật xuất nhập cảnh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및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등



Trong năm mới 2021 này, chúng tôi xin gửi tới các bạn một số những quy định mới nhất của Bộ tư pháp mà chúng ta nên biết nhé!

Đầu tiên, chế độ nộp tiền phạt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vi phạm luật xuất nhập cảnh.

Không chỉ người nước ngoài khi lưu trú tại Hàn quốc mà ngay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ũng rất sợ khi nghe đến những từ như điều tra tội phạm, vi phạm luật hay nộp tiền phạt, v.v

Nhưng trong cuộc sống, nhiều khi chúng ta cũng không thể lường hết được những vấn đề đang xảy ra quanh chúng ta, nên cũng có những lúc chúng ta mắc sai lầm. Trong những truy định mới nhất mà Bộ Tư pháp ban hành, chế độ nộp tiền phạt do vi phạm luật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có một số những cải đổi nhất định. Theo như quy định cũ, tiền phạt chỉ có thể nộp bằng tiền mặt thì trong năm nay, người vi phạm có thể nộp phạt bằng thẻ tín dụng. Hiệu lực chính thức của quy định này sẽ được tính từ ngày 21/01/2021.

Trước kia, khi nhận được giấy nộp phạt, người vi phạm phải cầm giấy thông báo nộp phạt đó ra ngân hàng hoặc bưu điện để trực tiếp nộp thì nay, người vi phạm sẽ có thể nộp phạt thông qua mạng Internet, truy cập vào trang www.giro.or.kr, trang của hệ thống thanh toán tín dụng, sử dụng thẻ ngân hàng mang tên mình để nộp phạt.

Các bạn có thể truy cập vào trang web nói trên thông qua máy vi tính hoặc tải ứng dụng về điện thoại, sau khi đăng nhập hãy truy cập vào phần 국고

금, sau đó hãy nhập mã số của giấy thông báo nộp tiền phạt mà các bạn đang có vào phần 기금 및 기타 국고 và làm theo hướng dẫn.

Đối với việc nộp phạt thông qua thẻ tín dụng, tiền lệ phí khi thanh toán sẽ do người vi phạm thanh toán. Lệ phí sẽ vào 0.8% trong trường hợp nộp tiền phạt bằng thẻ tín dụng và 0.5% trong trường hợp nộp phạt bằng thẻ check.

Tiếp theo, đó chính là Chế độ nộp tiền bảo chứng đối với người nhận được lệnh yêu cầu về nước của Bộ Tư pháp.

Kể từ ngày 21/1/2021, người nước ngoài vi phạm luật và nhận được lệnh xuất cảnh của Bộ tư pháp sẽ phải nộp tiền bảo chứng tại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ùy thuộc vào hoàn cảnh cụ thể như độ nặng nhẹ của việc vi phạm, những nghi vấn về bỏ trốn hay những lý do mang tính nhân đạo mà số tiền bảo chứng tối đa mà người vi phạm phải nộp có thể lên đến 20 triệu won.

Khi nộp số tiền bảo chứng này,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không phải về những cơ sở bảo hộ người nước ngoài ngay sau khi nhận được lệnh xuất cảnh, mà họ có thêm thời gian để xử lý những việc còn dang dở.

Đến thời gian xuất cảnh theo như Bộ tư pháp quy định, nếu người vi phạm xuất cảnh đúng quy định, số tiền bảo chứng này sẽ được hoàn trả lại toàn bộ những nếu không thi hành thì một số hoặc toàn bộ số tiền đó sẽ bị đưa vào quốc khố của Hàn quốc.

Chúng ta hãy cùng tham gia đúng luật nhằm tạo lên một cộng đồng người nước ngoài văn hóa tại Hàn quốc nhé!

2021년 새해에 여러분에게 안내하고자 할 출입국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출입국사범 제도가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법 위반이나 범칙금 납부 등과 같은 말을 들으면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외국인주민들은 한국어를 잘 못해 가끔 실수를 하고 이 때문에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출입국사범 관련 규정 중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부 규정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었어

요.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현금 일시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이나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일시불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 서비스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 또는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지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국고금’ 부분에서 ‘기금 및 기타 국고’를 선택한 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할 수수료 전액은 납부자 본인이 부담하고 신용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는 0.8%, 체크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는 0.5% 추가로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안내할 내용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관련 제도입니다. 역시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되었어요.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 대하여 범법 사실, 도주 우려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출국명령을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납부한 외국인주민은 출국 명령서를 받고 바로 외국인 보호소에 가서 출국할 때까지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국에 앞서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법무부에서 정한 출국 기한 내에 외국인주민이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 명령시 부가된 조건, 예를 들어, 불법 취업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이 조건을 준수하고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 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의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그 잔액만 반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우리 모두 우수한 외국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다음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꿈을 찾는 공간 되도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군서미래국제학교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는 지난 2월 22일 시흥시에 위치한 군서미래국제학교를 방문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미래학교 설립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에 나섰다.

경기미래학교는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 공간과 교육과정을 담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가길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정책이다.

경기미래학교의 모델은 초중통합운영학교, 중고통합운영학교, 미래국제학교, 신나는학교, 생태숲 미래학교가 있다. 이 중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언어특성화 교육 중심

의 미래국제학교 모델로 올 3월 1일에 중학교(6학급)가 우선 개교하며 22년 3월에 초등학교(12학급), 23년 3월에 고등학교(6학급) 순차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날 3층 실내체육실에서 학교 현황을 보고 받고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증별 주요 시설을 둘러본 남종섭 위원장은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교육 또한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획일화된 공간구성과 교육과정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적절히 담아낼 수 없다.”라며 “학생주도의 학습이 이뤄지며 학생들이 꿈을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교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의 기자

考虑到目前新冠病毒的困难和状况,允许滞留 在国内的同胞和外国人从事暂时性季节性工作

访问同居签证,未出国的非专业就业外国人等参与季节性工作可给予多种优惠

法务部(长官朴范界)2月5日举行了由雇佣劳动部、农业食品部、海洋水产部等相关部门组成的2021年上半年季节性劳动者分配审查协议会,并分配了37个地方自治团体通过对各农户及渔民的需求调查申请的4631名季节性劳动者。

另外,为了解决农渔村因新冠病毒长期化的影响,外国人季节性劳动者很难重新进入韩国而面临严重困境的情况,法务部决定从3月2日开始实行允许滞留在国内或不能就业的外国人参与季节工作的“允许在国内滞留的外国人暂时从事季节性工作的制度”。

此次暂时性季节工作许可方案的对象是,原先不允许就业的访问同居(F-1)及陪同(F-3)的外国人和虽然停留时间已满,但因新冠病毒而不能出国的访问就业(H-2)同胞及其家属、非专门就业(E-9)资格的外国人等约7.9万多人。

从3月2日到明年3月31日,被选为地方自治团体的季节性劳动对象,并在出入境机关得到相关许可的外国人在农渔业领域的农作物和水产品行业,最长可以参加13个月的季节性劳动活动。

如果工作,不仅可以得到最低工资以上的工资,而且还可以义务加入产业灾害保险,如果愿意还可以提

供食宿。特别是对参加90天以上季节性劳动活动的访问就业(H-2)同胞,将大幅简化出国后再入境签证发放程序,提供方便。

今后因农渔村长期工作原因申请变更居留资格时,参加季节性劳动的时间也视为工作期间,免除有关季节性劳动活动的各种居留许可手续费。

对于非专门就业(E-9)的外国人,将给予多种优惠,包括以后为了再入境而参加韩国语能力考试的情况和以熟练技能的人力申请变更滞留资格时加分等。

由于此次实行暂时性季节性劳动许可方案,农水产品收获季节即将来临,因此农水产品很难及时找到人手,因此预计将大幅减轻面临困境的农渔民的负担。

同时,对于此次未能申请或需要追加申请的农渔民和地方自治团体,将于今年6月接受申请,并于7月初通过下半年季节性劳动者分配协议会迅速进行分配。

今后,法务部将与相关部门和地方自治团体积极合作,为使外国季节性劳动者能够及时进入因人力短缺而面临困境的农、渔村现场而提供支援。

<한글 기사 44면> <인터네트 네이버, 다음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왕그나 기자

시흥시, 첫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역 감염 확산 차단 기대 밝혀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2월 26일 우선권장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작으로, 3분기까지 전 시민 1차 접종을 완료한다. 첫 접종자는 시흥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장으로, 시흥시보건소에서 접종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예방 접종으로 올해 안에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10월 말까지 18세 이상 시흥시민의 70%인 30만여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2월 26일부터 3월까지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약 5천명이 접종할 예정이다. 2분기부터는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5만 2천여 명이 접종 대상이다. 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성인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교육, 보육 시설 종사자, 18세~64세 성인이 접종을 시작하며, 실질적인 전 시민 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접종방식은 백신의 특성과 도입 시기, 접종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보건소 내소 접종 ▲찾아가는 접종 ▲예방접종센터 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의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영의 기자

2021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 |
2021년 찾아가는 부모교육 가족문화프로그램 연계기관 모집
모집기간 2021.02.26(금) ~ 03.12(금)
접수방법 홈페이지 연계기관모집 파일 다운 후 [붙임]신청서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E-mail: dbwks79@shfc.kr
 fax) 031-318-7998.
모집대상 시흥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기관, 복지관 등 유관기관
진행내용 1. 찾아가는 부모교육프로그램 1회 진행
 2. 찾아가는 가족문화프로그램 1회 진행
진행기간 2021.04.01(목) ~ 2021.12.10(금)
 ☎문의전화: 농곡분관사업팀 T.031-432-799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모집연령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초등학교 재학중인 12세 이상 자녀 포함)
내 용 - 자녀의 언어 발달 수준이 급급한 부모님 (언어 평가만 진행)
 - 언어발달 교육을 희망하는 부모님 (언어 평가 후 교육 진행)
평가 및 교육 문의 031-319-7997 언어발달지도사 (사전 예약 필수)
 ※ 교육 및 평가는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GSEEK, '부모역할' 등 23개 온라인 부모교육 강좌 개설



경기도가 올해도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GSEEK) 내 자녀 성

장단계별 부모교육을 돕기 위한 23개 강좌를 신규 개설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부모교육 전용코너'를 마련하여 온라인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를 이해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되는 강좌는 '부모역할', '부모가 하는 성교육', '자녀 안전과 건강', '자녀발달 이해' 등을 주제로 한 ▲아프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훈육 ▲시작하는 부모 ▲잘 놀아야 행복해진다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 ▲소중한 자녀의 성장일기 ▲성 평등한 아이 키우기 ▲우리 아이 랜선(온라인) 건강 체크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온라인 부모-자녀관계 간이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고등학생 부모교육 강좌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아동학대 등이 심각해지면서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학령기 등 자녀 성장단계에 적합한 부모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식(GSEEK) 온라인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의 긍정적인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www.gseek.kr)은 외국어·IT·자기개발·생활취미·인문소양 등 총 8개 분야 1400여 개 강좌를 통해 도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기획 아키오의 한일역사 이야기

2021年—3.1 독립運動 102周年

독립선언문의 현대어 번역판, 일본어 번역문 게재



미야우치 아키오

韓国では幼稚園や学校は3月2日からスタートします。1日は朝鮮半島全体で日本からの独立を訴え大勢の人たちが闘いを始めた記念の日です。この日に民族代表によって宣言された独立宣言文からは、100年前の3月1日、この地の人たちが何を望み、何をしようとしたのが、今を生きる私たちに伝わってきます。その現代語訳(※)を日本語に訳してみました。

(3·1運動、大韓民国臨時政府樹立100周年記念事業推進委員会の簡単で読みやすい独立宣言書)

我らは今日朝鮮が独立国、朝鮮人がこの国の主であることを宣言する。これを世界のすべての国に知らせ、全人類平等の意を明らかにする。そして我らの子孫が民族が自立して生きていく正当な権利を永遠に享受せしめんとする。

この宣言は5千年間続く我が歴史の力により成し遂げられ、2千万民衆の思いを集めたものであり、民族が永遠に自由に発展し、人類が良心に従ってつくりあげていく世界の変化の大きな流れの中にある。これは天の意であり、時代の流れ、全人類が共に生きていく正当な権利から発している。この世界どこにも、我らの独立を阻むものはない。

古い時代の遺物である侵略主義と強権主義の犠牲となり、民族が数千年の歴史上、初めて他民族に押さえ付けられる苦痛を受けてから十数年が過ぎた。この間自ら生きる権利を奪われた苦しみははかりしれず、精神発展の機会を妨げられた痛みはどれほどだろうか。民族の尊厳を傷つけられた痛み、新たな技術と独創的な世界文化に寄与する機会を失った痛みはどれほどだろうか。

ああ、この間積みも積もった悔しさをはねのけ、この苦しみから抜け出し、脅威をはねのけ、押さえ付けられた民族の良心と失った国家の正義を再び直すには、それぞれが人格を高めることだ。子どもたちに苦痛に満ちた遺産の代わりに幸福を与えるために、急がれるのは民族の独立を確固としたものにする事だ。

今日、2千万朝鮮人はそれぞれの胸に刃を抱いた。全人類と時代の良心は正義の軍隊と人道の盾となり、我らを守っている。故に我らが進み出て闘うならばどんな強敵をも打ち負かし、反対にもし打ち負かされたとしても、その思いを貫徹するだろう。

我らは、日本が1876年江華島条約締結後に様々な約束を守らなかったために、日本が信じるに値しないと非難しているのではない。日本の学者と政治家たちが我が土地を奪い、我が民族を野蛮人であるかのようにみなし、我らの社会と民族の優れた心根を無視したとしても、日本のことを責めはしない。

自らを省みることに忙しい我らには他人を恨んでいるような余裕はない。現在の過ちを正すことに忙しく、過去の過ちを云々する余裕もない。今我らが成すべきは、

自身を立て直すことで、他人を破壊することではない。良心の導くままに新たな運命を創り出すことであり、決して古い恨みや一時の感情で他人を追い出そ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い。使い古された考えと古い勢力に囚われた日本の政治家たちがつくりだした不合理な現実を正し、本来の正しい世界に戻ろうとするものだ。

最初から我が民族が望まなかった朝鮮と日本の強制併合が生み出した結果を見よ。日本が我らを押さえ付け、民族差別の不平等と嘘で塗り固めた統計数字に依拠し、互いに理解を異にするふたつの民族の間に和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怨恨が生まれている。勇気をだしてこの過ちを正し、真の理解と共感を基に、仲良く新たな世を開くことが、互いに災難を避け、幸せになる近道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はないか!

また怒りと不満をもつ2千万の朝鮮人を力で押さえ付けることは、東洋の平和を保障する道ではない。これは東洋の安全と危機を分ける存在である4億の中国人たちをして、日本に一層恐れと憎しみを抱かせることになる。これは結局東洋全体を共に滅ぼす悲劇に導くだろう。今日朝鮮の独立は、朝鮮人が正当な繁栄を成し遂げると同時に、日本が誤った道から逃れ、東洋に対する責任を果たすことでもあるのだ。また中国が日本に土地を奪われ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不安と恐れから逃れることでもある。そして世界平和と人類幸福の重要な一部分である東洋平和を成し遂げる足掛かりとなるのだ。朝鮮の独立がどうして些細な感情の問題だろうか!

ああ、新たな世が目前に広がっている。力で押さえ付ける時代は去り、道義が成り立つ時代がやってくるのだ。数千年磨きあげてきた人道精神が新たな文明の光を人類史に輝かせる時が来たのだ。全世界が春を迎え、すべての生命が息吹だした。凍り付き息を潜めた時代は去り、柔らかな風と暖かい日差しが新たな時代が来たのだ。

世界の道理が再び息づくこの日、世界の変化の流れに乗る我らにためらいはない。自由権を守り、豊かな暮らしの喜びを満喫する。豊かな独創性を発揮し、春を迎えた世界に民族の優れた文化を咲かせるだろう。

ゆえに奮い立つのだ。良心は我らと共にあり、真理と共に進んでいる。老若男女の分け隔てなく、暗く古びた場所から飛び出し、世界のすべてと共に生まれかわるのだ。数千年前から先祖は魂の内に我らを助け、全世界のエネルギーが外から守ってくれている。ゆえに始まりこそ成功となるだろう。ただ目の前の明るい光を目指し力強く進み出るまでだ。

三つの約束
ひとつ、独立宣言は正義、人道、生存が民族の望むところであり、ただひたすら自由な精神を響かせることを目指す。決して排他的な感情で行動してはならない。

ひとつ、最後のひとりまで、最後の瞬間まで、民族の正当な意を心ゆくまで表すこと。

ひとつ、すべての行動は秩序を重んじ、主張と態度は公明正大であるべきだ。

朝鮮建国4252年、3月1日(1919年3月1日)
朝鮮民族代表 33人(氏名省略)

새로운 경기 | **경쟁의 세상**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이 필요하신가요?

‘경기 먹거리 그날드림 코너’로 오세요!

2020년 12월부터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날드림 코너** 운영(3개소)
경찰협력 긴급 생계 위기 가구 지속 발굴
복지상담 : 031-12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 1월부터
■ 복지시설(복지관등)내 '경기 먹거리 그날드림 코너' 설치 운영(31개 시·군 17개소)
■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날드림 방앗고' 운영**
: 노숙인 시설 그날드림 방앗고 설치(2개소) 및 음식쿠폰 지급(2개소)
■ **경로식당 활동 무료 급식 지원** : 31개 시·군 경로식당 124곳 급식 지원

2021년 3월부터
■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300만원 한도 연1%, 5년 만기
대출상담 : 031-8008-5662

관련 문의
경기도자원봉사센터
031-256-1356

중앙안내
경기도콜센터
031-120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 紧急福利分娩费支援

各洞行政福利中心定制幸福分组

· 支援对象：接受紧急支援(住房补助)的家庭成员分娩(包括预产)时

※ 紧急情况

- 因主要收入者死亡或离家出走，下落不明，被刑拘等原因导致丧失家庭收入时
- 病重或负伤时
- 遭受家庭成员的家暴或性暴力时
- 因火灾等原因无法在居所或建筑物内生活的情况

※ 除此以外保健福祉部长官确定并公告的情况

- 和主要收入者离婚的情况
- 断电时
- 主要收入者或次要收入者因遭受失业·停业·营业场所火灾等经营实际困难导致生活困难的情况
- 主要收入者或次要收入者因失业导致生活困难的情况
- 刚出狱生活困难时
- 因遭家人放任不管，遗弃，生计困难等露宿的情况

· 筛选标准

- 收入标准：中等收入标准的75%(1人标准131万元，4人标准356万元)以下
- 财产标准

地区	大城市	中小城市	农渔村
标准	1亿8,800万元	1亿1,800万元	1亿100万元

· 支援内容：支援分娩费70万元(双胞胎140万元)

□ 医疗补助领取者婴幼儿健康体检费支援

国民健康保险工团(1577-1000)

· 支援对象：医疗补助领取者中未滿6周岁的婴幼儿

· 支援内容

- 预防生长发育异常，肥胖，安全事故，婴儿猝死综合症，听力视力异常，蛀牙等
- 婴幼儿健康体检项目按年龄确定相应的问诊项目(包括视力·听力检查)和诊断，身体测量(身高·体重·头围)等共同体检项目
- 提供9种健康教育，发育评价及咨询(不含4个月)支援
- 体检周期：4个月/9个月/18个月/30个月/42个月/54个月/66个月



□ 想要领养孩子

家庭托管支援中心(1577-1406)
大韩社会福利会京畿分部 (031-877-2849)
霍尔特儿童福利会京畿办事处 (031-217-5999)

· 支援对象

- (已婚家庭) 25岁以上，和被领养孩子年龄差距不超过60岁
- (单身家庭) 35岁以上，和被领养孩子年龄差距不超过50岁

· 领养流程

- 夫妇(单身家庭和家)充分协商 → 申请领养 → 面谈及养父母教育(单身家庭面谈) → 家庭调查 → 选定儿童 → 向家庭法院申请许可及判决 → 领养及后续管理

连接世代-
提高人生周期共感

妊娠·生育

婴·幼儿(0~7岁)

□ 儿童幸福卡申请

儿童之爱援助服务台(1566-3232/核通后请拨1)

· 儿童幸福卡：0~5周岁学前儿童用以享受政府提供保育费(幼儿学费)支援的卡

· 申请方法：申请政府支援后，发卡

- (发卡机构) 信用卡公司，银行(BC卡/国民卡/农协卡/乐天卡/新韩卡/友利卡/韩亚卡)



□ 家庭养育津贴支援

各洞行政福利中心定制型福利组

· 支援对象

- 收入水平不限，未接受任何保育费、幼儿学费、全天保育服务支援，在家照顾婴幼儿(86个月以下)的家庭。
- 具有韩国国籍，根据居民登记法进行居民登记并有身份证号码的儿童
 - ※ 注，驻外国儿童以在国内居住30天以上为居留目标，完成驻外国民身份登记之后即可享受支援
- 根据子女的保育状况(家庭养育↔儿童之家↔幼儿园)不同，需要变更相应的服务申请
- 小学入学年度2月为止(月龄不超过86个月)提供支援

· 申请方法：前往所籍洞行政福利中心申请或登录福利之路(online.bokjiro.go.kr)在线申请

· 支援内容：根据月龄提供以下不同级别的支援

未滿6周岁的婴幼儿	未滿12个月	支援20万元
	12个月以上未滿24个月	支援15万元
	24个月以上未滿86个月	支援10万元
农渔村儿童	未滿12个月	支援20万元
	12个月以上未滿24个月	支援17万7,000元
	24个月以上未滿36个月	支援15万6,000元
	36个月以上未滿48个月	支援12万9,000元
残疾儿童和农渔村儿童	48个月以上未滿86个月	支援10万元
	未滿36个月	支援20万元
	36个月以上未滿86个月	支援10万元
	农渔村儿童	按照年龄提供10~20万元

※ 受惠儿童在海外居住90天以上时，将根据婴幼儿保育法中止支援

□ 国民年金生育支援

国民年金工团(无区号直拨1355)

· 支援对象：生育两名以上子女的国民年金加入者

· 筛选标准

- 2008年以后生育两名以上子女的国民年金加入者
- (享受支援的法定子女) 法定婚生子女、婚外子女、养子、随养父或继父姓的养子、被领养子女

· 支援内容：根据子女的人数增加国民年金投保时间

- (2名子女) 增加12个月
- (3名子女及以上) 12个月 + 超出2名子女以上每1名增加18个月 ※ 最多不超过50个月

· 申请方法：前往国民年金工团或通过邮寄、上网申请



□ 领养家庭托管儿童心理治疗支援

家庭托管支援中心(1577-1406)

· 支援对象

- 家庭托管期及领养期在1个月以上的儿童(一般为2周岁~18周岁)
- 未接受其他公共机关或民间机构治疗费用补助的儿童(不得重复享受支援)
- 过去接受过心理治疗但问题没有解决的儿童
- 过去接受过心理治疗但又发生其他心理问题的儿童

· 支援内容

- 向生活在委托家庭的儿童提供健康成长支援
- 根据治疗对象儿童的症状确定治疗项目并支援治疗费用
 - ※ (治疗项目) 游戏治疗，美术治疗，音乐治疗，集体治疗，认知治疗，语言治疗等

· 申请方法：前往地区家庭托管支援中心申请

· 附近机构现况

机构名称	地址
儿童财团京畿家庭托管支援中心	京畿.水原市灵通区灵通路214街9 Seorin广场7楼
京畿北部家庭托管支援中心	京畿.议政府市市民路19街30-11 2楼
中央家庭托管支援中心	首尔.麻浦区白凡路119, 2楼

□ 保育费(儿童之家)

各洞行政福利中心定制型福利组

· 支援对象：上儿童之家的0~5岁儿童

· 注意事项

- 申请将养育津贴变更为保育费时，如在15日以前申请，当月即可享受保育费支援，16日以后申请，则从次月1日开始享受支援
- 根据子女的保育状况(家庭养育↔儿童之家↔幼儿园)不同，需要变更相应的服务申请

· 支援内容：根据年龄提供不同级别的保育费支援

(‘20.3月开始适用)

年龄	(基本保育时间) 保育费	(延长保育时间) 保育费
未滿1周岁儿童	47万元	每小时3,000元
滿1周岁儿童	41万4,000元	每小时2,000元
滿2周岁儿童	34万3,000元	每小时2,000元
滿3~5周岁儿童	24万元	每小时1,000元

· 申请方法：前往所籍洞行政福利中心申请或登录福利之路(online.bokjiro.go.kr)在线申请

□ 幼儿学费

各洞行政福利中心定制型福利组

· 支援对象：上幼儿园的3~5周岁儿童

· 支援内容：收入水平不限，支援所有阶层保育课程

· 申请方法：前往所在辖区洞行政福利中心申请或登录福利之路网站(online.bokjiro.go.kr)、APP在线申请



□ 儿童津贴

各洞行政福利中心定制型福利组

· 支援对象：收入水平不限，未滿7周岁的所有儿童

· 支援内容：每名儿童每月支援10万元

· 申请方法：前往各洞行政福利中心申请，或登录福利之路网站、APP在线申请

새로운 도전으로 3월의 봄을 준비해요

시흥시, 시민 대상 알차고 유익한 사업 진행



시흥시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시흥시민들이 참여해 볼 만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도시농부' 도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1년 시민행복텃밭 참여 희망자를 3월 2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

텃밭 대상지는 2020년 신규로 조성된 월곶동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포함해 기존에 운영되던 함줄 도시농업공원과 배곧 문화복합부지까지 총 3개소다. 모두 민관 협업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세대별 6.5㎡ 구획 기준으로 총 650세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참여자 모집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수 방법은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텃밭 현장 관리소에 방문하여 무인접수함에 제출하면 된다.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하며, 시민행복텃밭에 연속 2년 참여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031-310-62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원순환 강사로 새로운 꿈꾼다

취업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자원순환 강사를 준비해보자.

시흥에코센터 초록배곧은 '자원순환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오는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자원순환 강사 양성과정'은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흥에코센터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총 9차시로 구성된 '자원순환 강사 양성과정'은 기후위기와 환경교육, 탄소 중립 사회와 순환 경제, 어린이 환경교육과 교수학습법 등 자원순환교육의 체계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이주은 알맹상점 공동대표, 박미현 터치포곳 대표, 장미정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 연구소장 등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전문가가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한다.

참여자 모집 기간은 3월 17일까지다. 합격자는 3월 19일에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시흥에코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서류를 작성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원순환 강사 양성과정'의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재도 제공된다. 수료자에 한해 시흥에코센터에서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수료 기준은 출석 85% 이상 및 시연 평가 70점 이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에코센터 홈페이지(<https://sh-ecocenter.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70-4446-8908)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에코센터의 관계자는 "자원순환을 위한 어린이 환경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Đồng ý việc nhận lao động theo mùa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và kiều bào do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ông Park Bom Gye đã cùng với quan hệ viên của các bộ như Bộ lao động, Bộ nông sản, Bộ thủy sản, vv mở cuộc họp liên quan đến nhận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eo mùa trong quý I năm 2021 vào ngày 5 tháng 2 vừa qua, thông qua việc khảo sát việc cần nhân lực của bên phía nông nghiệp và ngư nghiệp, ông đã phân bổ 4,631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o hai mảng lao động trên.

Ngoài ra, nhằm mục đích giải quyết việc thiếu hụt nhân lực trong ngành nông nghiệp do tình hình diễn biến của dịch Covid-19 mà không thể tuyển người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nhập cảnh sang Hàn quốc, Bộ tư pháp đã ban hành "chế độ cho phép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tham gia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những không thể đi làm có thể tham gia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này bắt đầu từ ngày 2 tháng 3 tới đây.

Phương án cho phép người nước ngoài tham gia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thì những đối tượng sau là những đối tượng không được phép đăng ký tham gia, bao gồm những người mang visa F-1, F-3, những người mang visa H-2 đã hết thời gian lưu trú nhưng không thể xuất cảnh do tình hình dịch Covid-19, những người mang visa E-9, vv tổng số những đối tượng này bao gồm khoảng 79,000 người.

Thông qua việc được cấp giấy xác nhận có thể tham gia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được cấp bởi cơ quan chức năng,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sẽ chỉ định cho các đối tượng này có thể làm việc tại 2 mảng chính là nông nghiệp và ngư nghiệp bắt đầu từ ngày 2 tháng 3 đến hết ngày 31 tháng 3, tối đa nhất là 13 tháng.

Khi tham gia lao động, tiền lương mà người lao động nhận được sẽ cao hơn so với tiền lương cao bản hiện hành, bảo hiểm lao động là

hạng mục bắt buộc phải đóng, người lao động cũng sẽ có thể được nhận sự hỗ trợ về việc ăn và kí túc xá nếu như người lao động có nguyện vọng.

Đặc biệt, sẽ giảm thiểu và hỗ trợ nhiều thủ tục dành cho đối tượng có visa H-2 đã từng tham gia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từ trên 90 ngày trở lên khi xuất cảnh và làm thủ tục tái nhập cảnh. Sau này khi xét thời gian lao động trong hai ngành là nông nghiệp và ngư nghiệp, người có visa H-2 sẽ có thể được chứng nhận có thể làm việc với thời gian dài trong mảng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họ cũng sẽ có thể được miễn những lệ phí khi đăng kí lưu trú phục vụ mục đích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Ngoài ra Bộ cũng sẽ cấp nhiều những ưu đãi dành cho đối tượng là những người mang visa lao động E-9 khi đăng kí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quốc phục vụ mục đích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hoặc sẽ được cộng điểm khi đăng kí thay đổi tư cách lưu trú. Tiếp theo những dữ án về việc nhận người lao động theo thời vụ được tổ chức vào năm trước, thời gian thu hoạch nông sản vật đang đến gần, việc tuyển người lao động trong thời gian này là vô cùng khó khăn, phương án này của Bộ đã phần nào giảm bớt được một số những lo âu của người nông dân.

Song song với đó, những nông dân không thể đăng kí tuyển lao động trong đợt tuyển người này hay những nông dân cần thêm người lao động thì có thể đăng kí vào đợt tháng 6 và thông qua cuộc họp vào đầu tháng 7 của các cơ quan ban ngành sẽ bố trí số lượng người lao động thiếu hụt một cách nhanh chóng. Tương lai Bộ tư pháp cũng như các cơ quan ban ngành có liên quan sẽ có đa dạng những hợp tác nhằm đưa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vào đúng địa điểm, đúng thời điểm giúp các nông dân hoàn thành tốt việc canh tác của mình.

<한글 기사 44면> 강혜나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희망 만들어가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등 유한대와 함께 다양한 비대면 강좌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유한대학교와 함께 비대면으로 온라인마케팅기반 핸드메이드창업강좌(손뜨개)와 다문화 정착지원 강좌(베트남 춤바댄스 자조모임)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유한대학교에서 프로그램 강사비와 재료를 지원해줘 평소 예산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온라인마케팅기반 핸드메이드 창업강좌는 프로그램 진행 후 대상자들이 직업 만들었던 작품으로 센터 4층 다가온 소통공간에 전시하여 온라인 전시회도 함께 진행했다. 다문화 정착지원 강좌도 온

라인으로 춤바댄스를 진행해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였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유한대학교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참가자들도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끝나 유한대학교에서 배웠던 춤바댄스 및 베트남 전통춤을 부천시 지역축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사, 유한대학교 졸업식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센터는 2020년부터 유한대학교와 함께해 온 프로그램을 보다 발전시켜 2021년에도 다문화가족과 함께 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이류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결혼이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교실’이 사회복지법인 동행복지재단의 <2021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다이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결혼이민자 운전면허교실은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취업 발판을 마련하고 주도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90시간이다. 학과교육, 장내 기능교육, 도로주행에 필요한 전액을 지원해 준다.

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증 취득 및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진행을 통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결혼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존감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ワクチン、多文化家族をはじめとする国民健康保険加入外国人住民、 無料接種 코로나 백신 다문화가족 비롯해 건강보험 가입된 외국인주민 무료접종

政府は2月26日からコロナ19ワクチン接種をスタートさせた。このような状況の元、国内滞在外国人住民はどうなるだろうか。外国人住民もコロナ19 ワクチン接種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か関心が高まっている。

疾病管理庁は韓国に滞在している外国人にもワクチン接種を原則とし、その対象を‘長期滞在者で国民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ること’とした。

政府は計7,900万人分のワクチンの購買契約を完了し、1分期にはアストラジェネカとファイザーワクチンが導入される予定だ。疾病管理庁はワクチン接種細部計画を4分期に分け、次のように案内している。

■1分期(130万人)

▲療養病院、療養施設入院、入所者、従事者 ▲コロナ19患者を治療する機関の従事者 ▲保健医療者など、高リスク医療機関従事者 ▲疫学調査、救急隊など、1次対応要員 ▲情神療養、リハビリ施

設などの入所者、従事者

■2分期(900万人)

▲老人在家福祉施設利用者、従事者 ▲65歳以上の高齢者から順次接種 ▲医療機関および薬局 従事者1分期接種対象外 ▲障がい者、ホームレスなど、施設入所者、従事者

■3分期(3325万人)

▲成人慢性疾患者 ▲成人18~64歳(外国人含む) ▲軍人、警察、社会開発施設従事者 ▲小児、青少年教育、保育施設従事者

■4分期

▲2次接種者 ▲未接種者
外国人の接種順序も韓国人と同一。ただし観光客や法務部が管理する季節勤労者など、短期滞在者は“国民健康を守るという原則に従い必要性を判断し接種を決定する”とし、具体的な内容は検討中。

法務部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の関係者は、“コ

ロナ19によって昨年来られなかった季節勤労者制度を今年も実施する計画はない”とし、“ただし季節勤労者が来ることになれば、関係当局と協議してワクチン接種を判断する”とした。

一方雇用労働部が管理する雇用許可制による20万人の外国人勤労者は、一度入国すると最長4年10ヶ月まで滞在できる長期滞在者で、国民健康保険に加入することになるため接種対象となる。外国人勤労者も無料でコロナ19ワクチン接種を受けられることになる。

そして結婚移民者、結婚移住女性は大部分が国民の配偶者で国民健康保険にも加入しており、ワクチン接種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とは別途に在外同胞や外国人が本国でワクチンを受けても、韓国に入国すれば韓国が定める規則に従って14日間隔離せねばならない。

<한글 기사 1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В связи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rona Объявление о наборе волонтеров-переводчиков дл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Кёнгидо.

코로나19 확산 대응 경기도 역학조사 통역봉사단 추가모집, 다문화가족도 참여해요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зараже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коронавирусом 19, из-за проблем языкового общения во врем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озникают трудности. Управление Кёнгид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и языкового общения во врем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ускоряет выполнение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точный перевод. Для этого создан отдел переводчиков, который поможет в процессе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о время пандемии. Объявляем 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наборе переводчиков.

*Пункты и содержание:

- 1)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2021.1.02. 24. (ср) ~ 03. 02. (вт)
- 2) Кандидаты: Те, кто может переводить на одном из 10 языков
 - Китайский (обычный разговор), японский, арабский, испанский, пакистанский (урду), русский, лаосский, шри-ланка, филиппинский.
- 3) Набор персонала: 40 человек (от 3 до 5 человек на каждый язык)
 - ※ Оконча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выбранных по языку, может быть изменено.
- 4) Пери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2021.03.08. (Пн) ~ До окончания ситуации.
- 5) Время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т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графика (часов), возможно по выходным и в ночное время, переводы по запросу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 6) Основ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в случае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ев поддержка личного перевода по телефону (3 чел.

по тел., текст и т. Д.)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озможно срочный выезд в процессе реагирования, связанного с Corona 19.

7)Оплата: 25.000 вон / час.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проверка личности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Приоритет 1) Иметь сертификат о прохождении теста на знание языка (включая устный и письменный перевод)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ране (заверенный официальным агентством) или проживать в стране в течение долгого срока

Уровень 5 Теста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ли Уровень 5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Приоритет 2) Уровень 4 теста н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вень 4 программы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Лица с опытом работы более 3 лет в организациях, связанных с иностранцами.

*Возраст: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однако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татьей 4 Гражданского закона исключены)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В качестве переводчика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лучаях во время экстренного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возмож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ночное время или в выходные дн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ериода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 должны проживать в течение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за границей.

-Человек у которого нет других причин для отстранения согласн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законам и правилам.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2021.02.24. (ср) 13:00 ~ 03. До 02. (вторник) 13:00

-Форма заявки: необходимые фо

рмы заявления загрузите на веб-сайт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http://www.gg.go.kr>)

Начальный экран домашней страницы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 Новости -> Объявление ·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 Уведомление · Объявление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до 13:00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foreigner1@gg.go.kr

-Заявки не принимаются другими способами кроме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какие-либо вопросы, помимо вышеуказа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братитесь в отдел иностранцев управления Кёнгидо (031-8030-46553).

В целях проведения усиленных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 с помощью новых и точных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деемся на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многих лиц.

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 문제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역학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통역요원을 모집합니다. 통역요원은 코로나19 역학조사 시 비대면 방식으로 통역을 돕게 됩니다.

*모집분야 및 내용

1) 모집기간: 2021.02.24.(수)~03.02.(화)

2) 모집분야: 10개 언어 통역 가능자
- 중국, 일본, 아랍, 스페인, 파키스탄(우르두어), 러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필리핀어입니다.

3) 모집인원: 40명(언어별 3~5명) 언어별 최종 선발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활동기간: 2021.03.08.(월)~상황 종료 시까지입니다.

5) 활동시간: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주말/야간을 포함하여 통역 수요에 따라 비상시작 활동을 합니다.

6) 주요역할: 외국인 역학조사 시 비대면 유선 통역지원(3자 통화, 문자 등)
#필요시 긴급한 코로나19 대응현장 지원 가능합니다.

7) 활동비 : 25,000원/시간

*신청자격:

1. 자격요건

-국내거주자(합격 후 신분증명 확인)
-(1순위) 해당 국가 언어능력 검정 (통번역 포함) 자격증 소지(공식기관 인증) 및 해당 국가에서 다년간 생활하여 해당국가 언어소통이 원활한 내국인, 한국어능력시험 5급 또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2순위) 한국어능력시험 4급(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보유자이거나 외국인 관련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등

2. 연령: 제한 없음(단, 민법 제4조에 따른 미성년자는 제외함)

3. 기타사항

-비상시작인 통역 활동으로 긴급 또는 야간-주말 역학조사 시 근무가능합니다.

-활동 기간 중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기간: 2021.02.24.(수) 13:00~03.02.(화) 13:00 까지

-신청서식: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다운로드

-경기도청 홈페이지 초기화면)뉴스)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

#신청방법: 이메일(마감 당일 13:00 도착 분까지 유효)

-이메일: foreigner1@gg.go.kr

*이메일 외 다른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53)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로 강화된 방역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 자격증으로 취업 새로운 희망 연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 교육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는 KB다문화가정 자립지원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을 위한 '1인 유튜브활용 & 문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초록우산 사업 수행기관인 센터는 코로나19에서도 취업에 필요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반에 참여자들이 3월, 4월에 있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대면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은 주 3회, 4시간씩 총 45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사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면서 수업에 참여하거

나, 이해도 부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라며 "1월에는 간담회도 진행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 좋았던 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간담회 진행비로 각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구입해 선물키트로 전달했으며, 코로나 19로 1:1 또는 1:3으로 진행하여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대려나씨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무료로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센터에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백운영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비대면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이민자분들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이 자립지원 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아동학대 가정폭력 부천오정경찰서, 예방 홍보활동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최은정)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회장 이순길)와 협업하여 생필품을 전달하며, 다문화가정·이주여성 대상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최은정 부천오정경찰서장, 이순길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한 된장, 고추장, 생필품, 마스크 등 약 3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역 내 '코로나19'로 어려운 다문화·결혼이주여성 가정 25가구를 방문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실직 등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결혼이주여성 대상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였다.

대한적십자사 부천지구협의회 이순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부천오정경찰서 최은정 서장은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들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이 대부분으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마땅히 터놓고 이야기할 곳 없는 이분들에게는 주위의 관심만으로도 큰 위안이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 시대 생활 속 힐링과 활력 충전에 함께해요"

오정도서관 '집콕-온라인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프로그램	모집일시	운영일시	대상
오정	깔깔마녀의 그림책 읽기	3. 2.(화) 10:00	4.3.-5.22.(8회) 매주(토) 11:00-12:00	유아 6-7세 (12명)
	책따라 잘잘잘	3. 8.(월) 10:00	4.3.-5.22.(8회) 매주(토) 13:00-14:00	초등 1-2학년 (12명)
	재밌는 동화, 맛있는 요리	3.15.(월) 10:00	4.10.-4.17.(2회) 매주(토) 11:00-12:00	유아 6-7세 (12명)
	후다닥 반짝! 만화교실	3.15.(월) 10:00	4.5.-6.7.(10회) 매주(월) 15:30-17:00	초등 3-6학년 (12명)
	동화구연 및 손유희 자격증반	3.16.(화) 10:00	4.6.-7.20.(16회) 매주(화) 10:00-12:00	성인 (12명)
	엄마표 독서지도 자격증반	3.16.(화) 10:00	4.8.-7.22.(16회) 매주(목) 10:00-12:00	성인 (12명)
	책과 함께 미술놀이	4. 5.(월) 10:00	5.4.-5.25.(4회) 매주(화) 15:30-16:30	초등 1-3학년 (12명)

부천시 오정도서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친 일상 속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콕 생활에 힐링과 활력을 전해 줄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깔깔마녀의 그림책 읽기〉

동화 속 인물과 목소리 행동을 따라 해보는 오감놀이 유아 프로그램으로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에 진행한다.

〈책따라 잘잘잘〉

이야기 구연동화 및 책 관련 독후활동으로 구성된 초등 1-2학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한다.

〈재밌는 동화, 맛있는 요리〉

유아를 대상으로 동화 관련 다양한 요리를 만들며

성취감과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이다. 4월 10일과 4월 17일 총 2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11시에 진행한다.

〈후다닥 반짝! 만화교실〉

만화그리기를 통한 창의적 발상법과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기 위한 초등 중·고학년 프로그램으로 4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한다.

〈동화구연 및 손유희 자격증반〉

동화구연지도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프로그램으로 4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에 진행한다.

〈엄마표 독서지도 자격증반〉

독서교육 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프로그램으로 4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에 진행한다.

〈책과 함께 미술놀이〉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관련 미술활동이자 독서흥미 유발 프로그램으로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한다.

관련 문의는 원미도서관 오정도서관팀(032-625-4101)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백신 접종으로 일상 되찾는다

부천시, 1차 접종 26일 시작

부천시가 지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1분기에는 65세 미만 요양병원 및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예방 접종한다. 해당 백신은 6400명분으로 1차 2월 25일, 2차 2월 27일 배송된다.

현재 확정된 접종 인원은 요양병원 3,542명, 고위험집단시설 1,608명으로 총 112개소 5,150명이다. 부천시는 2월 26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한우리요양병원 등 2개소 접종을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1분기 예방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병원에서 자체 접종하며, 고위험집단 시설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팀 방문 및 보건소 내소 접종 등을 통해 접종한다. 이어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으로 예방접종을 이어간다. 부천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목표로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해 부서 간 연대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추진단은 6개 팀으로 구성돼 접종 완료 시까지 접종, 백신 수급 관리, 대상자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체계적이고 신속히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의 기자

Tết Việt Nam 같으면서 다른 한국의 설날과 베트남의 설날

베트남 설날 ‘Tết’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간



Nhiều người ở Việt Nam không biết là Hàn Quốc cũng đón Tết truyền thống theo lịch âm. Ngày đầu năm mới theo lịch âm được gọi là seollal 설날 là một trong 2 ngày lễ lớn nhất của người Hàn Quốc.

Seollal ở Hàn Quốc thường có 3 ngày nghỉ nhưng thường kết hợp với ngày cuối tuần nên thời gian kéo dài hơn khoảng 4 đến 5 ngày. Dịp Tết là hành trình của những người ở thành phố lớn về lại quê hương. Vì thế lưu xe tăng đột biến nếu đi chuyển bằng xe riêng thì thời gian có thể gấp 2 đến 3 lần ngày thường. Cảnh tắc đường theo hướng 서울=>부산 trước Tết và ngược lại thật sự làm những ai thiếu kiên nhẫn cảm thấy hoang mang. Nhưng đi bằng phương tiện công cộng như xe bus hay tàu thì phải mua vé khứ hồi trước ít nhất 1 đến 2 tuần.

Sáng sớm ngày đầu năm cả gia đình sẽ mặc Hàn Phục tập trung trước bàn thờ làm lễ cúng ông bà tổ tiên. Sau đó là con cháu sẽ quỳ lạy chúc phúc người già gọi là 새배. Sau đó người già sẽ tặng cho con cháu tiền mừng tuổi 세뱃돈.

Món ăn truyền thống cho ngày Tết là bánh canh gạo 떡국. Với mong muốn sống lâu và không bệnh tật. Vì bánh gạo trước khi cắt lát thì rất dài đồng đều và không bị khuyết tật.

Trò chơi truyền thống ngày Tết là 윷놀이, thả điều, đá cầu. 윷놀이 gồm 4 thanh gỗ và một bàn đi khá giống với trò chơi cá ngựa ở Việt Nam. Người lớn thì muốn bảo tồn nhưng khi xã hội công nghệ phát triển thì trẻ em thường thích chơi điện tử và các trò chơi công nghệ hơn.

Tết cũng là dịp để nhiều người dành thời gian rảnh đi du lịch ở những địa điểm mang tính lịch sử như làng truyền thống, cung điện, lăng tẩm hay các nơi thờ tự.

Cũng giống như Hàn Quốc thì ngày đầu năm mới ở Việt Nam gọi là “Tết”. Khác với Hàn Quốc chỉ một dân tộc thì Việt Nam có hơn 54 dân tộc anh em thêm vào đó điều kiện địa lý kéo dài từ bắc vào nam lên tới 1750km nên Tết cũng đa sắc màu và rộn ràng hơn. Thời gian nghỉ tết cũng kéo dài hơn từ 1 tuần tới 10 ngày.

Ngày đầu năm mới cũng làm lễ cúng ông bà tổ tiên. Cũng chúc tết người già và trẻ em cũng nhận tiền mừng tuổi của người lớn. Ở Việt Nam có nhiều phong tục rất thú vị như người đầu năm đến gia đình thì gọi là “xông đất”. Hay ngày đầu năm thì không ăn thịt chó, cá mực và tôm vì quan niệm xui xẻo không may mắn.

Món ăn truyền thống của người Việt Nam là bánh chưng bánh tét. Bánh chưng có hình vuông tượng trưng cho trái đất.(ngày xưa con người quan niệm trái đất hình vuông).Bánh chưng được làm từ gạo nếp,đậu xanh, hành ,thịt lợn,quế và gia vị.Tất cả được gói khéo léo đẹp mắt vuông thành 8 góc sắc nét. Sau khi gói được nấu kỹ từ 8 đến 12 giờ thì được.

Trò chơi dân gian cũng rất đa dạng như ném cù , kéo co, vật. Theo sự phát triển toàn cầu hóa thì tết Việt dần biến tết thành lễ hội thu hút khách du lịch trên toàn thế giới.Bất kỳ ai khi tới Việt Nam đúng dịp Tết sẽ là một kỷ niệm không thể quên cả thành phố sẽ ngập tràn các loài hoa, cờ và ánh đèn. Con người cũng thay đổi hoàn toàn họ bỏ qua lo toan bận bịu cuộc sống để vui đón tết.

Ngày tết ở miền bắc là cây hoa đào còn miền nam là cây mai vàng.

Tết cũng thể hiện ý chí quật cường của người Việt Nam trong chiều dài phát triển. Lịch sử đã để lại 2 dấu ấn đó là cuộc hành binh thần tốc năm 1788 đánh bại gần 30 vạn quân Thanh. Hàng năm vào ngày mùng 5 Tết có lễ hội Gò Đống Đa để tưởng nhớ chiến công của vị vua bách chiến bách thắng. Điều đặc biệt là cuộc hành quân thần tốc của 100.000 quân dưới sự chỉ huy tài tình của vua Quang Trung đến nay vẫn chưa có lời giải thích. Vẫn còn là một dấu hỏi lịch sử cần lời giải thích. Nhưng vang dội nhất phải là sự kiện tết 1968 trong chiến tranh Việt Nam. Chính vì lễ đó mà Tết với người Việt mang một giá trị rất thiêng liêng và cao cả.

Tết năm nay rất đặc biệt vì Covid-19 nên cả Việt Nam và Hàn Quốc đều hạn chế đi lại sống trong điều kiện bình thường mới. Hy vọng năm mới chúng ta sẽ cùng nhau vượt qua đại dịch. Mỗi chúng ta sẽ quý trọng thời gian trôi qua từng ngày để xây dựng tương lai tốt đẹp hơn.

한국의 설

일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구정을 지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 날을 설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설날은 보통 3일 동안 지내지만 주말까지 겹쳐서 약 4-5일 정도 연휴기간이예요.

설날에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귀향하는 기간 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도 많이 일어나고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게 되면 평소보다 걸리는 시간이 2배 또는 3배 정도 됩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는 명절에 항상 막혀 교통 이용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기간이예요.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주일 쯤은 2주일 전부터 예매를 해야 설에 맞춰 귀향할 수 있어요.

새해 첫날에는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후에는 어린이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면서 새배를 하고 어른은 새배를 받은 후 어린이에게 세뱃돈을 줍니

다. 한국 구정에는 베트남처럼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떡국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떡은 길어서 칼이 아니면 쉽게 잘리지 않고 자르고 나서도 모양이 예뻐요. 설날에 자주 볼 수 있는 전통 놀이는 윷놀이, 연날리기 등이 있습니다. 윷놀이는 윷과 윷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윷판은 베트남 전통 놀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른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어린이들은 전통 놀이보다는 전자 기기를 이용해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내국인들은 연휴기간을 이용해 전통마을, 궁궐, 묘, 등 문화가 담겨 있는 유적지로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해요.

베트남의 설

한국과 비슷하게 베트남에서도 구정을 지내는데 이름은 TET이라고 해요. 단일민족인 한국과 달리 북쪽에서 남쪽까지 국토의 길이가 총 1,750km나 되는 베트남은 전체 54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민족에서 지내는 구정도 각각 특징들이 있어요.

연휴기간도 한국보다 길어 약 1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는데요. 새해 첫날에는 조상께 인사드리는 뜻으로 제사를 지내요. 한국의 풍습과 같이 어른께 덕담을 하고 어린이들은 새뱃돈을 받아요. 베트남 설날 풍습 중 대표적인 것은 송댓(Xông đất-다른 사람 집에 방문해 덕담을 하고 좋은 기운을 가져준다는 의미) 입니다. 그 외에는 일년 동안 안 좋은 기운을 쫓 수도 있는 개고기, 새우 등과 같은 음식 등을 먹는 것을 피해요.

베트남에서 설날에 먹는 전통음식은 바잉증(b nh chưng)이 있습니다. 바잉증은 북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바잉떡(b nh tét)은 남쪽 사람들이 먹는 전통음식이예요. 바잉증은 땅의 모양을 본떠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요. 바잉증은 찹쌀, 녹두, 돼지고기와 각종 조미료를 넣어 만드는데 나뭇잎으로 예쁘게 잘 싼 뒤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잘 익도록 계속 끓여줍니다.

베트남 설날 전통놀이는 줄다리기 등 매우 다양해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베트남 구정 기간에도 많은 외국인 여행자가 찾아와 즐긴다고 합니다. 베트남 설날에 방문한 여행객은 도시 전체가 꽃과 깃발 및 조명으로 가득차게 되는 그 풍경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 겁니다. 베트남 현지인도 1년 동안 힘든 일, 안 좋은 일을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매우 밝은 표정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베트남 설날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꽃을 즐기는 풍습이 있어요. 북쪽 사람은 복숭아 꽃을 즐기고 남쪽 사람은 매화 꽃을 즐깁니다.

베트남 TET은 오랫동안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거의 3만명의 청나라 군을 격파한 1788년의 급속한 행군 등 2가지 흔적을 남겼어요. 매년 음력 1월 5일에 왕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고 특히 광중(Quang Trung)왕의 뛰어난 지휘하에 10만 명의 군을 이끌고 빠른 작전을 펼쳐 승리를 거둔 것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중략. 인터넷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누옌탄빈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위한 반가운 소식 ... 법무부, 출생등록제 시행



▲송인선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대표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가 2019년 12월 기준 2,524,656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 10월 기준 2,077,053명으로 10개월 만에 447,603명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미등록 체류자는 이와는 반대로 더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93,045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미등록 체류자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이민 생활

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이에 가장 큰 피해와 더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미등록 아동 청소년들이다. 지난달에도 필자가 운영하는 이주민 지원센터로 미등록 아동 청소년 한 명이 한 통의 전화를 어렵사리 걸어왔다.

올해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N국의 K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하루 두 끼를 해결하며 지내고 있는바 지역아동센터와 연결된 00기관에서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는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든지 아니면 난민 신청접수증이라도 있는지 물어본다고 하면서 혹시 본인에게도 이러한 등록번호나 접수증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였다.

안타깝게도 K군의 부모들은 난민 신청을 했다가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당한 것이기에 K군은 그야말로 신분증이 없는 유령 인간에 불과하여 이런저런 아동 관련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P국의 R군은 미등록 부모의 자녀로

서 국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고등학교 졸업 3개월을 남겨 놓고 온 가족이 자진 출국을 하였지만, 본국에 돌아가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R군은 적응을 못 하는 실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R군에게 국내 입국 비자를 허락하여 국내에서 본인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국내에는 수많은 미등록 아동 청소년들이 인간 존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민자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비영리 민간단체 외에는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곳이 없다.

하지만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이제라도 법무부가 미등록 아동들에게 출생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하루속히 미등록 아동 청소년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멋진 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해 주길 간곡히 기대한다.

Những đứa trẻ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heo bố/mẹ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ó là những đối tượng như thế nào?

Chắc hẳn chúng ta đã nghe nhiều những từ như kết hôn quốc tế hay gia đình đa văn hóa, vv nhưng trong đó có một khái niệm khá mới đối với nhiều người đó chính là đối tượng những đứa trẻ có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heo bố/mẹ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sau khi bố/mẹ kết hôn với người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Những đối tượng là những đứa trẻ là con riêng của vợ/chồng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tái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những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trong gia đình có bố mẹ kết hôn quốc tế nhưng không sinh sống ở Hàn quốc ngay từ nhỏ mà sống tại quốc gia của bố/mẹ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tuổi đi học thì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ể đi học, những đứa trẻ là con của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sau khi nhập cảnh và lao động được một thời gian nhất định và được bảo lãnh con của mình đang sống tại nước ngoài sa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những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ở đất nước thứ 3 từ bố/mẹ là người Triều Tiên chạy trốn sang Hàn quốc kết hôn với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vv Hiện tại độ tuổi của những đứa trẻ nhập cảnh theo bố/mẹ là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ngày một giảm xuống, do đó người ta thường dùng từ Những đứa trẻ nhập cảnh theo bố/mẹ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Hàn quốc mà không hay dùng từ Những thanh thiếu niên nhập cảnh theo bố/mẹ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Hàn quốc.

Chúng ta phải nhận thức được rõ những sự khác nhau giữa hai đối tượng đó là những đứa trẻ nhập cảnh theo bố/mẹ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Hàn quốc và những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Thông thường những đứa trẻ được sinh ra trong gia đình đa văn hóa là những đứa trẻ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chúng là người Hàn quốc được sinh ra tại Hàn quốc, nói, viết tiếng Hàn quốc và mang trong mình

nhận thức rằng bản thân mình là người Hàn quốc.

Mặt khác, những đứa trẻ nhập cảnh theo bố/mẹ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Hàn quốc là những đứa trẻ không được sinh ra tại Hàn quốc và cũng không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hông qua một số bài thi liên quan đến đăng kí nhập quốc tịch mà chúng sẽ được nhập quốc tịch tại Hàn quốc. Do chúng không được sinh ra tại Hàn quốc mà được sinh ra ở một quốc gia khác nên những ngưng ngừng hay bất tiện trong việc thích nghi với văn hóa, ngôn ngữ hay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là vấn đề hoàn toàn dễ hiểu. Tuy nhiên những đứa trẻ này có mục đích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ó là định cư, tuy nhiên do những đặc điểm bề ngoài hay việc sử dụng tiếng Hàn quốc kém khiến cho chúng phải nhận một số những xa lánh và những tủi thân là điều vẫn còn tồn tại.

Mặc dù là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đi chăng nữa nhưng nếu phát âm tiếng Hàn quốc không chuẩn do ngọng cũng vẫn bị nhầm là người nước ngoài. Những đứa trẻ này đại đa số còn nhỏ, đang trong thời gian phát triển và hoàn thiện bản thân nhưng do một số yếu tố bề ngoài mà bị xa lánh, tủi thân do mình không được sắp xếp vào bất cứ một cộng đồng nào khiến cho sự phát triển của chúng bị ảnh hưởng ít nhiều. Tác giả cũng là một trường hợp như vậy. Trước khi nhập cảnh, tác giả từng là một đứa trẻ hoạt bát, thường xuyên giao lưu và có quan hệ với bạn bè ở trường học rất tốt, học lực và hạnh kiểm cũng tốt nhưng từ sau khi nhập cảnh và nhập học vào trường học tại Hàn quốc thì tâm hồn trong tác giả đã có những thay đổi theo hướng bất an. Sự tự tin giảm đi, không thể giao tiếp được bằng tiếng Hàn quốc là một trong những rào cản lớn nhất đối với tác giả, vì điều này mà tác giả thường xuyên sợ bị các bạn cùng

trường trêu chọc do đó càng ngày càng thu mình lại. Tác giả rất sợ việc phải nói bằng tiếng Hàn quốc trước mặt người khác. Đặc biệt việc không thể đuổi kịp tiến độ học ở trường khiến cho tác giả bị khủng hoảng tâm lý rất nhiều. Do đó tác giả là người đã từng trải qua những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với vị trí là một người đã từng là đứa trẻ nhập cảnh theo bố/mẹ người ngoại quốc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ác giả hiểu những khó khăn đó nên tác giả suy nghĩ sẽ phải hỗ trợ cũng như giúp đỡ những đối tượng là những đứa trẻ này để các em có thể thích nghi với cuộc sống tại Hàn quốc. Cho đến hiện tại tác giả vẫn gặp những khó khăn trong sinh hoạt tại Hàn quốc do những rào cản về ngôn ngữ. Vì thế tác giả hy vọng Chính phủ sẽ có thể xây những ngôi trường học dự bị hay tuyển thêm những giáo viên song ngữ có thể hỗ trợ cần thiết nhất cho các em.

Xã hội Hàn quốc cần phải vứt bỏ đi những định kiến về các em, không nên có suy nghĩ rằng phải giúp đỡ hay hỗ trợ các em do các em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áng thương mà nên có suy nghĩ rằng thông qua các em hãy tạo lên một xã hội Hàn quốc trưởng thành hơn nữa. Trong tương lai không ai có thể biết trước được những việc mà các em sẽ làm sẽ có ích như thế nào đối với xã hội. Nếu xã hội của chúng ta có thể giúp đỡ hỗ trợ các em phát triển đặc thù mọi mặt để hình thành bản năng dưới cương vị là một người Hàn quốc, song song với đó là bổ sung thêm bản năng của một người đã từng được sinh ra và lớn lên tại nước ngoài thì tác giả tin rằng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hỗ trợ có ý nghĩa nhất góp phần tạo lên những nhân tài phục vụ cho đất nước.

〈한글 기사 14면〉

강혜나 기자

“미얀마의 주권은 국민들의 손에 있다. 군부 쿠데타를 멈춰라”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부천모임, 미얀마 군사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지지 성명서 발표

군부 쿠데타 이후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는 미얀마를 지원하기 위해 부천에서 힘을 모았다.

‘미얀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부천모임(이하 부천모임, 대표 손인환)’은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부천시근로자 종합복지관 3층에서 미얀마 군사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김마웅 재한미얀마공동체 회장, 서영석 국회의원(민주당), 부천시민연합과 정의당 부천을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미얀마 이주민과 부천시민 등이 참석했다.

손인환 부천이주민센터 대표는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위해, 헌신해온 재한미얀마인들의 비통함을 함께 하며, 우리가 과거 경험했던 5.16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의 잔인했던 아픔과 고통이 미얀마에서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활동기금 모금 운동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에 미얀마의 민주화에 관심 있는 개인과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한미얀마공동체 관계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쿠데타의 경과보고에 나섰다.

그는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 지난해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군사반란을 일으

켰지만 반군부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됐다”며 “2021년 2월 22일에 총파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파이브투(22222, 5개의 숫자 2) 민주화항쟁’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마웅 재한미얀마공동체 회장도 발언에 나섰다. 마웅 회장은 최선을 다해 한국어로 미얀마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목소리는 다소 떨렸고 또 간곡했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많은 분들이 나서주셔서 감사하다. 더 많은 분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부천이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해 많은 기관에 요청한다. 유혈사태가 멈춰야 한다. 속히 미얀마가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쿠데타를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게 돼 안타깝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광주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미얀마에도 새 봄이 오기를 소망한다. 21세기에 자행된 쿠데타와 같은 비민주적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인사들의 지지발언에 이어 성명서가 발표됐다.

김봉경 부천이주민센터 실장 등 2인은 성명을 통해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비폭력 운동으로 전 세계에 군부의 잔혹함을 알리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하며 부천모임 또한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천모임 측의 성명서 요구사항 4가지가 행사장 내를 찌렁찌렁 울렸다.

“하나. 미얀마 군부는 군사 쿠데타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민간정부에 정권을 즉시 이양하라! 하나.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민간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즉시 석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 철회와 미얀마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입장을 표명하라!”

성명서 발표 뒤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함께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지만 미얀마 이주민들의 눈은 크게 흔들렸다.

부천에서 이날 성명이 발표된 것은 부천이 미얀마 이주노동자 활동의 중심지이며 재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이끈 캠프가 있기 때문이다. 민족민주동맹(NLD) 한국 지부가 부천에 있으며 한국정부가 인정한 난민들도 상당수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다.(관련 사진 1면)

송하성 기자



부천시, 수급가구 내 부모와 주거 달리하는 청년에 주거급여 별도 지급

2021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청년 분리 지급, 주거비 부담 완화

부천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2월 25일 현재 부천시 16,194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9만 원 이하)

인 가구이다.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지침에 따라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최소 3.2%, 최고 16.7%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7만1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힘든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은 “달라진 제도와 기준을 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부천시청 032-320-3000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327-1370 부천교육지원청 032-326-2108 부천여성의전화 070-7733-4995 행복가정폭력상담소 032-612-1366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부천고용지원센터 032-320-8900 범피신고 112 부천원미경찰서 1566-0112 간접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체계적인 취업 준비로 2021년엔 '워킹맘'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 교육과정 운영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라면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들에게 진로 설정과 장·단기 경력을 설계해주는 취업 지원 교육과정이다. 교육은 12월 8일까지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프로그램실에서 총 20차수로 연중 상시 운영하며 기본과정(5일, 20시간) 4차, 심화과정(2일, 12시간) 16차로 구성했다. 주제는 ▲나의 삶과 일(취업동기) ▲변화하는 세상(직업정보) ▲나의 특성 재발견 ▲성공 경단여성 ▲새 출발, 나의 직업 등이다.

심화과정은 과거 경력을 바탕으로 재취업하기를 원하는 지원자 대상으로 회차당 3일간 진행되며 ▲취업 희망 분야 살펴보기 ▲재취업 걸림돌 알아보기 ▲재취업 걸림돌 해결방안 찾기 순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육비 전액 무료, 수수료 발급, 수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사후관리,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2회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회차당 기본 10명, 심화 10명으로 선착순 방문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024-9865~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가족 함께 봉사하면 따뜻한 오산 오산건가다가, 모두한마음 봉사단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모두한마음 가족봉사단'을 모집한다.

모두한마음 가족봉사단은 가족 단위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의미 있는 가족 여가문화를 만들고자 매년 모집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봉사활동은 센터 교육관 및 오산시 관내에서 매월 1회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활동은 가족봉사단 기초소양 교육, 가족봉사단 자원봉사 활동, 가족봉사단 수료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모두한마음 가족봉사단은 다문화 가족 및 비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두한마음 가족봉사단은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곳의 봉사활동,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 센터 및 지역축제 행사지원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봉사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 19,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 **지급대상**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영업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전문예술인,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가구
- **기준일** 2021. 2. 3. 현재 오산시 주민등록을 둔 자, 영업중인 업소
- **지급금액** 각각 500,000원 (단, 개인택시 200,000원)
- **지급수단** 지역화폐(오색진)
- **신청방법** 비대면(인터넷 문서24 접수) 및 대면(각동 행정복지센터) *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상의 대상별 지급기준 및 서식 등 상세내역 확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단계	온라인 접수	기간	2021. 2. 9. ~ 2. 28.			
		인터넷 문서24 접수	주소 : https://open.gdoc.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자료업로드(신청서 등)			
2단계	현장 접수	기간	2021. 3. 1. ~ 3. 31. (09:00 ~ 18:00), (단, 토요일 09:00 ~ 17:00)			
		장소	각동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월	화	수	목	토
		1, 6	2, 7	3, 8	4, 9	5, 0
		(개인) 생년 끝자리, (소상공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단계	부서 접수	기간	2021. 4. 1. ~ 4. 30.			

■ 신청서류 각 대상별 지급기준 확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 ■ 지급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확인 지급(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 중복수급 불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중 중복
- 부정수급 환수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에서 지급됨으로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심사부류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사항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전문예술인	운수업계	확진자 가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대중교통과	보건행정과
8036-7572	8036-7554 8036-7559	8036-7613	택시 8036-7723 / 시내버스 8036-7826 마을버스 8036-7715 / 화물 8036-7821	8036-6228

2021년 모두한마음 가족봉사단 모집

- 봉사활동을 통해 가족간 대화와 단합을 원하시는 분
- 자녀들에게 봉사의 의미와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은 분
-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

* 가족봉사단을 신청해주세요~^^

- * 모집인원: 지역주민 20명(선착순 마감)
- * 모집대상: 오산시에 거주하는 초등3년 이상의 자녀로 구성된 2인이상 가족
- * 활동기간: 2021년 4월~ 11월 (월 1회 토요일 활동)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가족원 모두 자원봉사 1365포털(www.1365.go.kr)가입필수
 - 가족봉사단 활동 및 단체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자 가족 구성원 2인이상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 활동내용:
 - 돌봄과 나눔이 필요한 곳의 봉사활동
 -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

지원방법 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센터 이메일(happycenter@empas.com)로 발송

문의사항 가족지원3팀 031)377-9766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Вакцинация от короны, начиная с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бесплатная вакцинация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코로나 백신,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외국인주민 무료 접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 26 февраля начало вакцинацию против Corona 19. Что в этой ситуации будет с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Корее иностранными резидентами? Интересно, смогут ли они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вакцину от Corona 19.

Центр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Корее (KCDC) недавно объявил о том, что установлены принципы вакцин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 а именно «Лица, проживающие в течение длительного срока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вершило контракт на закупку вакцины для 79млн. человек, 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вакцины AstraZeneca и Pfizer будут вводиться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Центр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в Корее (KCDC) разработал подробный план вакцинации, разделяя его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 4 квартала.

■ 1 квартал (1,3 млн человек)

▲ Персонал и работники больниц для престарелых, учреждений для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престарелых ▲ Персонал

и работник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с повышенным риском, такие как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 Персонал и работники служб экстренного реагирования, такие как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и скор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 Персонал и работники учреждений по уходу за пациентами с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и расстройствам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и др.

■ 2 квартал (9млн. человек)

▲ Пользователи и работники соци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для пожилых ▲ Прививки в порядке очереди, начиная с пожилых людей от 65 лет и старше ▲ Работники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 аптек не подходящие на вакцинацию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 Персонал и работники учреждений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бездомных и др.,

■ 3 квартал (33,25млн. человек)

▲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 Граждане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64 лет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цев) ▲ Солдаты, сотрудники милиции, работники пожар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служб ▲ Работники учреждений

дет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 Четвертый квартал

▲ Лица для 2-й вакцинации ▲ Невакцинированные лица

Процедура вакцинац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ая же, как и для граждан страны. Тем не менее, лица проживающие в стран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короткого срока, такие как туристы и сезонные рабочие, находящие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согласно установленной политике «определения потребности в вакцинации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а защиты здоровья населения» в процессе рассмотрения конкретных деталей. Пока ещё н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вакцинации этих лиц.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и иностран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заявил: «У нас нет планов на приглашение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которые не смогли приехать в прошлом году из-за Corona 19.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приезда сезонных рабочих,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согласоваться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органами,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делать ли им вакцинацию или нет».

Между тем, 200.000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находящихся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я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управляемо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являются постоянными резидентами, которые после въезда в страну остаются на срок до 4 лет и 10 месяцев и имеют право на вакцинацию, поскольку он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Эта новость не может не порадовать, поскольку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акцину от Corona19 бесплатно.

А в случае брач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таких как женщин, состоящих в браке,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являются супругами граждан страны и так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систем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поэтому они могут пройти вакцинацию.

Кроме того, даже если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ли иностранцы были вакцинированы в своей стране, после въезда в Корею им необходимо пройти карантин (самоизоляцию) в течение 14 дне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равилами,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в Корее. <한글 기사 1면>

新冠疫苗、多文化家庭以及参加国民健康保险的外国居民免费接种。

韩国政府从2月26日开始接种新冠疫苗。在这种情况下,滞留在国内的外国居民会是什么情况呢?及他们能否接种新冠疫苗备受关注。

疾病管理厅最近表示,已确定对滞留在韩国的外国人也进行疫苗接种的原则,并将其对象确定为“长期滞留者并且加入国民健康保险的情况”。

目前,政府已签订了共购买7900万人份疫苗的合同,并计划在第一期引进“阿斯利康”和“辉瑞”疫苗。疾病管理厅将疫苗接种详细计划分为4个分期,介绍如下内容。

第一分期(130万人)

▲疗养医院,疗养设施住院,入所者,从业者▲治疗新冠患者的机关从业者▲保健医疗人员等高危医疗机构从业者▲逆学调查,救护队等前线应对人员▲精神疗养,康复设施机构等入所者,从业者

第二分期(900万人)

▲老人在家福利设施使用者,从业者▲65岁以上,从高龄者开始依次接种▲医疗机构及药店从业者第一季度的接种对象之外▲残疾人、露宿者等设施入所者,从业者

第三分期(3325万人)

▲成人慢性病患者▲成人18~64岁(含外国人)▲军人、警察、消防及社会开发设施从业人员▲儿童、青少年教育、保育设施从业人员

■第四分期

▲第二次接种者▲未接种者

外国人的接种顺序与韩国人相同。但是,由游客和法务部管理的季节性劳动者等短期滞留者将根据保护国民健康的原则判断其必要性并决定是否接种,目前正在讨论具体细节。也就是说,目前尚未决定是否为他们

接种疫苗。

法务部出入境外国人政策本部有关负责人表示:“今年也没有计划将去年因新冠病毒而未能来的季节劳动者带到韩国。但如果季节劳动者来,将与相关当局协商,判断是否接种疫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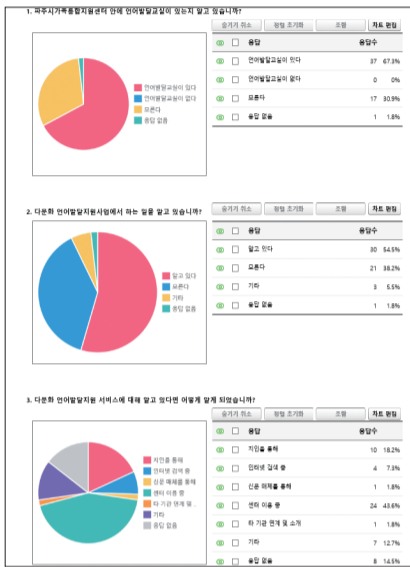
另外,根据雇佣劳动部管理的雇用许可制,20万名外国劳动者是入境后最长停留4年零10个月的长期滞留者,而且已加入了国民健康保险,因此属于接种对象。外国劳动者也可以免费接种新冠疫苗,这是一个好消息。

而且,像结婚移民者这样的结婚移民女性,大部分都是国民的配偶,而且还加入了国民健康保险,可以接种疫苗。

另外,在外同胞或外国人即使在本国接种疫苗,如果进入韩国境内,也要按照韩国规定的规定,进行14天的隔离。<한글 기사 1면> 양그나 기자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언어발달 맞춤교육 서비스 지원해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요구도 조사 등 실시



화와 니즈를 파악하고, 아동 중심의 맞춤 교육서비스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이돌봄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네이버폼 요구도 조사지 제작해 단체문자 링크 전송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에 응한 대상자는 다문화(49.1%) 및 일반 가정(45.5%)의 참여율이 비슷했으며 자녀 연령대는 0~7세 아동이 47.2%로 가장 많았다.

학령기 아동 중 저학년 아동은 20%, 고학년 아동은 14.5%로 학령전기 아동수보다 적었다.

지면 '참여 의사 없다'고 답했다. 특히 58.2%는 '대면활동이 더 좋다'로 답하여 온라인 비대면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 서비스 관련 요구를 묻는 말에서 '언어발달 촉진'(45.5%)을 위해 신청하겠다고 동기를 밝혔으며 그 외 아동기 발달 및 성장 촉진(23.6%), 자녀 양육 및 정보제공(7.3%), 읽기 및 쓰기 지도(7.3%)를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것으로는 듣고 말하기 능력(54.5%), 이야기 표현능력(21.8%), 어휘능력(9.1%) 순으로 꼽았다.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점으로는 전반적인 언어발달 향상(47.3%), 학교적응 및 자신감 향상(14.5%), 또래관계 증진(10.9%), 자녀의 심리.정서지원(10.9%) 등이다.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은 대다수가 '필요하다'(92.7%)고 답하였으나, 참여 여부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20%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언어발달 서비스, 대면활동 선호

요구도 조사 결과 언어발달교실의 여부 및 하는 일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언어발달교실이 있다/하는 일을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센터 이용 중'(43.6%)에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인 소개, 기타,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언어발달 서비스 요구는 65.5%가 상황이 심각해

#“언어발달 촉진 위해 신청” 밝혀

언어교육을 위해 센터에 방문하게 될 때 '이용자가 부모와 함께 내방하게 된다'(67.3%)고 답하였으며 활동 보조인과 동행(14.5%)하게 될 거라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기표현 및 구술 능력'(34.5%)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발음(18.2) 및 단어 습득능력(18.2), 읽기.쓰기 능력(12.7%) 순으로 답했다.

수업 형태는 필요에 따라 개별(1:1) 및 모둠 수업을 병행하길 원했으며 횟수는 주 2회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촉진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생애 초기 언어발달에 따른 교육 필요

이번 조사와 관련 센터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홍보의 필요성 및 언어 확장기에 있는 영유아기 아동, 학령전기 아동 적극 발굴, 서비스 신청자의 연령 하향으로 생애 초기 언어발달에 따른 아동 중심의 촉진교육 확보, 소그룹 부모교육을 대면 및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병행 기획함으로써 부모의 참여 및 접근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성심)는 센터 이용자 및 아이돌봄, 방문교육지도사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파주시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요구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5일~ 2월 10일 센터에서 이뤄졌으며 2021년 코로나-19 극복 이후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양육자의 사회적 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아돌봄 서비스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귀저기 갈기, 목욕 등 영아의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서비스 제공

시간제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이용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절차

정부지원 판정신청 (동주민센터)

판정통지 (우편, 문자) 국민행복카드 발급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이용자 승인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

돌봄미 연계 신청서 작성 및 배정

이용료 납부 서비스 이용

지인추천 이벤트 2개월에 한번씩 지인에게 아이돌봄사업을 추천하면 선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www.idolbom.go.kr
★ 연락처문의 031)949-9163 아이돌봄팀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인추천 이벤트

일시 : 03.02 - 03.31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인에게 추천하면 추천자와 신규이용자 두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1인 추천 1만원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선착순 5팀)

3인 추천 5만원권 온누리 상품권(선착순 1팀)

* 추천받은 분이 1회 이상 서비스 이용하셔야 인정됩니다
* 지인추천이벤트는 매월 진행됩니다
이벤트 신청 031-949-9163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국주기별 정보제공 다국어 6개 국어 확대

너의 폰에 마이지뉴스를 다운로드 받아줘

경기다문화뉴스 앱 '마이지뉴스' 개발!!!

다운로드 방법

step.01

안드로이드 - 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2

애플 - 앱스토어에서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한다.

step.03

검색 결과 확인 후 설치 버튼을 누르고 편리하게 어플을 사용한다.

경기다문화뉴스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생활 정보를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앱 '마이지뉴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경기다문화뉴스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읽어보세요.

더 많은 한국 사회와 복지, 생활, 취업, 교육, 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번역기사도 많아요.^^

경기다문화뉴스 홈페이지 www.danews.kr 도 방문해 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경기다문화뉴스 031-8001-0211로 문의하세요.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касающаяся подачи онлай-заявления на вторую выплату пособия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Шаг 1: Регистрация на сайте 경기도 지역화폐, и подача заявки.

Пользователи карты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же имеющуюся карту.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пособие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 выплачивается только через 경기지역화폐.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онлайн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личную карту 경기지역화폐.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на месте (посещение): Посетить один из основных филиалов Нонгхёп (농협중앙회) в городе или районе -> получение карты на месте - Иметь при себе сотовый телефон для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личности.

*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경기도지역화폐 : Приложение 경기도지역화폐 не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Скачать приложени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затем подача заявки на карту -> получение карты по почте -> регистрация карты в приложении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сайте 지역화폐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личности происходит по сотовый связи абонента.

Далее прилагается по шаговое фото:

1) В Play Store скачайте и установите приложение ?“경기지역화폐?.

2) Если вы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начните с регистрации.

3) Примите условия.

4) Введите свое имя (Ф.И.)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через ввод компании сотовой связи)

-SK: введите то же имя, что и в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карточке (айдикарте) иностранца (Заглавные буквы, пробелы).

-LG: введите то же имя, что и в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й карточке (айдикарте) иностранца

-KT: введите заглавные буквы, но удал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знаки (пробелы)

5) Ввод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номера иностранца (айдикатры).

6) Для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ввод компании сотовой связи абонента - в случае подключения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о паспорту онлайн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не может быть осуществлена.

7) Для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ввод компании сотовой связи абонента - в случае подключения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о паспорту онлайн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не может быть осуществлена.

/ Много случаев пользования каждой из компании сотовой связи 'Альтельфон' (в этом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알뜰폰/

8)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данных кликнуть 'Подтвердить'

- Если аутентификация прошла успешно, регистрация завершена

9)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карты

10) Выбор региона карты 지역화폐

Если Вы переехали после 19 января 21 года, то в будущем подача заявления на пособ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онлайн-приложение не возможна. В этом случае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подать только посетив центр жителей (чумин центр-주민센터)

11) После выбора карты (региона) введите адрес доставки

12)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ввода адреса карта будет доставлена ??обычно почтой в течение одной недели.

Шаг 2: Регистрация карты 경기지역화폐

* Поскольку полученная по почте карта не связана с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указанной в приложении 경기지역화폐,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карту в приложении.

1) [На главную] - [Мой кошелек] Выполнить

2) [Мой кошелек] - [Регистрация карты] Выполнить

3) Сканирование штрих-кода на обратной стороне карты. Регистрация завершена.

Шаг 3: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пособия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онлайн

*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1 апреля 21г. (четверг)~30 апреля (пятница)

* Ка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Домашняя страница- Пособ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утс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для запуска системы, запуск планируется с 1 апреля 9:00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сылку на главной странице "Пособие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 (Часы работы) 07:30~23:00

-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5"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следней цифры года рождения) 1 апреля ~ 9апреля

* Право на регистрацию онлайн

-Адрес проживания держателя 경기지역화폐 (на 1 января 21года)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е (родившиеся до 20 января 2002 года)

-Срок зако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не истёк.

외국인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만 지급합니다. 4월에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본인 명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경기지역화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경기지역화폐 회원가입 및 신청 지역화폐 소지자는 기존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 가능

* 방문신청: 농협중앙회 등 시군 판매대행점-카드 현장 수령-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을 지참합니다.

* 경기도지역화폐 앱에서 신청하기: 경기지역화폐 앱 다국어 미지원-앱 설치, 회원가입 후 카드 신청-카드 우편수령-

카드 앱 등록(지역화폐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 인증)

단계별 진행방법

1) Play 스토어 등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 및 설치합니다.

2) 기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시작합니다.

3) 약관 동의 합니다.

4) 이름 입력(본인 인증 통신사별 입력 기준 상이)

-SK: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입력 (대문자, 띄어쓰기)

-LG: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입력

-KT: 대문자로 입력하되 공백(띄어쓰기) 제거

5)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6) 휴대폰 본인 인증 위한 통신사 선택-여권으로 휴대폰 개통한 경우,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 온라인 신청 불가

7) 입력한 확인 후 “확인” 버튼-본인 인증에 성공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됨

8) 카드 신청하기

9) 지역화폐 카드 지역 선택

#‘21.01.19 이후 이사하여 전입지 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추후에 “재난기본소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합니다.

10) 카드선택 후 배송 주소 입력 합니다.

11) 주소 입력을 완료하면 1주 이내에 일반우편으로 카드 실물이 배송됩니다.

2단계: 경기지역화폐 카드 등록 하기

*일반우편으로 온 카드에는 본인정보가 매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홈-내 지갑 실행한다.

2) 내 지갑-카드등록 실행한다.

3) 실물카드 뒷면의 바코드를 인식하면 카드등록 완료 된다

3단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하기 / *신청기간: 21.04.01~04.30

*신청방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홈페이지 접속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4월 1일 9시 오픈 예정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링크 제공 예정

-(운영시간) 07:30~23:00
-(5부제 운영) 04.01~04.09
*온라인 신청자격 / -21.01.19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소지자
-성인(2002.01.20. 이전 출생자)
-체류기한 미 만료자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봄을 다채롭고 알차게 보낼 파주시 가족 위한 정보 "여기에~"

파주시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추진

파주시와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파주시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인 추천 이벤트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인 추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영아종일제(생후 36개월 이하),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만 12세),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이벤트는 아이돌봄사업을 지인에게 추천하고 추천받은 지인이 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 시 추천자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1인 추천 시 선착순 5팀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인 추천 1팀에 5만원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문화가족도 적극 참여해 불만하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비대면 운영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는 ▲보건 ▲복지 ▲일자리 ▲금융 ▲법률 ▲주거 등 6개 분야의 전문가가 전화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한다. 갑작스러운 실직, 생계의 어려움, 신체 정신적 건강 악화, 우울증, 채무 조정, 법률상담, 주거복지 안내 등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이 진행된다.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대형폐기물 수거, 모바일 앱으로 신청

파주시가 3월 1일부터 '㈜같다'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대형폐기물 수거신청 앱 '빠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폐기물을 외부로 운반하기 힘든 노약자 또

는 1인 거주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용을 추가 납부하고 '내려드림' 서비스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건강한 삶, 온라인 운동교실 스타트로

파주시보건소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함께하는 온라인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온라인 운동교실은 모바일 앱 밴드를 활용해 성인 1개 반, 어르신 1개 반으로 운영된다. 운동강사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근력운동, 라인댄스, 건강체조 등 운동영상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 참여자들의 미션 인증, 운동 참여 댓글과 운동 강사의 실시간 방송 이벤트 등으로 참여자와 강사의 재미있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함께하는 온라인 운동교실은 3월 2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10시에 운동 영상이 제공되며 강사가 직접 문자메시지로 초대장을 전송해 모바일 앱 밴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기타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940-5563, 5591)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วัคซีนโควิด ฉีดวัคซีนฟรี 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นฮากาจอง และ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รัฐบาลเริ่มฉีดวัคซีนป้องกันโควิด 19 เมื่อวันที่ 26 กุมภาพันธ์ จะเกิดอะไรขึ้น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นี้? พวกเขาจะสนใจว่าจะได้รับวัคซีน Corona 19 หรือไม่

ศูนย์ควบคุมและป้องกันโรคแห่งเกาหลี (KCDC) เพิ่งประกาศว่าได้กำหนดหลักการให้ฉีดวัคซี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เช่นกัน และ เป้าหมายคือ " ผู้อยู่อาศัยระยะยาว และ ผู้ที่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ศูนย์ควบคุมและป้องกันโรคแห่งเกาหลี (KCDC) เพิ่งประกาศว่าได้กำหนดหลักการให้ฉีดวัคซี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เช่นกัน และ เป้าหมายคือ " ผู้อยู่อาศัยระยะยาว และ ผู้ที่สมัคร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ขณะนี้รัฐบาลได้ทำสัญญาจัดซื้อวัคซีนสำหรับประชากรทั้งหมด 79 ล้านคนและคาดว่าจะมีการเปิดตัววัคซีน AstraZeneca และ Pfizer ในไตรมาสแรก ศูนย์ควบคุมและป้องกันโรคแห่งเกาหลี (KCDC) แนะนำแผนการฉีดวัคซีนโดยละเอียดโดยแบ่งออกเป็นสี่ในสี่ส่วน

■ไตรมาสที่ 1 (1.3 ล้านคน) ▲โรงพยาบาลพยาบาล, การรับสมัคร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ที่อาศัยอยู่, คนงาน ▲เจ้าหน้าที่สถาบันที่รักษาผู้ป่วยโควิด 19 ▲คนงานใน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สูง เช่น เจ้าหน้าที่ดูแลสุขภาพ ▲ผู้เผชิญเหตุ

รายแรกเช่นการสอบสวนทางระบาดวิทยาและแพทย์ ▲พื้นที่จิตใจสถานพักพิง ฯลฯ ผู้อยู่อาศัยและคนงาน

■ไตรมาสที่ 2 (9 ล้านคน) ▲ผู้ใช้สถานสงเคราะห์ผู้สูงอายุและคนงาน▲การฉีดวัคซีนตามลำดับตั้งแต่อายุ 65 ปีขึ้นไปผู้สูงอายุ▲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และร้านขายยาที่ทำงานไม่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ฉีดวัคซีนในไตรมาสแรก▲สิ่งอำนวยความสะดวกสำ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คนงาน เช่น คนพิการ และ คนจรจัด

■ไตรมาสที่ 3 (33.25 ล้านคน) ▲ผู้ใหญ่ที่ป่วยเป็นโรคเรื้อรัง▲ผู้ใหญ่อายุ 18 ถึง 64 ปี (รว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ทหารตำรวจคนงานในสถานพัฒนาสังคม▲เด็กการศึกษาเยาวชนคนงานดูแลเด็ก

■ไตรมาสที่ 4 ▲ผู้ที่ฉีดวัคซีนครั้งที่ 2 person ผู้ที่ไม่ได้รับวัคซีน

ขั้นตอนการฉีดวัคซี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เหมือนกับชาวเกาหลี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ผู้อยู่อาศัยระยะสั้นเช่นนักท่องเที่ยวและคน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ซึ่งบริหารโดย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กำหนดนโยบาย " กำหนดความจำเป็นในการฉีดวัคซีนตามหลักการปกป้องสุขภาพ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และ ทบทวน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ฉพาะ ยังไม่ได้มีการตัดสินใจว่าจะฉีดวัคซีนหรือไม่ เจ้าหน้าที่ประจำสำนักงานนโยบาย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คนต่างด้าวของ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ล่าวว่า" เราไม่มี

แผนที่จะนำคน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ที่ไม่ได้มาในปีที่แล้ว

เนื่องจากโควิด 19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หากคน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มาเราจะปรึกษากับ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เพื่อ พิจารณาว่าจะได้รับการฉีดวัคซีนหรือไม่"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200,000 คนภายใต้ระบบใบอนุญาตการทำงานที่บริหารโดย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จ้างงานและแรงงานเป็นผู้อยู่อาศัยระยะยาวซึ่งพำนักอยู่ได้นานถึง 4 ปี 10 เดือนเมื่อพวกเขาเข้ามาในประเทศและมีสิทธิ์ได้รับการฉีดวัคซีนเนื่องจากพวกเขาได้รับ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ใน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 ถือเป็นข่าวดีเนื่องจาก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รับวัคซีน Corona 19 ได้ฟรี

และในกรณีของสตรีที่ย้ายถิ่นฐานเพื่อแต่งงาน เช่น ผู้อพยพที่แต่งงานแล้วส่วนใหญ่เป็นคู่สมรส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และ ยังได้รับ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ในประกันสุขภาพแห่งชาติ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ฉีดวัคซีน

แม้ว่าชาวเกาหลีโพ้นทะเลหรื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ได้รับการฉีดวัคซีนใน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ของตนพวกเขาจะต้องถูกกักกันเป็นเวลา 14 วันตามกฎหมายที่กำหนดขึ้นในเกาหลีเมื่อพวกเขาเข้าสู่เกาหลี

<한글 기사 1면>

이아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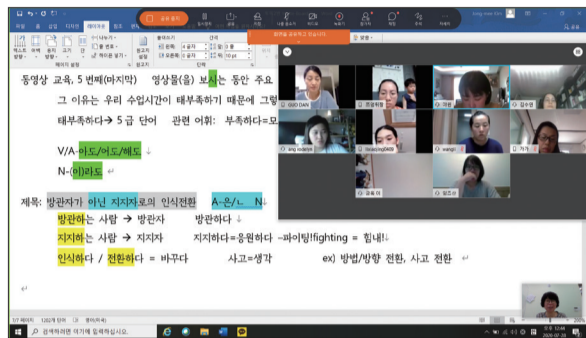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파주시청 031-940-4114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49-9164 한국다문화복지협회 031-941-195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031-960-9310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49-82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쌍방향 소통 '온라인 한국어교육' 자신감 UP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대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함에 따라 지난 2월 15일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을 개강했다.

한국어교육 수업은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어 수업 과정은 취업 준비 한국어교실,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실, 토픽 읽기반, 토픽 쓰기반, 토픽 듣기반, 중도입국자녀반 등의 목적별 한국어수업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한국어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수업은 각 반의 미팅 주소를 통해 핸드폰 또는 노트북을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위 단계의 온라인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 소통을 하며, 1:1 피드백과 과제 제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박성희 센터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사와의 쌍방향 소통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집합이 어려울 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하는 한국어교육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으로 ‘마음 쑥! 꿈 쑥!’을 진행한다.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대상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정체성, 사회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되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아동 8명 대상이다.

참가자는 3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받으며, 초기상담, 부모-자녀 관계향상(8월, 11월), 미래설계(4~6월 총 11회), 사회성발달(9~11월 총 12회) 사업 등이 진행된다.

김영의 기자

“군포시 좋은 부모를 찾습니다” 군포시, 좋은부모되기 운동 진행



군포시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군포시 좋은부모’를 추천받는다.

좋은부모되기 운동 7대 강령을 포함해 좋은 부모 추천서를 작성해 보내주면 된다. 부모 본인 또는 추천인의 부모나 배우자 등이면 추천 가능하며 추천인 및 추천대상 중 1명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다. 좋은부모 추천서, 추천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gunpo.familynet.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이메일(gunpomfc@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좋은부모되기 운동 7대 강령은 ▲좋은 부모는 부모 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등 7가지다.

김영의 기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더 돌아보고, 더 안아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웃간 거리는 멀어졌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동학대 예방의 시작은 **관심**과 **신고**입니다.

1. 아동학대란?

신체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정서학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아동 학대

성학대

성인이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 부적절한 성적 행동

방임 및 유기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며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2. 아동학대 신고 국번없이 112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이럴때 신고해주세요"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개별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군포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신규이용자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선착순 50명)
기간: 2021. 2. 1. ~ 3. 30.까지
*이벤트 종료 시 일괄 제공

서비스 주요 내용

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지원
(만 3개월~만 36개월)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small>*대상: 법정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ex. 수족구, 수두, 독감, 눈병 등)</small>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목욕 등 영아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제외)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제공, 놀이활동 등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가사제외, 차량승영서비스 불가)	

아메리카노

문의: 가족돌봄팀(031-392-1816)

주소 아이돌봄지원사업(www.idolbom.go.kr)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中途入国子女とは? 우리 곁에 중도입국자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國際結婚、多文化家庭という言葉はよく聞いたことがあるだろう。しかし中途入国青少年という言葉は耳にしたことがあるだろうか。結婚移民者のうち、韓国人配偶者と再婚し、以前の結婚で生んだ子どもを韓国に連れてくるケース。國際結婚家庭の子どもで、両親の本国で成長し学齡期に再入国するケース。外国人勤労者が入国後一定期間がすぎてから本国にいる子どもを連れてくるケース、脱北女性または男性が、外国人配偶者との間に第3国で出生した子どもを連れてくるケースなど、中途入国青少年は多様だ。現在は韓国に入国する中途入国青少年の年齢が下がる中、中途入国青少年より中途入国子女と呼ぶ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中途入国子女は一般的な多文化家庭の子どもたちとは明らかに違う。国内出生多文化家庭の子どもの大部分は本人が韓国人だと思っている。彼らは韓国で生まれ、韓国語を使って生活するため、韓国人だ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持っている。反面、中途入国子女の場合は、韓国国籍では

なく出生国家の国籍を持っており、帰化試験を受けて韓国国籍を取得するケースが多い。そのため本人が生まれ育った国に対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が相対的に韓国よりは大きい。また韓国の言語と文化、生活に不馴れだ。しかしながら中途入国子女たちは韓国に定着するつもりで韓国に入国する。そして外見や韓国語の訛りによって差別を受け、疎外感を感じることもある。

韓国人だ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があっても発音の差により、外国人扱いされる。またアイデンティティが確立する前の学齡期に差別を経験し、どこにも居場所がないという疎外感により、アイデンティティの混乱と不安を感じる。筆者もそうだった。

韓国に来る前は活発な性格で交友関係も良く、勉強にも関心があったが、韓国の学校に入学してからは精神的に不安定になった。自信がなくなり、韓国語ができないため、失敗したりからかわれないように言葉数も少なくなった。人前で話すのが怖かった。特に学校生活に適応できず、成績

も悪くなり精神的な影響が大きかった。

そこで筆者は韓国に中途入国して成長した経験をもつ者として、中途入国子女が韓国生活に適応し定着できるよう、社会的な配慮と福祉支援が必要だと考える。

筆者は今まで中途入国子女として韓国で生活し、言葉でたいへん苦勞した。そのため中途入国子女が韓国語を学ぶことができる予備学校が全地域に設立され、二重言語教師の採用を増やすべきだと考える。

韓国社会は中途入国子女に対する偏見と先入観を捨て、彼らをかawaii(可愛い)な人間扱いしてはいけない。むしろ彼らを通じてより成熟した社会に発展していく機会としていくべきだ。彼らが今後韓国でど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いくか期待される。中途入国子女が韓国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し、生まれ育った国のアイデンティティも保てるように手助けすることで、韓国社会の大きな社会的資源となるだろう。〈한글 기사 14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군포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및 사회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부모·자녀 관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와 부모,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 8가족(부모, 자녀)을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초기상담’ 후 ‘미래설계’ 프로그램이 4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11회기 진행된다. 11종 직업에 대해 직업 이해 및 실습 체험이 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부모-자녀 관계향상’은 8월 17일, 11월 26일 2회기로 진행된다. 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부모-자녀 연극

놀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향상을 도우며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다.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은 9월 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센터 내에서 보드게임 4회기, 전통놀이 4회기, 전래놀이 4회기 등 총 12회기 운영될 예정이다. 무료며 참가 신청은 전화(031-395-1811) 또는 방문 접수한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베트남어 통번역서비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 및 문화차이, 입국초기에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 초기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 통역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 체류관련 정보 및 사업 안내
-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교육과정 통역 지원
- 행정, 사법기관,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및 공공기관 이용 지원

지원언어 베트남어(베트남어 외에 다른 언어는 타 센터와 연계하여 번역 가능)

대상 군포시거주 다문화 가족

이용안내

- 통번역의 경우 사전 예약 필수
-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센터 방문 및 전화접수 가능

문의 : 031-392-1811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마음속! 꿈속!”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대상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및 정체성·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기 상담

부모-자녀 관계향상
8월, 11월(2회)

미래설계
4~6월
주1회/11회

사회성발달
9~11월
주1회/12회

모집

모집대상 : 초등학교 재학 다문화아동 8명

모집기간 : 2020.3. 2~4.9 (선착순, 모든 수업 참여 가능한지 우선)

교육장소 : 센터 내 / 온라인

접수방법 : 전화 또는 방문

문의 : 031.395.1811, 담당: 유해권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TIẾNG VIỆT

TRUNG TÂM GIA ĐÌNH ĐA VĂN HÓA SỨC KHỎE GIA ĐÌNH THÀNH PHỐ GUNPO
Cung cấp dịch vụ thông biên dịch miễn phí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hay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để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phát sinh khi mới nhập cảnh,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và cuộc sống sinh hoạt.
Rất mong được nhiều sự quan tâm của mọi người!

NỘI DUNG

- Hỗ trợ thông dịch về sự khác biệt giữa văn hóa, sinh hoạt, giao tiếp trong gia đình khi mới nhập cảnh.
- Hỗ trợ định cư cho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 cung cấp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quốc tịch, thời gian lưu trú... Hướng dẫn tìm việc làm.
- Hướng dẫn các thông tin về đời sống sinh hoạt như mag thai, sinh con, nuôi dạy con... Tư vấn về giáo dục
- Hỗ trợ khi sử dụng thông, biên dịch tại cơ quan tư pháp, hành chính, bệnh viện, trạm y tế, sở cảnh sát, trường học và các cơ quan công cộng

NGÔN NGỮ Tiếng Việt
(Ngoài tiếng Việt, để đáp ứng nhu cầu của mọi người trung tâm có hỗ trợ thêm các ngôn ngữ khác thông qua kết nối với các trung tâm khác)

ĐỐI TƯỢNG Gia đình đa văn hóa đang cư trú ở thành phố GUNPO

ĐĂNG KÝ

- Hẹn trước
- Từ thứ hai đến thứ sáu 9h-6h
- Điện thoại đăng kí hoặc trực tiếp đến trung tâm

문의 : 031-392-1811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โฉมเพจของสวัสดิการผู้ใช้แรงงาน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④ 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กอง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 ๙1355)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ศัยอยู่ในเกาหลีจำเป็นต้องสมัคร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ตามกฎหมายเกี่ยวกับคนเกาหลี 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มีนโยบายเพื่อสำรองเงินเลี้ยงชีพในยามที่ประสบ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ในอนาคต เช่น โรคภัยไข้เจ็บ ความแก่ชรา ความพิการ ความยากจน ฯลฯ ผู้มีอายุตั้งแต่ 18-60ปีบริบูรณ์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ได้ หลังจากนั้นจะต้องจ่ายเบี้ยประกันตามระยะเวลาที่กำหนดและจะได้รับค่าตอบแทนเมื่อมีอายุ 65ขึ้นไป หากเป็นผู้ที่ทำงานสมัครปานาญคนทำงาน หากไม่มีงานทำก็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ปานาญท้องถิ่น

แต่ก็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างรายที่ไม่มีหน้าที่ต้องสมัคร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ตามกฎหมาย เช่น ผู้ดำเนินการอบรม, นักเรียนต่างชาติ, นักการทูต เป็นต้น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างคนที่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ไม่ต้องสมัคร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เนื่องจากประเทศดังกล่าว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ได้ทำสนธิสัญญาร่วมกับ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ดังนั้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ง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ให้แน่ชัดว่าตนเองมีคุณสมบัติตามสัญญาหรือตามประเภทวีซ่าได้เป็นผู้ที่จำเป็นต้องสมัคร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หรือไม่ สำหรั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สามารถสอบถามด้วยตนเองได้ที่กอง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ทุกสาขา หรือโทรสอบถามสายด่วนกอง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๙1355)

④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๙1355)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고,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에 의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해당국의 연금에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도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국가별 가입 대상이 되는지, 체류자격별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๙1355)로 문의하세요.

ช่วงอายุที่มีสิทธิ์รับ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				
เกิดปี1953-56 1953-56년생	เกิดปี1957-60 1957-60년생	เกิดปี1961-64 1961-64년생	เกิดปี1965-68 1965-68년생	เกิดปี1969 1969년생~
61ปี 61세	62ปี 62세	63ปี 63세	64ปี 64세	65ปี 65세

- ▶ ประเทศที่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ไม่ต้องสมัครปานาญแห่งชาติ(22 ประเทศ)
จอร์เจีย, ไนจีเรีย, แอฟริกาใต้, เนปาล, สาธารณรัฐ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ติมอร์(ติมอร์ตะวันออก), มาเลเซีย, มัลดีฟส์, พม่า, บังกลาเทศ, เวียดนาม, เบลารุส, ซาอุดีอาระเบีย, สิงคโปร์, สาธารณรัฐอินเดีย, เอธิโอเปีย, อิหร่าน(ตามข้อตกลงการประกันสังคม), อียิปต์, กัมพูชา, ตองกา, ปากีสถาน, ฟีจี
- ▶ 국민연금 사업장·지역 적용 제외국(22개국)
그루지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동가, 파키스탄, 피지

⑤ 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ประกันค่าเดินทา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 ประกันการบาดเจ็บ(บริษัทประกัน : ซัมซุงประกันภัยและภัยทางทะเล) **สมัครโดย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보험회사 :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 가입**

⑤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

ประกันการ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เนื่องจากครบวาระ, ประกันค่าแรง(บริษัทประกัน : ซัมซุงประกันอัคคีภัยและภัยทางทะเล, โซลประกันค่าประกัน) **สมัครโดยนายจ้าง**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보험회사 :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사용자 가입**

▶ ประกันค่าเดินทา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 ประกันการบาดเจ็บ : สมัครโดย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

ประกันค่าเดินทา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เป็น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ทำงานผ่านระบบอนุญาตทำงาน ซึ่งต้องการเตรียมเงินค่าเครื่องบินกลับประเทศประกันประเภทนี้ต้องสมัครกับบริษัทประกันโดยตรงภายใน 3 เดือนตั้งแต่วันเริ่มทำงาน เบี้ยประกันที่ต้องจ่ายคือประมาณ 4แสน-6แสนwonซึ่งอาจจะมากกว่านี้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ตามแต่ละประเทศ สามารถแบ่งจ่ายได้สูงสุด 3 ครั้ง ประกันการบาดเจ็บเป็นประกัน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ที่อาจเสียชีวิต, ได้รับความเจ็บ, เกิดโรคภัยไข้เจ็บต่างๆทั้ง

▶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 가입

우선 귀국비용보험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시 필요한 항공료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계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40~60만원으로 국가별로 상이하며, 3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제해 이외의 사망 또는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ได้เกิดจากการทำงาน ต้องสมัครภายใน 15 วันนับตั้งแต่วันที่สัญญาจ้างมีผลบังคับใช้ เบี้ยประกันเปลี่ยนแปลงไปตามอายุ, เพศ, ระยะเวลา ดังนั้นควรปรึกษากับบริษัทประกันโดยตรง

▶ ประกันการ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เนื่องจากครบวาระ, ประกันค่าแรง : สมัครโดยนายจ้าง

ประกันการ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เนื่องจากครบวาระเป็นประกันที่นายจ้างสมัครเมื่อได้จ้างลูกจ้า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ระยะเวลาทำงานเหลือไม่ต่ำกว่า 1 ปี ทั้งนี้เพื่อเตรียมเงินไปเหนี่ยวนำสำหรับลูกจ้างเมื่อสิ้น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 นายจ้างต้องสมัครกับบริษัทประกันโดยตรงภายใน 15 วันนับตั้งแต่วันที่เริ่มจ้างลูกจ้างคนดังกล่าว โดยจะต้องจ่ายเบี้ยประกันเป็นเงิน 8.3% ของค่าจ้างทุกเดือน เมื่อ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ออกจากงานหลังจากที่ได้ทำงานไม่น้อยกว่า 1 ปี สามารถยื่นเรื่องขอรับเงิน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ด้ตั้งแต่ 11เดือนก่อนวีซ่าหมดอายุ หลังจากนั้นจะได้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ภายใน 14 วันนับตั้งแต่วันที่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ประกันค่าแรง คือ ประกันที่นายจ้างผู้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ด้าวเตรียมรับมือกับการจ้างชำระค่าแรงเนื่องจากกิจการล้มเหลวหรือปิดกิจการ ซึ่งต้องสมัครภายใน 15 วันนับตั้งแต่วันที่เริ่มจ้างลูกจ้างคนดังกล่าว ผู้ใช้แรงงานที่ได้รับการประกันประเภทนี้จะได้รับเงินทดแทนสูงสุดไม่เกิน 2 ล้านบาทเมื่อมีการจ้างชำระค่าแร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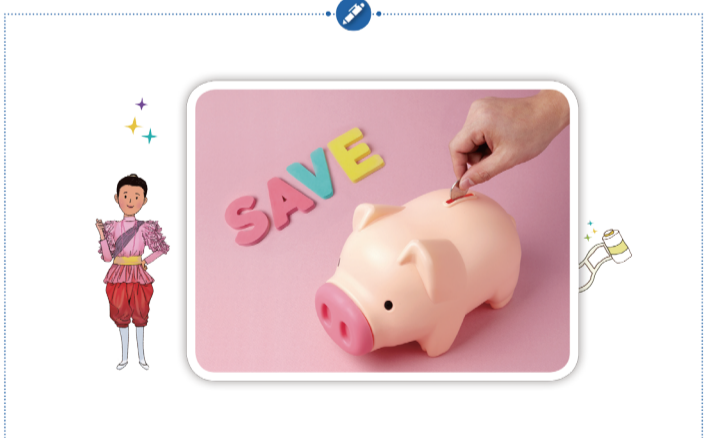
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연령, 성별, 보험기간에 따라 다르니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 사용자 가입

출국만기보험은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매월 통상 임금의 8.3%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คู่มือบริหารการเงิน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ฉบับภาษาไทย
外国人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 : 태국어 편

เตรียมตัวเพื่อนาคนด้อยางชาญฉลาด - การออมทรัพย์และประกันภัย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 저축과 보험



นโยบายรับรองเงินฝากของรัฐบาล
정부에서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มีกฎหมายคุ้มครองผู้ฝากเงินโดยบริษัทประกันเงินฝากจะให้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เงินฝากรวมดอกเบี้ยสูงสุด 50ล้านwon/คน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ส่วนหนึ่งคิดว่าหากนำเงินไปฝากไว้ที่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แล้วหาก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ล้มละลายก็จะทำให้ไม่ได้รับคืนก็เลยเลือกที่จะเก็บเงินไว้ที่บ้านแทนการเอาเงินไปฝากไว้ที่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 แต่ใน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ถึงแม้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จะล้มละลายรัฐบาลก็ยังให้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กับเงินฝากและดอกเบี้ย ดังนั้นจึงสามารถนำเงินไปฝากไว้ที่สถาบันการเงิน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กังวล แต่ผลิตภัณฑ์ประเภท หุ้น หรือ กองทุน โดยส่วนใหญ่เป็นผลิตภัณฑ์ที่ไม่ได้รับการคุ้มครองจากรัฐบาลจึงอาจทำให้เกิดการสูญเสียได้ ดังนั้นจึง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ให้ดีก่อนทำการสมัคร

한국에서는 가계의 인정을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의 경우 금융회사에 돈을 맡겼을 때 금융회사가 파산한다면 원금을 손에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현금을 집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고 있으니 믿고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주식, 펀드와 같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금융상품 가입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中途入国子女, 他们是谁?

很多人都听说过跨国婚姻, 多文化家庭。

但是‘中加入国青少年’这句话会不会让人感到陌生呢? 结婚移民者与韩国配偶再婚, 将之前结婚所生子女带来韩国的情况; 跨国婚姻家庭子女在父母本国长大并在学龄期再入境的情况; 外国劳动者入境后过一段时间再把本国子女带来韩国的情况; 脱北女性或男性将在外国配偶之间出生的子女带回韩国等, 指的是‘中途入国青少年’的情况很多。

目前, 随着进入韩国的中途入国青少年的年龄下降, 比起中途入国青少年来说, ‘中途入国子女’叫法日益明显。

中途入国子女与通常认识的多文化家庭子女有着明显的区别。普通的国内多文化家庭子女认为自己是韩国人。这些孩子都是在韩国出生的, 他们说着韩国语, 有着韩国人的自我统合。

相反, 中途入国子女的情况是, 拥有出生国家的国籍, 而不是韩国国籍, 通过入籍考试获得韩国国籍的情况较多。

因此, 对自己出生并成长的国家的自我统合相对来说比韩国要大, 因此韩国的语言、文化、生活都感到生疏和不便。但大部分中国子女以定居韩国的心态进入韩国。

尽管如此, 他们经常因为异国外貌和不自然的韩国语而感到歧视感和排斥感。

即使拥有‘韩国人’的自我统合, 但由于发音含糊不清, 被视为‘外国人’。

更何况, 由于在尚未确立自我统合的年龄就受到歧视, 而且没有归属感, 并感到被排斥, 对自我统合产生了混乱和不安。笔者也是如此。

来韩国之前, 我性格活泼, 对校友关系也不错, 对学业也有兴趣, 但进入韩国学校后情绪开始不稳定。

因为缺乏自信, 不会韩语, 所以害怕失误或被嘲笑, 话也少了。害怕在人前讲话。特别是因不适应学校生活而造成的学业落后, 一来二去, 影响到情绪部分。

因此, 笔者认为, 作为在韩国有中途入国子女成长经验的人, 为使中途入国子女能够很好地适应韩国的生活并在韩国定居, 应该给予社会上的照顾和福利上的支援。

笔者到目前为止, 作为中途入国子女, 在韩国生活, 因为语言问题吃了很多苦。因此, 希望在所有地区设立能够让中途入国子女学习韩国语的预备学校, 并增加双语教师的聘用。

韩国社会不应抛弃对中途入国子女的偏见和成见, 不要把他们视为需要帮助的可怜的对象。

反而应该把这些孩子当作是通过这些孩子实现向更成熟的社会发展的机会。不知道他们今后在韩国会起到什么作用, 会有什么帮助。如果能够帮助中途入国子女确立韩国人的自我统合, 并帮助其形成正在成长的国家的自我统合, 将成为对我国有很大帮助的社会资源。 <한글 기사 14면> 왕그나 기자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해야”

정대운 도의원, 독도역사수호대마도반환포럼과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독도역사수호대마도반환포럼 회원들과 함께 일본 ‘다케시마의 날’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대회를 22일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명대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통일미래연대 심수연 부장의 사회로, 정대운 도의원을 포함해 포럼 임원진 김영일, 박세진, 김명호, 손대호 회원, 청소년 대표회장 염지윤 광문중학교 학생, 대학생 대표회장 이상현, 포럼 여성대표 이경숙, 오정옥, 김은정 회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역사수호대마도반환포럼은 독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독도 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NGO 단체로서, 이번 성명대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여 2013년부터 매년 차관급 인사를 행사에 참석시키는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성명대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고 정복수 할머니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하여, 정현호 성악가와 함께 ‘독도 홀로아리랑’을 합창했다.

정대운 의원과 임원진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회장 염지윤 광문중학교 학생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부터 우리의 영토임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학생 이상현 대표회장은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급급해 전방위적으로 일삼고 있는 일방적 무역 관계 파괴 등의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대표단은 “일본 정부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말까지 점령지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를 위해 강제 동원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지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에 대한 우리 회원을 비롯한 국민은 한마음으로 일본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대마도를 즉각 반환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글로벌 해외홍보마케터 광명동굴 웰커머 6기 모집

모집기간: 2021.2.2.(화)~3.15.(월) (기한 연장)

지원자격

광명시 거주자 중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자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

우대사항

-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자로 활동을 희망하는 외국어 인재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동자

모집절차

서류마감 ~ 3/15 면접 3월중 합격 3월중

활동내용

- 외국인 및 펍투어 단체에게 광명동굴 외국어 해설
- SNS 매체에 광명동굴 외국어 홍보글 게재 등

활동예탁

- 광명동굴 웰커머(6기) 위촉장 수여
- 자원봉사 활동비(15,000원/시간)

지원방법

첨부된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swchoi@gmuc.co.kr로 제출 ☎ 문의 02.2610.2014

‘글로벌 기업 온라인 취업 멘토링’

취업을 고민 중인 다문화가족이라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3월 10일 개최하는 ‘글로벌 기업 온라인 취업 멘토링’에 참여해보자.

이번 행사는 아마존, 구글, 테슬라, 기아, 쿠팡 등 글로벌/대기업 현직자 12명이 실시간으로 취업특강, 온라인 모의면접, 취업패널 Q&A, 소그룹 취업 멘토링을 직접 강의하는 것으로 직무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무료 화상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취업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5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www.gm.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센터(02-2680-62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광명 다문화가족에 유익한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 확인해요”

한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다문화가족 등 법률상담,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등



한국어 교육 수강생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는 한국어 교육은 1~4단계반과 토픽반, 주말반 등이 개설된다.

1~2단계 기초반은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총 49회 98시간을 교육한다. 3~4단계 지역문화활용반은 3월 5

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총 49회 98시간을 교육한다.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토픽반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총 30회 60시간을 교육한다. 7월 11일 토픽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주말반은 취업을 위한 한국어 과정으로 2, 3단계가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총 20회 60시간을 교육한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이전부터 알찬 교육으로 정평이 나 있어 꼭 한번 들어볼 만하다.

다문화가족 등 법률상담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청 종합민원

실 내 ‘법률상담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법률상담터에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상담을 맡고 있으며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상담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과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터는 최근 3년간 민사 962건, 가사 475건, 형사 195건, 구조알선 354건, 법률문서 작성 348건 등 총 2,169건의 법률상담을 처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차별 없이 소외 없이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법률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다 함께 잘 사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경기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적 취득 다문화가족들은 3월 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광명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오프라인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 세정제, 1회용 장갑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출생연도별 현장 접수일이 다르니 해당 날짜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다만 3월 29일~4월 30일 사이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신청도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은 4월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광명시 콜센터 1688-3377

김영의 기자

광명도시공사, 광명동굴 다국적 홍보단 '웰커머' 15일까지 6기 모집 연장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광명동굴의 다국적 홍보단(자원봉사자)인 ‘광명동굴 웰커머(welcome) 6기’ 모집을 오는 3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더 많은 외국어 능통자에게 직업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됐다.

모집 대상은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과 외국어가 가능한 한국인으로 전공이나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광명시 거주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말레이어 등의 외국어 구사자이다.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특히 기타 외국 언어에 능통한 사람은 우대 혜택을 받는다.

웰커머로 선발되면 ▲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국내외 팸투어** 단체에 광명동굴 외국어 해설, ▲광명동굴 문화행사 참석 후 체험 후기 SNS 홍보, ▲SNS 매체에

광명동굴 외국어 홍보글 게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웰커머들에게는 광명동굴 홍보단 위촉장이 수여되며 광명동굴 팸투어 진행 등 관광 실무 경험을 쌓고 광명동굴 문화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웰커머는 재능기부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진행되지만, 활동기간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광명동굴 및 광

명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메일(swchoi@gmuc.co.kr)로 신청하면 되며, 웰커머 모집 관련 문의는 광명도시공사 동굴기획팀(02-2610-2014)으로 하면 된다.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은 “이번 연장 모집이 광명시 외국어 재능자 분들의 많은 지원으로 광명동굴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Korean Language Education

한글 교육

- 일정** 3월 ~ 7월
- 대상**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
- 교육과정** 1~4단계 / 토픽반 / 주말반
- 교육방식** 온라인 교육(Cisco Webex 활용)
-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02-6265-1366)

반별 일정
다음페이지 확인

신규 회원 신청 안내

1. 센터 전화 후 방문일정 조정 (26일 금, 10:30 / 14:30 중 선택)
2. 센터 방문하여 회원등록

*기존 회원은 전화 접수

문의 ☎ 02-6265-1366(담당자 장원희)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MISSION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행한다
We work together for the healthy and happy life of diverse families

CORE VALUE

- 01 다양성 존중
- 02 공감과 소통
- 03 연대와 협력

VISION

-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며 아우러지는 광명시
- 가족이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이끄는 광명시
-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맞춤형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광명시

한글 교육

상반기 교육과정 안내

기초반 (1, 2단계) 3/5(금)~6/30(수) 매주 월, 수, 금 13:00-15:00 총 49회, 98시간	지역문화활용 (3, 4단계) 3/5(금)~6/30(수) 매주 월, 수, 금 10:00-12:00 총 49회, 98시간
토픽반 3/15(월)~6/30(수) *7기 토픽시험 응시가능 매주 월, 수 13:00-15:00 총 30회, 60시간	주말반 (취업을 위한 한국어) 3/13(토)~7/24(토) 매주 토 10:00-13:00 *2단계, 3단계 운영 총 20회, 60시간

*반배정 기준
배치평가 점수 or 20년도 수료단계

토픽 3,4급 대비반, 한국어 3단계 이상자 수강 가능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와 김포시나눔복지센터 김포푸드뱅크(대표이사 이우배)가 지난 2월 25일 뜻깊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을 위한 참된 동반자로서 다양한 개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나눔복지센터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발생한 후원식품 등을 기탁받아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나눔복지센터 측은 나눔으로 지역사회의 결식문제를 해소하는데 협조하기로 했으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김포 관내 취약 위기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제공하는데 있어 대상가정의 발굴과 전달, 사례관리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같이 협약을 통한 실질적 약속 이행이 담보된 것이다.

김연화 센터장은 “이번 푸드뱅크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 위기가정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을 연계해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가족역량강화사업, 다문화사례관리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게 되어 김포 관내의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가족들의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지원 추진 3월 접수 최대 1,250만원 지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180억8,7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655대, 전기화물차 443대를 확대 보급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시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을 합쳐 최대 1,25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기준 24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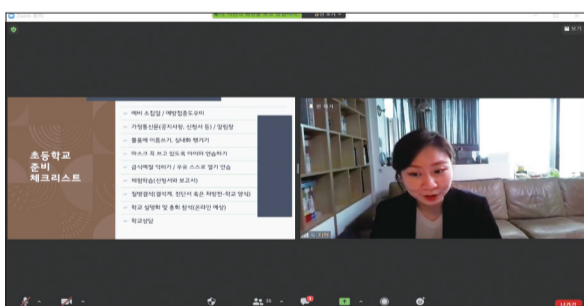
접수 신청은 3월 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구매 신청자가 제조 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 판매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김포시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 등이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다. 만약 구매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 대상에서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5186-4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학교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및 부모의 역할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비초등학생 부모교육’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2월 24일 예비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줌(ZOOM)을 활용해 ‘예비초등학생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박지현 박사(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에 앞둔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로 가정에서만 지내고 있는 자녀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입학정보 제공 및 교육 관련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의 역할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비학령기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으

로 △학령기 아동의 발달특성과 발달과제 △학령기 아동의 부모역할 △초등학교 준비 체크리스트 △원격수업 제대로 준비하기 등의 주제로 상황리에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코로나19로 원격수업에 어려움이 많고 어떻게 자녀를 지도하여 학교생활을 적응시켜야 할지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서 교육부 지침에 따른 초등학교생활 준비방법 및 체크리스트, 원격학습지도법을 배우게 되어 정말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는 생애주기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의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족특성에 따른 부모됨의 의미,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부모-자녀간 관계형성 방법, 자아존중감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역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다양한 개인 및 부모 대상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031-996-5920, 5923 이지은 기자

김포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재가입 개인형이동장치 등 보장 범위 확대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1년 02월 24일 00시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PM) 단체보험을 작년 이어 재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할 자전거 단체보험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없이 자동 가입되어, 김포시 관내뿐 아니라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타지역에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PM)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PM)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PM)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작년과 다른 점은 “개인형이동장치(PM)”까지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PM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유형 전동킥보드, 영업목적(배달대행 등),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행(2인 이상 탑승)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시 최고 1,5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이지은 기자

Что означает <сторонник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초기 입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돕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에 대해

Почти в каждом городе по Кёнгидо есть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Помимо курсов по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этих центрах предоставляют различные услуги и поддержку.

Среди них я хотела бы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один из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 сторонни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Что означает сторонник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которые уже долгое время проживают в стране, являясь сторонникам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выезжающим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м: регистрация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запись на программы; услуг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устный и письменный перевод и т.д. Это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мощь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стабилизацию безопасной жизни в Корее в целях создания совместног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ства?.

Цель этого проекта - посредством деятельности стороннико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испытывающим трудност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проживающим в данном районе, для безопасной реабилитации в Корее.

Цель:

-Знакомство с новыми брачными иммигрантами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и семьями, а так же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при первоначальных трудностях проживания.

Расширить доступ к различной поддержке и информации, касающихся брач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мощь в решении бытовых проблем и нужд.

Глав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проекта:

1) С помощью стороннико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регистрация в центре, помощь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ограммах, услуги в бытовой жизни, содействие в создании безопас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таких услуг как: сопровождение при посещени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больницы и т.д. Данные услуги особо востребованы, такие услуги оказывают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мощь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ользователей.

2) Благодаря данному проекту, сторонники, как опытные брачные иммигранты, знакомясь с въехавшими новыми брачными иммигрантами помогаю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центре и оказывая помощь в дальнейшем могут оказать примером для подражания.

3) В отличие от обычных услуг устного / письм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сторонни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являются старшими брачными иммигрантами, поэтому пользующиеся их услугами, чувствуют себя равными и близкими.

А так же можно ожидать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и расширение круга общ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для 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вторую выплату базового дохода во время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 Кёнгидо,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к сторонника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говорящих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и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на сайте 지역화페(подачи заявки на получение карты).

Надеюсь да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полезна для только прибывших брачных иммигрантов и вы воспользуетесь данной услугой. Подробнее узнавайте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здоровой семьи*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в вашем городе.

경기도에는 거의 모든 시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 아주 주요한 서비스를 뽑자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발굴하여 초기정착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생활 지원 및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의 주요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포터즈 사업을 통한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의 센터 회원가입 연계, 프로그램 연계,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에 기여합니다. 그 중 생활지원 서비스(행정관서, 병원 등 이용 및 각종 생활 안내) 이용량이 제일 높으며,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서포터즈는 선배 이민자로서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를 발굴해 센터에 연계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후배 결혼이민자는 선배 결혼이민자로부터 바람직한 모델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일반 통번역 서비스와 달리 선배 결혼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에 동질감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대상자의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상담 및 지역화페 회원가입, 카드 신청 등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서포터즈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초기 결혼 이민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거주 도시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0

장울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이제, 콜톡하세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 실생활 질병상담 및 감염병 신고
-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 발신자 부담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 전화뿐만 아니라 카톡 문자상담까지!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영유아 위한 신체활동 에어바운서 놀이체험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몸튼튼 마음튼튼” 공동육아나눔터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2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1회당 5명 이하로 이용자를 모집해 오전과 오후 2회씩 총 10회기 동안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기상어 에어바운서’를 대여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월 상시프로그램 신체활동 ‘몸 튼튼 마음 튼튼’ 일환으로 마련됐다.

매월 4회 주 1회로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은 오감놀이, 그림책 통합놀이, 신체활동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임을 숙지하여 이용자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발열 체크와 방역수칙 및 안전규칙을 준수하며 공동육아나눔터 내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이번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부모-자녀가 함께 증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가 키즈카페로 변신하여 영유아들이 동요소리에 맞춰 율동도 하고 에어바운서 미끄럼틀을 오르고 내리며 안전하고 신나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한 이용 어린이의 부모는 “방학기간 중 가정에서 심심해 하는 아이들과 외출해 에어바운서에서 아이들이 신나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고 힐링이 된다”며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고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동육아나눔터 3월 상시프로그램 및 초등돌봄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된다. 신청은 센터홈페이지(gimpo.familynet.or.kr) 및 전화접수(031-997-5921 공동육아나눔터)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김포시새마을회, 코피노 아이들에 구호품 전달 지역사회 의 혼신 노력

김포시새마을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주 새마을회관에서 김포시새마을회가 후원하는 코피노 아이들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구호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아진 구호품은 김포시새마을회 각 단체 및 읍면동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수건, 치약, 샴푸, 비누, 후원금 및 위덴치아랑(주)(대표 후원정)가 후원한 칫솔 600개를 코피노 커뮤니티 이경재 대표에게 전달했다.

코피노는 한국인(Korean)과 필리핀인(Filipino)의 혼혈을 뜻하는 합성어로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자녀를 의미하며, 한국 남성들이 현지에서 낳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지 않아 극심한 가난과 냉대 속에 자라는 등 필리핀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김미경 회장은 “이번 구호품이 코로나19 극복에 어려움을 겪는 코피노 가정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위생용품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지난해 마스크에 이어 이번 위생용품 모으기에 솔선수범해 주신 회장님과 새마을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여성가족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GIMPO 김포시 2021-캠페인-02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안내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참여방법
왕초보	13시~15시 3.15 개강		13시~15시 3.15 개강				센터 내 교육실 1,2 또는 ZOOM 병행
초급	10시~12시 3.15 개강		10시~12시 3.15 개강				
중급 1	10시~12시 3.15 개강		10시~12시 3.15 개강				
중급 2		10시~12시 3.16 개강		10시~12시 3.16 개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성 시 변경가능
토익 준비반		10시~12시 3.16 개강		10시~12시 3.16 개강			
고급반		13시~15시 3.16 개강		13시~15시 3.16 개강			*신청 후 교육장소 개별안내
토요반						10시~14시 3.20 개강	

● 대상 :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 & 김포시 결혼이주민
 ● 수업기간 : 2021. 3. 15. ~ 2021. 12. 30
 ● 신청시기 : 2021. 2. 26 ~
 ● 신청방법 : 수시접수 / 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배치평가, ZOOM 활용교육)
 ● 비용 및 교재 : 무료(각 반별 교재는 개별구입 후 수업참여)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4로 564 (구래동, NH한가람마을 2단지 내)
 ▷ 전화: 031-996-5920, 031-996-5923 (사회복지사 함재운)

여성가족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GIMPO 김포시 2021-캠페인-02

좋은 부모 행복한 자녀

건강가정 선언문

- 가족구성원 모두 가정생활운영에 함께 참여한다.
- 하루에 한번 이상 서로를 꼭! 칭찬한다.
-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는다.
- 시가, 처가와 동등한 관계를 맺는다.
- 소비·가정의례·여가생활을 간소화하여 건강한가정문화를 정착시킨다.
-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함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
-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 모든 폭력에 대항한다.
- 가정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을 근절하도록 한다.
- 나누고 참여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다.
- 건강가정, 건강사회가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한다.

좋은 부모 캠페인 : 7대 과제 (Good Parents Campaign)
 출처: 새 가정문헌연구회(가정연구소)

- Pride** 우리는 부모 된 것이 자랑스럽다.
- Acceptance** 우리는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모가 되겠다.
- Responsibility** 우리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겠다.
- Empowerment**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부모, 지역사회,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한다.
- Neighborhood**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 이웃과 함께 하겠다.
- Time together**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부모가 되겠다.
- Security** 우리 자녀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기도 김포시 한강4로 564 LH 구래동, 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
- Tel 996-5920 가족상담 996-5921 아이돌봄지원사업팀 996-5922 Fax 996-5924
- 경기육아나눔터 : 고촌도서관 5층 어린이자료실 내 997-5921
- 공동육아나눔터 : 구래동 NH한가람마을 2단지 아파트 내 997-5921
- 다문화가족통로교류공간 : 통진도서관 1층 다문화자료실 & 다가온 내 070-4108-4965

따뜻한 3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족 즐거움도 '활짝'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과 지역공동체 등 대상 운영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봄이 시작되는 3월, 과천시 관내 다양한 가족 및 지역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사진은 코로나 이전 한국어교육 모습)

#다양한 교육으로 풍성한 '봄'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과천시 관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소중한 우리, 행복한 성 "소행성"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역 내 학교, 관공서 등과 연계해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성교육 강의, 성폭력 예방 인형극 등이 진행된다. 1회 20명 대상이다.

예비, 신혼부부 교육 "둘만의 러브 스토리"도 3월 27일부터 4월 10까지 예비,신혼부부 6쌍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부부 심리검사를 통한 나와 배우자 이해, 임신 및 출산 이해 교육, 부부 소통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3월 3일~ 3월 22일까지 받는다.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어교육은 오는 3월 2일~12월 3일 개최될 예정이며 연중 상시모집한다. 교육과정은 기초 한국어교육인 ▲기초단계(금 10시~12시), 자녀학습지도 한국어교육, 취업 교육 지도 한국어교육, 토픽 읽기 한국어교육, 토픽 듣기 한국어교육, 지역문화 한국어교육, 특수심화반인 ▲초급단계(화·목 오후 1시~3시) ▲중급단계(수·금 10시~12시) ▲심화단계(수·금 오후 1시~3시)가 각각 진행된다. 신청은 방문 신청받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02-503-0070)로 하면 된다.

#가족이 함께 사랑 키우는 '봄'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가족사랑의 날 1 "가족과 함께 봄봄봄"과 가족사랑의 날 2 "우리 가족 사랑 DAY~"가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과천시 관내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가족 대상이며 참여 신청은 3월 2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가족과 함께 봄봄봄"은 장미 비누꽃 부케 만들기,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진행되며, "우리 가

족 사랑 DAY~"에서는 사랑 목걸이 만들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담을 원하는 개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이 연중 진행된다. 개인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가 이뤄지며 수시로 접수한다.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사례관리'도 수시로 신청받아 연중 진행된다.

'가족사례관리'는 개인과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 지원 및 대처 능력 강화와 심층상담 및 필요자원 연계 등이 이뤄진다.

#마을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레미안슈르, 부림동)를 운영한다. 레미안슈르, 부림동 인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월~금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접수는 완료됐다.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숙제 지도, 도서 및 학습 공간 이용, 급간식 지도, 요일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긴급돌봄도 운영 중이다. 가족 간 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가족품앗이'도 2월에 이어 3월에도 진행된다. 2~13세 자녀를 둔 30가정 대상이며 월 4회 활동이 진행된다. 그룹별 놀이 및 체험 품앗이 활동과 부모의 양육 효능감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활동 교육, 전체 프로그램이 이뤄진다. 김영의 기자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21년 3월 프로그램 계획

사업명	일시	접수 기간	대상	인원	내 용	비 고 (사업구분)
가족상담	연중	수시	상담을 원하는 개인 및 가족	-	· 개인 및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놀이치료	연중	수시	놀이치료가 원하는 유아동	-	· 유아동 심리정서지원, 사회성 발달 및 적응 관련 놀이치료	가족관계
가족사례관리	연중	수시	도움이 필요한 관내 거주 가족 (다문화가족 포함)	-	· 개인 및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당면한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문제 해결 지원 및 대처 능력 강화 · 심층상담 및 필요자원 연계 등	가족돌봄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 (레미안슈르/ 부림동)	월~금 학기 중 (13:00~19:00)	접수완료	인근 거주하는 초등학생	레미안슈르 15명, 부림동 15명 (*긴급돌봄 운영)	·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숙제지도, 도서 및 학습 공간 이용, 급간식 지도, 요일별 프로그램 · 긴급 돌봄 운영 중	가족돌봄
예비·신혼부부 교육 "둘만의 러브 스토리"	3월 27일 ~ 4월 10일	3월 3일 ~ 3월 22일	관내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예비·신혼부부	6쌍 12명	· 부부 심리검사를 통한 나와 배우자 이해 · 임신 및 출산 이해 교육 · 부부 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
가족사랑의 날 1 "가족과 함께 봄봄봄"	3월 17일 ~ 22일	3월 2일 ~ 3월 14일	관내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가족	20가족	· 장미 비누꽃 부케 만들기 ·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사랑의 날 2 "우리 가족 사랑 DAY~"	3월 17일 ~ 22일	3월 2일 ~ 3월 14일	관내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가족	10가족	· 사랑 목걸이 만들기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소중한 우리, 행복한 성 "소행성"	3월~12월	수시	관내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성인	1회/ 20명	· 지역 내 학교, 관공서 등 연계 기관 모집 · 성교육 강의, 성폭력 예방 인형극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품앗이	월 4회 활동	2월~3월	2~13세 자녀를 둔 가정	30가구	· 가족 간 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성 향상(그룹 별 놀이 및 체험 품앗이 활동 시행) · 부모의 양육 효능감 향상(역량 강화 교육, 활동 교육, 전체 프로그램 시행)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한국어 교육

- 교육기간 : 2021년 3월 2일 ~ 12월 3일 (예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모집
- 교육내용

한국어반	교육과정	운영시간	강사
기초단계	· 기초한국어교육	금 10:00~12:00	황남영
초급단계	· 자녀학습 지도 한국어 교육 · 취업교육 지도 한국어교육	화·목 13:00~15:00	이미란 A
중급단계	· 토픽 읽기 한국어교육 · 토픽 쓰기 한국어교육	수·금 10:00~12:00	이미란 B
심화단계	· 토픽 듣기 한국어교육 · 지역문화 한국어교육 · 특수심화반	수·금 13:00~15:00	남연우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503.0070

다문화가정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필요한 3가지 프로그램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과 이중언어교육, 부모교육 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글로벌 아이, 행복한 가족’을 연중 운영한다. 영유아 및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만 12세 이하)를 둔 다문화가족과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등이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이 인지발달 및 사회, 정서적 발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부모 나라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은 가족 내 양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으로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코칭 등 4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문화가정 스스로가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1~7세 부모자녀 10명을 대상으로 연간 센터에서 5회기, 각 가정에서 5회기 진행되며 이중언어 부모코칭은 6회기 진행된다.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은 6~7월에 5회기, 7~8월에 5회기 등이 운영되고 가족코칭은 월 5회 자율운영할 계획이다.

아동 이중언어교육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에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교육도 운영한다.

다문화가정 아동 이중언어교육은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이중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측은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1~6학년 5명씩 8개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어 초급반은 3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월, 수요일 150회기 운영되며 중국어 중급반은 화, 목요일 4월 1일부터 10월 28까지 100회기 운영된다. 중국어 고급반은 토요일에 4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30회기 운영된다. 베트남어 초급반은 화, 목요일에 3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3회기 운영되며 베트남어 중급반은 화, 목요일에 3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3회기 운영된다.

참가 학생들은 부모 출신국 언어의 읽기, 쓰기, 말하기 익히기 등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기 부모교육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4회기 동안 아동기 부모교육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학습 과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디지털 학습 격차를 줄여 아이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3월 22일에는 초등 교과과정의 이해에 대해, 29일에는 초등 디지털 학습의 이해에 대해, 4월 1일에는 자녀 양육과 놀이 방법에 대해, 2일에는 자녀 등교시 필요한 방역물품 만들기 등에 대해 배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니 얼른 지원하면 좋겠다. 문의 031-8045-6392 송하성 기자

김성수 경기도의원, 여성인권 향상과 자립 지원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안양1)이 26일(금)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안양여성의전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지역의

여성인권 향상과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자립, 자활 등에 힘을 보태왔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위원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와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이미라 소장 등이 경기도의회를 직접 찾아 김성수 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여성인권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면서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성수 부위원장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2021년 아동기 부모교육

슬기로운 학교생활

-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20명(선착순 모집)
- 일정: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아래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3/22 15:30-17:30 초등 교과과정의 이해 선민희 (초등교사)	3/23	3/24	3/25	3/26	3/27
3/29 15:30-17:30 초등 디지털 학습의 이해 선민희 (초등교사)	3/30	3/31	4/1 10:00-12:00 자녀 양육과 놀이 방법 이지영 (서양대 교수)	4/2	4/3
4/5	4/6	4/7	4/8	4/9	4/10

자녀를 위한 방역용품 만들기
4/5-4/10 기간 내 가정에서 진행 후 활동지 제출
*센터 방문을 통한 재료 수령

- 비율: 무료
- 접수: 홈페이지 내 신청 또는 전화
<https://anyang.familynet.or.kr>
- 문의: 교육상담팀 031-8045-6392

다문화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 사업

♥글로벌 아이, 행복한 가족♥

장소: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 방법: 전화신청
문의: 이중언어코치 조위페 031-8045-5710
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만 12세 이하)를 둔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구분	일시	대상	시간	진행방법	장소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1차 10회	03.29-05.01	09:00-11:00	(월,수) 10시-12시	5회기 중 2회기 생애주기
	2차 10회	05.12-06.16	08:12:00-10:00	(월,수) 14시-16시	
	3차 10회	06.24-07.27	09:00-11:00	(화,목) 10시-12시	
	4차 10회	08.03-09.02	08:12:00-10:00	(화,목) 14시-16시	
	5차 10회	09.15-10.25	09:00-11:00	(월,수) 10시-12시	
	6차 10회	11.01-12.01	08:12:00-10:00	(월,수) 14시-16시	
이중언어 부모교육	8회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참여부모 대상 25시간씩 부모교육 실시			부모교육 센터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1차 5회	6월 7월	부모-자녀 10명	25시간	센터내 2회기 중 1회기
	2차 5회	7월 8월	부모-자녀 10명	25시간	가정내 2회기 생애주기

*비밀을 원하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추가된 실시운영

*비고사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참여하는 가정 희망하는 가정은 가족 초빙 또는 가정 방문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1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대상: 초등학교 재학중 다문화가족 자녀
*일반가정 자녀 참여가능

장소: 각 가정 (zoom 사용 온라인 진행)

내용: 중국어, 베트남어 이중언어 교육
(일반가정 자녀 참여 통합반 운영)

문의: 담당자: 이중언어코치 조위페 031-8045-5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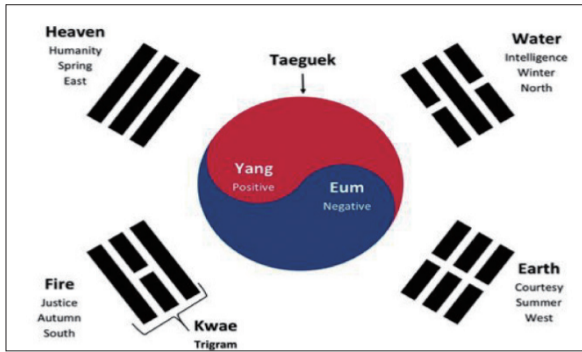
*주의사항: 일반가정 자녀 참여 가능한 통합반 운영 시 다문화가족 자녀 50% 이상 참여 진행 (한반 5명기준으로 일반가정 자녀 2명 참여 가능)
*교육부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은 수혜자와 중복지원 불가

각각의 시간표

구분	반별	시간	기간	회기	이원수	교육방법
중국어	초급1반	월,수 14:00-15:00	3.29-11.3	50	5명 기준	각 가정 내 zoom 사용 온라인 교육 진행
	초급2반	월,수 15:00-16:00		50	5명 기준	
	초급3반	월,수 17:00-18:00		50	5명 기준	
	중급1반	화,목 16:00-17:00	4.1-10.28	50	5명 기준	
	중급2반	화,목 17:00-18:00		50	5명 기준	
	고급반	토 10:00-12:00		30	5명 기준	
베트남어	초급반	화,목 14:00-15:00	3.31-11.4	53	5명 기준	
	중급반	화,목 15:00-16:00		53	5명 기준	

국호, 국기, 국악과 자연의 진리 표현한 대한민국의 국기 및 국호, 국가에 대하여

평화로운 민족성과 자연의 진리 표현한 대한민국의 국기 및 국호, 국가에 대하여



Những dự định về quê quây quần cùng gia đình đón Tết cổ truyền của các bạn đang xa xứ là một điều quá là khó khăn trong thời điểm hiện tại. Do đó chúng ta lại có thêm một năm nữa đón Tết tại Hàn Quốc—một đất nước cho chúng ta không chỉ những ước mơ trong tương lai mà còn cả những khó khăn trong đời sống sinh hoạt cá nhân. Như vậy, để đảm bảo cuộc sống lâu dài tại đất nước Hàn quốc này chúng ta không những phải biết giao tiếp bằng tiếng Hàn quốc mà còn phải tìm hiểu thêm cả những đặc thù trong văn hóa của đất nước này.

Trước thềm năm mới 2021, mời các bạn hãy cùng chúng tôi tìm hiểu thêm về những tính đa dạng cơ bản nhất của đất nước Hàn Quốc này nhé!

Như các bạn đã biết, tên hay còn gọi là Quốc hiệu của đất nước này chính là Đại Hàn Dân Quốc, trong tiếng anh được viết với kí hiệu là KOREA(The Republic of Korea). Vậy chắc hẳn các bạn cũng đã biết đến Quốc kì của Đại Hàn Dân Quốc rồi chứ ạ? Đó chính là Thái Cực Kỳ.

Những đặc điểm chính của Thái Cực Kỳ đó chính là Nền trắng của quốc kỳ tượng trưng cho sự tinh khiết, tính đồng nhất và tinh thần yêu chuộng hòa bình của dân tộc Hàn quốc. Trong lịch sử, dân tộc Hàn quốc

có truyền thống mặc áo trắng và được gọi tên là dân tộc Bạch y. Bởi vậy màu trắng cũng được xem là màu biểu tượng cho dân tộc Hàn Quốc. Điểm bắt mắt nhất khi nhìn vào quốc kỳ của Hàn quốc đó chính là Thái cực lưỡng nghi trên lá cờ. Vòng tròn ở giữa lá cờ được chia làm 2 nửa hình bán nguyệt đối xứng với nhau gồm màu xanh và màu đỏ có dạng như lốc xoáy. Màu xanh là biểu tượng của Âm, tượng trưng cho sự hy vọng. Màu Đỏ tượng trưng cho Dương, chỉ sự tôn quý. Vòng tròn Âm Dương này tượng trưng cho sự hài hòa giữa thụ động và bị động, giữa giống đực và giống cái cùng tạo lên một tổng thể. Thái cực là căn nguyên của vạn vật trong vũ trụ, là khởi nguồn của sinh mệnh con người. Nó là sự tuần hoàn vĩnh cửu không bao giờ dứt.

Bốn quẻ trên quốc kỳ biểu hiện cho sự biến đổi và phát triển không ngừng của vạn vật.

Ý nghĩa của 4 quẻ này được định nghĩa như sau:

- Quẻ Cản(건): Tượng trưng cho Trời, mùa Xuân, phương Đông và lòng nhân từ.
- Quẻ Khôn(곤): Tượng trưng cho Đất, mùa Hè, phương Tây và sự ngay thẳng hào hiệp
- Quẻ Khảm(감): Tượng trưng cho Mặt trăng, mùa Đông, phương Bắc và sự thông thái
- Quẻ Ly(리): Tượng trưng cho Mặt trời, mùa Thu, phương Nam và lễ nghĩa.

Quốc kỳ Hàn quốc—Thái Cực Kỳ tượng trưng cho sự uy quyền và sự tôn nghiêm, thể hiện truyền thống và ý tưởng của Quốc gia qua màu sắc và hình dáng đặc trưng riêng. Như vậy Thái Cực Kỳ là tượng trưng cho sự trường tồn mãi mãi, cho hy vọng và hòa bình.

Các bạn đã từng nghe qua Quốc ca của Hàn quốc chưa ạ? Tên bài quốc ca của Hàn quốc là Ái Quốc ca. Lời bài hát có lẽ đã được sáng tác tại lễ khởi công của

công trình Cổng Độc Lập tại Seoul và năm 1896 bởi Yun Chi Ho hay bởi An Chang Ho, một nhà chính trị và nhà giáo dục theo tư tưởng độc lập khỏi đế quốc Nhật bản.

Ban đầu, Ái quốc ca được phổ nhạc dựa trên nền nhạc của dân ca Tô Cách Lan là bài Auld Lang Syne, vốn được các nhà truyền giáo Hoa kỳ phổ biến. Sau đó, Chính phủ lâm thời đại hàn dân quốc tại Thượng hải đã chọn bài hát làm quốc ca của nước Triều tiên độc lập. Vào ngày lễ quốc khánh đầu tiên của Hàn quốc, ngày 15 tháng 8 năm 1948, bài hát chính thức được công nhận làm quốc ca Hàn quốc, với giai điệu mới do An Eak-Tae sáng tác.

Lời tiếng việt được dịch như sau:

"Dù Đông Hải khô cạn, núi Bạch Đầu mòn, Trời sẽ bảo vệ chúng ta, Tổ quốc muôn năm!

Cây thông trên đỉnh Nam Sơn đứng vững vàng trong sương gió như thể được mang giáp, tinh thần quật khởi của chúng ta cũng như vậy.

Trời thu trong xanh, cao ngàn dặm, không một bóng mây, trăng sáng ở trong tim ta vẫn vẹn nguyên một hình hài.

Với tinh thần và trí óc, hãy trao lòng trung thành của chúng ta. Yêu đất nước dù trong gian lao hay hạnh phúc.

Sông núi hoa lệ dài ba ngàn lý mọc đầy hoa dâm bụt, người Đại Hàn mãi đi trên con đường Đại Hàn, hoàn toàn là giang sơn của chúng ta."

Đầu năm mới, chúng ta kết thúc bài tìm hiểu cơ bản nhất về đất nước Hàn quốc, trong những bài tiếp theo chúng tôi sẽ giới thiệu với các bạn những chủ đề khác liên quan về đất nước Hàn quốc nhé.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가족 중 한 명의 코로나 검사가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킵니다

안양시장, 취약아동 가정에 서한문 발송 'D-3 한 가족 한 명 검사받기' 운동 참여 당부



안양시가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D-3 한 가족 한 명 검사받기' (이하 D-3운동) 운동을 펼치고 있다.

취학아동을 둔 가정으로서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학기 3일 전까지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 19 검사를 받아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2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약아동 4,545명의 가정을 대상으로 D-3운동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안양시가 밝혔다. 최 시장은 서한문에서 D-3운동은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가족들 건강을 위함이라며 학부모 가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 시장은 또 교육부가 초등학교 1·2학년생의 상시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일정을 발표했다는데 이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와 학습결손 문제를 보완하고, 사회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그러면서 각 학교에 감염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현재 안양역광장과 삼덕공원, 범계역광장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 앞광장 등 만안과 동안구 지역 각 두 곳씩 총 4개소에서 코로나19 무료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기준, 평일 오후 5시까지이고 주말은 오후 1시까지다. 시민누구나 이곳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이지는 기자

100만 대도시 위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살고 싶은 행복도시 화성, 다문화 직업훈련 등 정책 마련 눈길



화성시는 시의 인구가 100만 대도시를 향해 가고있는 가운데 살고싶은 행복도시 화성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화성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했다.

화성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여성가족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등 인구정책 추진 관련 18개 부서의 팀장 28명으로 구성된 ‘화성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실시했다.

5개 분과(저출산분과, 보육·교육분과, 일자리분과, 고령사회분과, 정주의식분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은 성장해가는 가장 젊은 도시 화성과 살고 싶은 도시 이미지

구현을 위해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내놓았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인구절벽 시대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관련 혜택을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맘에 좋은 화성 다자녀 카드’의 발급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우대 시설 모집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화성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출생축하 선물세트 배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가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예비부모교육 지원, 빈집 리모델링 후 신혼부부임대,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운영 등 다양한 대안과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사업과 다문화 직업훈련 등 인구증가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노인평생교육 강화와 건강증진사업,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화성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살고싶은 행복도시 화성시”로 발돋움하도록 인구정책과 더불어 실무추진단을 활발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결식 아동에 6개월치 도시락 제공

화성시가 결식아동 돕기를 위해 행복얼라이언스 등과 손을 잡고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행복두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 행복얼라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차로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인 에스에프에이, 본아이에프와 협약을 맺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화성시가 도움이 필요한 결식 아동을 발굴하면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만든 도시락을 배달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내 결식아동 약 100여 명에게 6개월간 1주일 5식 기준 총 132일 치의 도시락이 제공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가 없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시를 시작으로 더 많은 지자체들이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얼라이언스는 102개의 기업과 화성시를 포함 8개의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결식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혹시 주변에 결식아동이 있다면 화성시청에 연락하면 좋겠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상황 고려해 국내 체류 동포와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한다

방문동거 비자, 출국 못한 비전문취업 외국인 등 계절근로 참여시 다양한 혜택 부여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37개 지자체가 각 농가 및 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

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 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농작물과 수산물 업종에서 3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 시행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가오는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을 제때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어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어 18면, 베트남어 21면>

이지은 기자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в Корее снова онлайн? 새학기, 아이들은 어떻게?

초중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등교생은 중학교 1/3, 고교 2/3 기준 유지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процесс обучения во всем мире претерпел масштабные изменения, понятия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и "онлайн-уроков" становятся привычным явлением нашей современной жизни. Что же ждет нас и наших детей в наступающем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который в Корее начнется 2 марта?

Сегодня, 23 февраля, на сайте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ёнгидо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информация о распределении и посещаемости учащихся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начальных,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школах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2021 учебный год. Как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на сайте, с 1 сентября 2021г. во всех дошкольных, начальных, средних и стар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Кёнгидо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правила 2 этапа социализации. Посещаемость школ будет по принципу распределения учеников 1/3 (старшие школы 2/3), возможная максимальная концентрация 2/3.

Также в каждой начальной и средней школе решение приведения принципа концентрации 2/3 2 этапа социализации может быть принято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и со школьным советом с учетом местной ситуации и консультаций с Управлением поддерж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естными карантинными органами. Ка бы там ни было: 1/3 или 2/3, это значит, нас снова ждет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Как же быть первоклассникам? Как было отмечено на сайте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ёнгидо, учащимся 1-2 классо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а также ученикам специальных школ, малых школ, школ фермерских и рыболовецких поселков, детям-иностранцам и тем, кто нуждается 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м уходе и базовом обучении, возможно полноценное посещение школы.

Кроме того, ученикам 1 классов средней и старших школ для адаптации к 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и обучения первые 1-2 недели рекоменду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сещение школ.

Как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первый звонок" в Корею в 2021 году?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учебного года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рамках класса, без участия посторонних. Помимо того, в течение первых 1-2 недель во всех школах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обучение соблюдению правил профилактики и период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В случае выпускников старших школ, которая требует разнообраз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ремени подготовки, таких как поступление в ВУЗы или получение работы, сохраняются те же принципы посещения, что и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Надежды многих родителей школьников, и мои в том числе, что дистанционное обучение в новом году закончится и дети вернутся к нормальному школьному обучению, не

оправдались.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масштабную работу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ре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и учреждений,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ных с образованием, по созданию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онлайн-базы, адаптированной к современным условиям карантина, хочется верить, что дети, привыкшие к этому новому процессу обучения, получат полноценное шко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 сведению: маленькая школа - это школа с оставом 300 или меньше учеников, а также школа с составом 300~400 учеников, но меньше 25 учеников в каждом классе.

Проверить статус своей школы можно на сайте Управл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ёнгидо www.goe.go.kr?

Репортер инсотранных соц.сетей Кёнгидо, Елена Ким.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학습 과정은 대규모의 변화를 겪었으며 '원격 학습'과 '온라인 수업'의 개념이 현대 생활에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다가오는 새학기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2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도 3월 신학기 개학에 따른 유초중고 학사운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학기부터 경기도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칙을 적용합니다. 학교 출석률은(등교) 학생 1/3(고등학교 2/3)을 기준으로 하며 가능한 최대 집중도는 2/3입니다.

또한 2단계 적용 시 초·중·고교별 2/3 운용은 지역상황을 고려하고 학교공동체가 교육청과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합니다. 아무튼 1/3 또는 2/3 기준은 원격 학습이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1학년 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어촌학교, 외국인아동(중도입국학생) 등 돌봄 및 기초 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매일 등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1, 고1 신입생은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을 위하여 3월 1~2주는 우선 등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 '입학식'(개학식)은 어떻게 진행 될까요? 입학식 등 행사는 외부인 참가 없이 신입생 대상으로, 학급단위로 실시합니다. 또한 첫 1~2주간 모든 학교에서 예방수칙 준수 교육 및 학교별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합니다.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 다양한 진로 진학 준비기간이 필요한 고3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등교원칙을 유지합니다.

새학기에는 원격교육이 끝나고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것이라는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들이 대규모 작업을 통해 현대적인 검역 조건에 맞는 온라인 교육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었고 아이들이 이 새로운 학습 과정에 익숙해져서 본격적인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학교는 학생이 300명 이하인 학교와 학생이 300~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이 25명 이하인 학교입니다.

학교 규모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www.goe.go.kr에서 학교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có được tiêm Vacxin Covid-19

코로나 백신,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외국인주민 무료 접종 가능



Trước tình hình Chính phủ đưa ra quy định thi hành việc tiêm vacxin Covid 19 bắt đầu từ ngày 26 tháng 2 tới đây, khoảng hơn 2 triệu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ang lưu trú tại Hàn quốc cũng đặc biệt quan tâm đến vấn đề này.

Vào ngày 1 vừa qua, đại diện Cục quản lý bệnh lý cho biết rằng sẽ tiến hành tiêm vacxin cho cả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nhưng sẽ bị hạn chế về tư cách lưu trú, chỉ tiếp nhận việc tiêm vacxi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ời gian lưu trú dài hạn và đủ tư cách để đăng kí mua bảo hiểm quốc dân.

Phần kì	Đối tượng
I (1,300,000 người)	* Bệnh nhân bệnh viện điểu dưỡng, nhân viên đang làm việc tại bệnh viện điểu dưỡng, nhân viên làm việc trong lĩnh vực đặc thù * Nhân viên y tế điểu dưỡng tại cơ sở y tế có ngoại ngữ tiếng Hàn Covid 19 * Nhân viên y tế làm việc tại các cơ sở y tế mà có nguy cơ lây nhiễm Covid cao hơn bình thường * Nhân viên điểu dưỡng lây nhiễm Covid, nhân viên cứu hộ, vv * Bệnh nhân bệnh viện điểu dưỡng thể n kinh, nhân viên làm việc tại những cơ sở có nguy cơ lây nhiễm Covid cao, vv
II (9,000,000 người)	* Những người cao tuổi, nhân viên đang hoạt động tại cơ sở phúc lợi * Tiêm phòng theo tư vấn cho người từ 65 tuổi trở lên * Nhân viên y tế, nhân viên nhà thuốc * Những người khuyết tật, người vô gia cư, nhân viên đang hoạt động tại những cơ sở phúc lợi hỗ trợ hai đối tượng nói trên
III (33,250,000 người)	* Người trưởng thành bị mắc các bệnh mãn tính * Người trưởng thành có độ tuổi từ 18-64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 Quân nhân, nhân viên cảnh sát, nhân viên cứu hỏa hay nhân viên đang hoạt động trong lĩnh vực hỏa, trợ xã hội * Trẻ nhỏ, thanh thiếu niên, nhân viên đang làm việc tại những cơ sở chăm sóc trẻ
IV	* Những đối tượng chưa tiêm phòng trong phần kì II

Tính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Chính phủ đã hoàn thành việc kí kết hợp đồng để có thể mua 79 triệu liều vacxin tương đương với 152 triệu lần tiêm trong quý I năm nay. Theo dự kiến, hai loại vacxin chính sẽ được đưa vào Hàn quốc đó là Astrazeneca và Pfizer trong quý I này.

Thứ tự thực hiện việc tiêm vacxin sẽ được chia ra làm 4 phân kì, đối tượng cụ thể có thể được tiêm trong từng phần kì như sau:

Thứ tự tiêm phòng vacxin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đồng nhất với thứ tự tiêm phòng dành cho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Tuy nhiên Chính phủ đang xem xét lại việc tiêm phòng dành

cho những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có thời gian lưu trú ngắn nhập cảnh với mục đích tham quan, lao động theo mùa, Bộ tư pháp xét thấy cần thiết trong việc tiêm phòng sẽ có quyết định chính xác sau khi trao đổi và hội họp cụ thể. Bộ tư pháp cho biết "do tình hình của dịch Covid 19 không có khả quan,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heo mùa không thể nhập cảnh để làm việc trong năm trước thì năm nay Bộ cũng không có kế hoạch đón các đối tượng lao động này sang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và "tuy nhiên nếu tình hình đón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này sang Hàn quốc làm việc là điều cần thiết thì Hàn quốc sẽ trao đổi cụ thể với quốc gia của người lao động đó về vấn đề tiêm phòng vacxin".

Theo như chế độ lao độ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rực thuộc Bộ lao động, số lượng người lao động này vào khoảng 20,000 người. Đối tượng người lao động này sau khi nhập cảnh sẽ có thể lưu trú trong thời gian tối đa là 4 năm 10 tháng tại Hàn quốc, thuộc diện lưu trú dài hạn và đương nhiên cũng đủ điều kiện đăng kí tham gia mua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Do đó đây là những đối tượng nằm trong da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tiêm vacxin. Đương nhiên, những đối tượng đã mua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thì sẽ được tiêm phòng vacxin một cách miễn phí.

Ngoài ra những đối tượng như người kết hôn, đại đa số bộ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này đều là vợ hoặc chồng của quốc dân, người mang quốc tịch Hàn quốc do đó cũng nằm trong danh sách đối tượng được tiêm phòng vacxin miễn phí.

Mặt khác, những đối tượng như kiều bào hay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từng tiêm phòng vacxin Covid 19 tại quốc gia của mình, nhưng sau kh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vẫn phải thực hiện đúng quy định cách ly 14 ngày do Hàn quốc quy định.

Chính phủ sẽ 26 tháng 2 từ ngày bắt đầu tiêm phòng vacxin Covid 19. Nhưng trong nước đang có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ở Hàn quốc, họ có thể được tiêm phòng vacxin Covid 19 tại quốc gia của mình, nhưng sau kh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vẫn phải thực hiện đúng quy định cách ly 14 ngày do Hàn quốc quy định.

Chính phủ sẽ 26 tháng 2 từ ngày bắt đầu tiêm phòng vacxin Covid 19. Nhưng trong nước đang có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ở Hàn quốc, họ có thể được tiêm phòng vacxin Covid 19 tại quốc gia của mình, nhưng sau kh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vẫn phải thực hiện đúng quy định cách ly 14 ngày do Hàn quốc quy định.

Hiện tại Chính phủ sẽ 7,900 triệu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tiêm phòng vacxin Covid 19. Nhưng trong nước đang có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ở Hàn quốc, họ có thể được tiêm phòng vacxin Covid 19 tại quốc gia của mình, nhưng sau kh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vẫn phải thực hiện đúng quy định cách ly 14 ngày do Hàn quốc quy định.

- 1분기 (130 triệu)
 - ▲ 요양병원, 요양시설입원, 입소자, 종사자 ▲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보건의료인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 역학조사, 구급대 등 1차 대응요원 ▲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 입소자, 종사자
- 2분기 (900 triệu)
 -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종사자 ▲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1분기 접종대상 외 ▲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종사자
- 3분기 (3325 triệu)
 - ▲ 성인 만성 질환자 ▲ 성인 18~64세 (외국인 포함)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개발시설 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4분기
 - ▲ 2차 접종자 ▲ 미접종자

외국인의 접종 순서도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관광객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해에 오지 못한 계절 근로자를 올해도 데려올 계획이 없다"며 "다만 계절 근로자가 온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2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까지 머무는 장기체류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접종 대상자에 해당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국민의 배우자이고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본국에서 백신을 맞았다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에서 정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14일동안 격리해야 한다.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화성건가다가, '새로운 패러다임 선도하는 초일류 가족지원전문기관'

올해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신순철)는 지난 2월 26일 운영법인인 협성대학교 이공관 2층 세미나실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좁으로 생중계된 이날 비전 선포식은 박명래 협성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및 센터 관계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다문화가족과 화성시민 등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박명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통합 출범한 센터의 여건과 환경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고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늘 비전 선포식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화성시의 가족과 여성,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복지전문기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비전 선포 행사에는 신순철 센터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대형 화면 앞에 나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센터를 소개하고 미션과 비전, 핵심 가치 등을 발표했다.

신 센터장이 발표한 화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미션은 ‘가족친화 도시문화를 책임지는 화성시민의 건강가정 파트너’이다. 비전은 ‘건강가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초일류 가족지원전문기관’이며 핵심가치는 ‘원칙과 신뢰’, ‘소통과 협력’, ‘도전 정신’ 등 3가지이다.

신순철 센터장은 “센터의 존재이유와 사회적 사명은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도시문화를 통해 화성시민과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경영체제를 정착하고 건강가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여 화성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가족정책

을 선도하는 가족지원전문기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사 말미에는 박명래 총장과 신순철 센터장 등이 연단에 올라 ‘화성시민과 함께’라고 쓰인 작은 현수막을 펼쳐보이며 더 나은 내일을 다짐했다.

이에 화답하듯 축하영상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가, 자원 상담사, 방문교육 지도사, 아이돌보미 등이 출연해 새로운 센터의 미션을 축하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비전 선포를 위해 지난 두 달 간 신순철 센터장과 직원들은 수십차례에 걸친 직무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비전을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합 센터에 걸맞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결실을 맺어 발표된 미션과 비전은 앞으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전망이다. 송하성 기자

아이키우기 편한 동네 아이키움 담당관 운영



화성시는 ‘2021 아이키우기 편한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아이키움 담당관’을 운영한다.

‘아이키우기 편한 동네’ 사업은 2021년 달라지는 화성시 10대 주요정책 중 하나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육아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키움 담당관은 화성시 관내 28개 행정복지센터 내에 복지 담당공무원 2명씩 총 56명을 선정해 운영되며 지난 19일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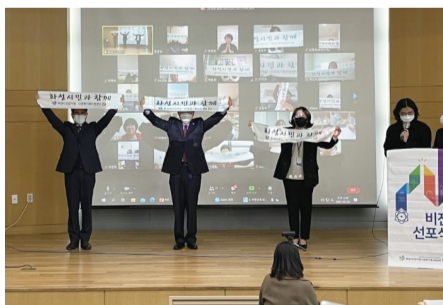
아이키움 담당관은 기존 아동서비스의 신청과 접수는 물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의 종류와 위치 이용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양육이 어렵거나 방치가 예상되는 아동 등)에 대한 초기상담 이후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환경, 욕구, 학대정황 등도 조사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보호대상 아동 가정 방문 시 전담으로 업무 협조를 실시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연계 모니터링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화성시는 담당관들이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육아돌봄 정보를 수집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아이키움 담당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완료했다.

화성시는 아이키움 담당관을 통해 임신출산부터 육아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제공받고,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청 1577-4200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67-8786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031-8059-1261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031-267-1526
 다모임한사랑복지 031-357-0888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031-354-5222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90-08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